월간
우리문화
MAGAZINE

2001 지역문화의 해

2001 3

월간 우리문화 · 2001년 3월호(통권149호) · 등록번호: 라-3627(1984.7.12)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빌딩 1202호(우 121-715) · 값 3,000원

'2001, 지역문화의 해 뉴스파일' 신설

'DMZ' 생태관광 자원化 해야

문화원장 선거 '과열 분위기'

문화 상품을 만드는 사람들

방패연 세계가 감탄… "가족 스포츠로도"

월간
우리문화
2001 · 3

'2001, 지역문화의 해' 출범식이 지난 2월 4일 제주도 제주시 관덕정 앞 "탐라국 입춘굿 놀이" 현장에서 열렸다. 이어 애월읍 새별오름에서는 들불축제와 연계해 '출발! 지역문화의 해' 라고 쓰인 불글씨가 제주의 들바람을 타고 활활 타올랐다. 표지는 탐라미술인협의회의 박경훈씨가 이미지 합성한 그림 깃발로 '2001, 지역문화의 해' 출범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관련기사 35면)

2001년 3월호(제15권 3호 통권 149호) 등록 / 라-3627(1984. 7. 12) 발행처 / 전국문화원연합회 주소 / (우:121-715)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빌딩 1202호 전화 / 704-2311~3 FAX / 704-2377
천리안 / cc001fed(Go CCF) 인터넷 / www.kccf.or.kr 발행겸 편집인 / 李 秀 洪 사무총장 / 安 辰 洙 편집주간 / 柳 長 洙 인쇄소 / 크리홍보(주) 발행일 / 2001년 3월 1일 정가 / 3,000원
※월간 「우리문화」는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고 있습니다.

Contents

차례

4 ◆ 권두칼럼 — 새로짜는 문화의 틀 — 민경용

6 ◆ 특별기고 — 地域文化가꾸기와 文化財보호 — 정영호

8 ◆ 우리문화논단 — 'DMZ' 생태관광 자원화 해야 — 김홍운

11 ◆ 앞서가는 문화원을 찾아서 ㉑ — 허백영 의령문화원장 / 전원용 의령군수 인터뷰 — 강민철

19 ◆ 이달의 문화인물 — 일본에 성리학 전한 姜 沆 — 편집부

20 ◆ 행사 — 사업 계획 · 예산안 만장일치 통과 — 류장수
- 전국문화원연합회 정기총회 — 지방문화원진흥 조례제정 추진키로

22 ◆ 뉴스하이라이트 — 문화원장 선거 '과열 분위기' — 류장수

24 ◆ 한국방문의 해 — 다시오고 싶은 나라로 각인 노력 — 전영재

26 ◆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 춘천의 남성놀이 '외바퀴수레싸움' — 김의숙
안동의 여성놀이 '놋다리 밟기' — 안동문화원

32 ◆ 문화상품을 만드는 사람들 ⑳ — 방패연 세계가 감탄… "가족 스포츠로도" — 강민철
- 41년째 민속연 만들어 오고 있는 우상욱민속연연구소장

35 ◆ 2001, 지역문화의 해 뉴스 파일 — 탐라 들바람 타고 '출발! 지역문화의 해' 활활 — 강민철
'2001, 지역문화의 해' 출범식을 준비하며 — 박인배
'2001, 지역문화의 해' 지원사업 신청 안내 — 편집부

43 ◆ 오픈북 — '선녀들의 목욕스케줄' 아는 노루! — 편집부

46 ◆ 이사람 — "문화원마다 유물전시관 마련했으면…" — 강민철
- TV쇼 진품명품에 출연하는 도자기 감정위원 이상문씨

48 ◆ 전통의 멋과 맛 — 무속음악과 춤 — 편집부

50 ◆ 문화광장 — 머뭇거리던 영조에게 "사도세자 죽이라" 말한 건 생모 — 강민철
문학 통해 생명력 있는 역사의 주인공 만날 수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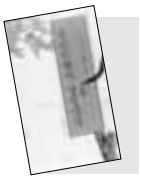
52 ◆ 문화관광부 — 삶의 질 향상 · 국가 경쟁력 제고에 초점 — 편집부
- 올해 주요 업무 계획 — 문화콘텐츠 전문회사 「코리아ⓒ뮤지엄」 설립

56 ◆ 세시풍속 — 콩볶기 · 머슴날 · 풍신제 — 박후식

58 ◆ 문화원 소식 — 편집부

63 ◆ 신간안내 — 편집부

69 ◆ 제15회 전국향토문화연구발표회 대상 논문 — 峨嵯山에서의 古代史의 諸問題 ㊦ — 김민수



새로짜는 문화의 틀

민 경 용
〈유성문화원 원장〉

2001년은 진정한 21세기가 시작되는 해이다. 시작되는 첫 해가 '지역문화의 해'로 지정된 것은 그 의미가 자못 크다. 그러나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낙후된 지역문화의 실상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기도 하다.

이처럼 수도권과 지역의 문화의 불균형은 문화를 향유하는 시민들의 자세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담당부서 나아가 문화정책과도 무관하지 않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다. 기계화와 산업화의 과정 속에서 상실되어 가는 인간성과 정신적 빈곤의 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은 문화 밖에 없다. 그러므로 한 나라의 국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하는 정부에서는 당연히 문화정책에 더 많은 힘을 쏟아야한다.

문화의 대국이라 불리는 프랑스에서는 정권이 바뀌고 통치권자가 바뀔 때마다 문화정책이 바뀌고 문화사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도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프랑스는 문화행정을 중요시하고 있고 공공으로 관리된 문화활동은 단 하나의 국가 영역이 되어왔다. 재정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문화성은 대부분의 프랑스 문화기관을 직접적으로 관리한다. 문화적 분권화의 정치적 행정적 분권화는 대통령 그 자신의 재임 기간 중 중요한 사업으로 발표되어 올만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선거공약에 문화정책을 공약으로 발표한 예가 거의 없는 것을 볼 때 프랑스 정부의 이 같은 태도는 문화인의 한 사람으로 매우 부러운 일이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국가가 지원하는 전시회나 공연에 대한 공적인 지원을 하고 문화청도 순회축제를 통하여 관객유치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 또 국제교류기금을 통한 정부의 문화선양도 기대할만 하다.

일본정부는 전통과 현대예술 혹은 서양예술인가 자국의 예술인가를 선택하지 않고 거의 모든 공인된 단체에 대한 원조정책을 추구해 왔다. 정부는 문화국가로서의 일본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고전적 서구음악과 오페라, 발레들도 발전시켜왔다. '우리가 일본에 무엇을 전파해 주었고 일본

문화의 어머니는 우리'라는 자부심으로 큰기침하고 있을 때 일본은 과거에 매이지 않고 앞으로 앞으로 전진해간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문화에 대한 일본의 노력은 이제 세계 도처에서 일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

앞서 살펴본 바 문화정책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몇몇 책임 있는 관료의 의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문화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에는 어떠한 시대가 되었건 변하지 않았다.

이것은 문화의 성격과도 무관하지 않다. 문화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항상 변화하고 생성 소멸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문화의 세기인 21세기 우리나라의 문화정책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첫째, 통일지향적 문화정책이어야 한다.

분단된 동안의 이념과 관습을 뛰어넘어 민족을 하나의 끈으로 묶을 수 있는 것은 문화 밖에 없다. 물론 문화활동의 방법과 시각의 차이가 있지만 민족의 화해와 일치의 구심점이 될 문화정책을 펴야한다. 지금도 북한의 노래와 남한의 노래가 서로 불리워지고 서로 어색해하면서도 마음이 통하는 느낌을 받고 있는 것을 보아도 문화는 남과 북을 하나로 연결짓는 가장 빠른 길이다.

둘째, 중앙과 지역 간의 문화의 불균형을 없애는 정책을 펴야한다. 이러한 인식은 이미 '지역문화의 해' 선정을 계기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칫 구호에만 그칠 수 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문화단체에 대한 자립도를 키워 지역에 맞는 문화활동을 벌일 수 있게 적극지원해 주어야할 것이다.

셋째, 환경친화적 정책을 펴야한다.

21세기는 환경이 중요한 화두이다. 환경이 살지 못하면 인간이 살 수 없고 인간이 살 수 없으면 문화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모든 문화활동과 문화사업이 환경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환경친화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도록 정책을 펴야한다.

넷째, 인간성회복을 할 수 있는 문화정책이 되어야 한다.

'원칙을 지키자' '바르게 살자' '배려하는 자세를 갖자' 등 요즈음 부르짖고 있는 구호를 보면 우리가 과연 오천년 역사를 지닌 '동방예의지국'의 자손이었나 의심하게 된다. 살기에 바빠서가 그 이유였다면 이제는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인 만큼 국민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삶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문화정책을 펴야한다. 시간과 재정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즐기는 것이 문화가 아니라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스스럼없이 공연장을 찾아 마음의 활력을 찾아갈 수 있도록 각계각층을 배려하는 문화정책이 되어야 한다.

다섯째, 우리문화를 관광상품화하고 세계화시키는 정책을 펴야 한다.

'우리 것이 좋은 것이여' 하고 앉아서 수염을 쓰다듬던 시대는 지나갔다. 짚신 한 짝이라도 상품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잘 포장하고 다듬어서 세계인의 눈길을 끌 수 있도록 해야한다. 문화예술인들의 열악한 환경을 생각할 때 아이디어만 있으면 정부에서 적극 지원하여 꾸준히 상품화해야 한다. 진정한 세계화는 세계의 것을 우리화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을 세계화하는 것이 아닐까.

뿐만 아니라 모진 세월동안 열강의 나라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문화재를 되찾아 오는 작업도 반드시 해야할 문화 정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문화는 저절로 자라는 환상이 아니다. 따뜻한 햇빛과 적당한 양분, 수분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가꾸는 사람의 정성이 필요한 나무이다. 각자 개인적인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문화활동은 공적인 문화정책이 뒷받침되고 나아가 문화복지 차원의 지원이 선행될 때 문화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다.

문화의 나무가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고 무성한 잎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다.문

地域文化가꾸기와 文化財보호

정 영 호
〈한국교원대 명예교수 · 문화재위원〉

동 · 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던지 고향이 없는 사람은 없다. 고향을 아끼고 그리워하는 그 척도가 다를 뿐 모두 고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기에 우리 주변에서 추석이나 설날 명절때는 고향을 찾는 인파가 대단하여 민족의 대이동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고향이란 나를 낳아준 곳이고 부모님을 비롯해 조상들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곳이다. 백년 혹은 오백년, 또는 그 이상의 오랫동안 전통을 간직하고 오늘에 이른 곳이 고향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므로 고향에는 유형 무형의 문화유산들이 여기저기에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이러한 고향의 문화유산을 알지 못하여 무심히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문화유산이란 우리 인간사회에서만 존재하는 것으로 그 우 · 열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가정이나 마을에 반드시 오랜동안 이어오는 유형 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예컨대 한 집안에 전해내려오는 미풍양속, 마을주변의 역사적인 유적 유물,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의 문화유산이지만 아직까지는 이들에 대한 관심이 적어 소홀히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음을 쉽게 볼 수 있다. 최근에 이르러 각종 언론매체의 고향을 소개하는 내용에서 그 마을의 역사, 전통적인 풍속, 특산물 등 모든 것을 잘 알리고 있는데 이런것들이 곧 지역문화를 찾아내어 개발시키는데 있어서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같이 우리 문화는 먼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언제든지 보며 또한 찾을 수 있는 실체인데 이것들을 애써 살필려고 하지 않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한다. 옛말에 '등잔밑이 어둡다' 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우리의 고향, 즉 전국 각 地域에 많은 옛문화재와 문화현상이 있음을 찾을 수 있는데 이들을 알려고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韓國史 연구에 있어서 그 定立은 鄕土史 연구가 先行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강조하고 있다. 우리의 문화재 보호에 있어서도 잘 알려져 있는 것과 크게 보이는 국가지정의 국보, 보물, 사적 등에만 치중하여 지방문화재에 대한 관심은 소홀한 경향이 있다. 한국사의 완성이 지방사 연구로부터 비롯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문화재의 보호는 '지역문화가꾸기' 로부터 시작되어

야 할 것이다.

1997년 12월 8일, 한국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문화유산 헌장'을 제정 · 반포한 바가 있다. 이 헌장의 정신과 실천 강령 5개항은 곧 지역문화 가꾸기와 문화재보호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본 논지의 내용과도 부합되므로 여기에 옮겨 널리 알리고자 한다.

'문화유산은 우리 겨레의 삶의 예지와 숨결이 깃들어 있는 소중한 보배이자 인류 문화의 자산이다. 유형의 문화재와 함께 무형의 문화재는 모두 민족문화의 정수이며 그 기반이다. 더욱이 우리의 문화유산은 오랜 역사속에서 많은 재난을 견디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므로 문화 유산을 알고 찾고 가꾸는 일은 곧 나라사랑의 근본이 되며 겨레 사랑의 바탕이 된다. 따라서 온 국민은 유적과 그주위 환경이 파괴 ·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문화 유산은 한번 손상되면 다시는 원상태로 돌이킬 수 없으므로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그대로 우리도 후손에게 온전하게 물려줄 것을 다짐하면서 문화유산 헌장을 제정한다.

문화 유산은 원래의 모습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문화 유산은 주위 환경과 함께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문화 유산은 그 가치를 재화로 따질 수 없는 것이므로 결코 파괴 도굴되거나 불법으로 거래되어서는 안된다.

문화 유산 보존의 중요성은 가정 · 학교 · 사회교육을 통해 널리 일깨워져야 한다.

모든 국민은 자랑스러운 문화 유산을 바탕으로 찬란한 민족문화를 계승 · 발전시켜야 한다.'

지역문화를 가꾼다는 것은 그 지역에서 알고 찾은 문화를 잘 보존하며 발전시켜가는 것이다. 현재 문화재관계 정부기관으로는 문화재청이 있고 심의기구로 중앙에 문화재위원회가 있으며 각 지방에는 서울특별시 외에 광역시들, 道에 지방문화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 지방문화재의 지정 · 보존등을 심의하고 있다. 그리하여 국가지정과 지방지정의 문화재가 나름대로 보존되고 있으나 사실상 논의에 앞서서 알고 찾는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국가기관의 손길이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면에 있어서 필자는 항상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기관이 바로 文化院인 것이다.

문화원은 市 뿐만 아니라 각 郡에 반드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

문화원은 글자 그대로 각 지역의 문화창달을 위하여 세워졌으며 이곳에서의 문화 활동은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기관이상으로 활발함을 볼 수 있다. 문화인들의 모임, 문화행사의 주관 등 가장 보람있는 지역문화가꾸기를 솔선 수범하고 있는 기관이 바로 문화원인 것이다. 문화원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각 지역들 사이의 정보 교환도 가장 빠르고 정확하지 않을까 한다. 최근에 이르러 서울특별시에서도 각 구에 문화원을 설치하여 몇곳의 문화원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하여 문화재 보호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작업인 지역문화가꾸기를 바로 이 문화원 중심의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확실한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믿는바 다음의 몇가지로 결론을 짓고자 한다. 즉 각 文化院에서는 ① 각 지역에서의 문화를 알고 찾아내는 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그 지역의 유형 · 무형문화재에 대하여 정확하고도 소상한 정보를 수집하여 내용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② 조사된 문화재의 우 · 열을 가리어 국가지정과 지방문화재 지정대상을 선별하되 분류시 애매한 점은 그 방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한다. ③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지정, 道지정의 문화재만이 보호 대상으로 되어 있으나 선진국과 같이 郡단위 혹은 面단위의 문화재지정 조례(?)를 만들어 더 넓게 지정하여 지역문화를 가꾸고 보호해야 할 것이다. ④ 문화재보호는 보호법이나 몇사람의 힘 또는 정부기관만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문화재는 우리의 것이요 후손들에게 영원히 남겨줄 자산인 것이다. 이러한 마음 가짐을 국민 모두가 갖도록 계도하는 일이 또한 시급하지 않을까 한다.

‘DMZ’ 생태관광 자원化 해야

김 홍 운
〈한양대 관광학과 명예교수〉

최근 남북정상회담 이후 통일에 대한 염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접경지역(DMZ)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지역은 우리나라 토지 이용과 개발 패턴 중 가장 엄격히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곳이다.

지난 99년말 접경지역 특별법이 통과되어 한편에서는 이 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파괴를 우려하는 환경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은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실제 이 법이 무용지물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환경파괴는 심화되나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경제 이익은 별 차도가 없으니 양쪽 모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현상이다.

접경지역은 ‘생태계의 보고’이다. 이를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적절히 관광자원화 한다면 지역 주민은 물론 한반도의 평화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지역이 군사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개발에 제한이 많아 지역주민들의 소득은 낮고 적절한 토지이용도 되지 않은 현상을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 무언가 획기적인 방안은 없을까? 여기에서는 접경지역에 대한 최선의 토지 이용으로 이 지역의 관광자원을 가장 생태적으로 건전하면서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접경지역 생태관광자원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민통선지역(옹진군, 강화군북부해역, 내륙접경지역)에는 천연기념물, 희귀동식물, 철새도래지, 희귀어류가 많이 발견되고 있다.

현재 희귀 조류가 서식하고 있는 곳은 백령도, 강화도의 여러 무인도, 육지 산간지대(검독수리, 소쩍새, 황조롱이, 매 등)이며 철새 도래지는 강화도 남쪽해안 갯벌지대(강화도 길상면)와 김포군 한강변 저지대, 파주시 장남면과 백학면의 내륙지대(비무장지대), 철원군 샘통지구와 철원평야, 고성군

해안호수(영랑호, 송지호, 화진포)이다.

철새 도래지에 찾아오는 조류 가운데 세계적으로 희귀한 조류(두루미 · 저어새 · 노랑부리백로)가 있어 보호대책이 시급하다. 그리고 희귀 어종인 특산어종(열목어 · 산천어 · 금강모치 등)은 비무장지대와 민통선지역의 산간 하천에 살고 있으나 이들 어족 역시 남획과 수질오염으로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다.

고산 천연보호구역(설악산, 대우산, 대암산, 건봉산 등)에도 천연기념물과 특산식물들이 자생하거나 군락을 형성한다. 이상과 같은 희귀 야생동식물은 우리 나라의 천연자원이며 학술적 연구가치가 높고 생태계 보호대상에 포함된 것들이다. 또한 생태관광의 대상이 되어 이 분야의 관광발전에도 도움을 주게된다. 관광자원화 하자면 우선 철저한 보호 · 증식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남획 · 수질오염을 철저히 규제하고 감시하는 행정체제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관광대상이 되는 야생동식물의 보호와 보전,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은 보호자와 이용자 다함께 관심을 가져야 한다.

생태관광의 원리와 적용방안

오늘날 선진국이나 개도국이 생태관광에 적극적 투자를 하여 치열한 시장 경쟁에 대응하고 관광수입 증대를 추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도 이 부문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빈약한 나라에서는 종래 무가치하다고 보아온 자연생태계, 야생동식물, 습지 등이 새로운 유망한 자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민통선 지역 내 생태계보전지역 설정을 통한 자연환경의 보전과 지역 내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지역 활성화 방안이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방식의 도입을 제안한다. 지속가능한 개발 방식은 현재 UNESCO의 인간과 생물권계획(Man and the Biosphere Programme : MAB)에 의해 가장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경제적 부문과 관련하여 생태계 보전지역은 생태관광을 통하여 생태계 보전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 보전지역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고자 실시한 연구결과 자연생태계 보호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생태관광'으로 인한 수입이 보호지역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생태관광과 관련해 민통선지역 생태계 보전지역의 개발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생태관광과 관련해 두 가지 방향에서 민통선 지역 생태계 보전 지역 생태관광의 도입을 제안할 수 있는데, 첫째, 보호가치가 있는 자연생태계를 파괴적인 경제행위로부터 보호하고자 할 때이다. 생태관광은 자연보호지역에서 지속가능한 형태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보전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우려하는 지역 주민을 설득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된다. 둘째,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심화되었던 기존 관광개발에 대한 모색이 되는 경우이다. 생태관광의 효과는 관광객의 형태를 변화시켜 관광활동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고, 소규모개발 등으로 자원의 소비를 감소시키게 된다.

미국의 국립공원을 예로들면, 하나의 확일적인 환경보전의 원칙과 규제를 모든 국립공원에 적용하는 대신 각 공원별로 이용자의 편익에 우선순위를 둔 경우와 자연자원의 보호에 우선순위를 두는 경우로 분리하여 자원의 특성과 예측된 이용행태에 맞춰 특색있는 공원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다. 가치있는 자원, 보호해야 할 자원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미국의 국립공원체계의 특징은 환경과 자연의 보전에만 비중을 실어 개발에 무조건적인 규제를 적용하기 보다는 이용을 통해 얻어지는 자원가치의 상승효과를 통해 적극적인 자원 이용과 자원 보존 사이의 조화를 이루는데 있다.

오늘날 선진국이나 개도국이 생태관광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 치열한 시장 경쟁에 대응하고 관광수입 증대를 추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도 이 부문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빈약한 나라에서는 종래 무가치하다고 보아온 자연생태계, 야생동식물, 습지 등이 새로운 유망한 자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생태관광 도입의 문제점 및 유의점

생태계보전지역의 자원보전과 주민의 경제적 발전을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생태관광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생태관광도 단점이 있다. 첫째, 생태관광이 보호지역의 생태적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과다한 수의 관광객 방문은 식생의 파괴와 토양유실을 일으킬 수 있다. 둘째, 생태관광의 수익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돌아가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관광산업은 그 이윤이 재벌이나 도시에 사는 부유한 사람들에게 돌아갔다. 최근 강원도 정선군의 카지노 산업의 경우만 보더라도 지역경제발전에 도움이 안된다는 보고가 있듯이 현지인보다는 외지에서 온 도시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문제가 된다. 생태관광이 자연생태계보호에 도입이 되려면 그 수익이 생태계보전지역 내에 사는 주민과 지방자치단체로 돌아가야 한다.

해결책 및 활성화 관련 제언

생태관광지 지정 · 관리에 앞서 보전지구 관리를 위한 상설 협의기구를 설치하고 운영 전담기구의 설치도 필요하다. 또한 재정지원 및 자체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생태관광지 지정 후 생태관광지의 점검이 필요하며 모니터링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전문기관을 통한 운영실태에 대한 감독이 필요하다.

보전과 이용의 조화를 위한 대안은 UNESCO의 생물권보전지역 설정의 개념을 적용하여 민통선지역 토지의 얼마만큼은 전통적 생태계형에 걸맞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할애하고 합리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이러한 투자를 할 때 생태학적으로 견실한 토지이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현실에서 불가능한 비무장지대에 대한 관광의 대안으로 사이버 관광을 제안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경향신문 2000년 10월 20일자 33면).

이처럼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은 완벽하게 보존하여 그것을 간접 경험의 형태로 접하도록 하고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관광자원화 한다면 접경지역의 환경파괴도 줄일 뿐만아니라 지속적인 관광수입의 증대로 지역주민들의 경제적인 향상도 꾀할 수 있어 일석이조가 되리라 기대한다.

이상에서 접경지역 주민의 경제난 해소와 더불어 환경파괴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태관광 도입에 대해 알아 보았다.

접경지역은 우리나라에서 뿐만아니라 세계적으로 생태자원의 관심 대상지역이라 접경지역을 단순히 보존하거나 개발하려는 논리보다는 토지이용 현황과 관광자원의 분포를 고려하여 권역을 구분해서 보존할 지역은 확실하게 보존하고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은 환경을 고려한 생태관광지로 개발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토지이용상, 준보전지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곳은 우수한 자연경관과 역사 · 안보관광자원이 분포돼 있어 관광활동을 육성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생태계와 안보지역을 관광하기 위한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 관광과 휴양, 교육연구시설을 유치한다면 현재 낙후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후손들에게 중요한 유산으로 남을 수 있을 것이다.문

강 민 철 기자 (mckang@kccf.or.kr)

경남의 중앙에 자리잡은 의령은 아직까지도 '촌냄새'가 남아있는 곳이다. 더럽혀 지지 않은 산천처럼 인심도 순후하다. 예향의 고장이자 충의의 고장. 이곳에 3월이면 백로가 날아든다. 의령군 가례면 가례리 서산. 이곳엔 한해에 보통 2백여수의 백로가 날아들어 둥지를 튼다. 아마 이 봄날! 어미새의 보호를 받으며 웅크린 두어마리의 새끼들의 날개 쭉지가 간지러울지 모른다. (의령문화원 사진제공)

제7대 의령문화원장에 재선... 지난 2월 12일 취임식 가져

"다시 향토문화 담아내는 두레박으로"

허백영 의령문화원장 인터뷰

허백영 의령문화원장(66)은 언제나 검정색 두루마기 차림이다. 그 모습이 위풍당당함을 느끼게 한다. '지방문화원을 이끄는 문화원장이라면 저 정도의 멋은 내야 하지 않을까?' 일전에 전국의 문화원장이 청와대를 방문할 때 다들 양복차림이었는데 그만이 유독 두루마기를 정갈하게 입고 나타났던 걸 기억한다. 또 하나의 허원장에 대한 인상은 매달 보내오는 '문화원소식'이다. 자신이 손수 정리한 글과 정성스레 붙인 사진에서 문화원에 대한 애정을 느끼게 한다.

지금까지 문화원 안팎의 활동도 왕성하다. 91년 부원장에 취임하면서 회원확충과 함께 임원진의 개편, '의령문화' 창간등 외허내빈(外虛內貧)이었던 문화원에 개혁을 단행했다.

그후 97년 1월 제6대 의령문화원장에 취임하면서 그야말로 환골탈태에 비유될 정도의 큰 변혁을 가져왔다. 또 개인적으로는 서울신문(현 대한매일)이 주최한 제14회 향토문화대상(전통문화 부문)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기도 했다.

이 모든 공로를 인정받아 그는 지난해 11월 28일 원장선거에 단독출마한 결과 무투표 당선됨으로써 2월 12일 제7대 의령문화원장에 취임했다. 바쁜 그와 서면 인터뷰를 가졌다.

늦게나마 의령문화원장에 재선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소감은?

저희 문화원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240여 회원님들의 특별한 성원과 협조 덕분으로 연임이 되었습니다만 솔직히 말하면 영광에 앞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면서 문화원회원들의 여망에 부응하는 원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4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중점사업을 중단없이 시행하는 한편 지역사회의 정서상 문제가 있는 부분은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4년간의 임기동안 온힘을 다해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반향의 전통을 계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의령문화원에서 가장 역점을 두었던 사업은 무엇입니까? 또 앞으로의 계획은?

의령문화원은 1981년에 설립된 이래 여섯분의 원장이 바뀌며 크고작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제가 취임한 1997년 1월을 계기로 우선 6년간 중단되었던 '의령문화'를 속간했고 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회도 재발족했습니다. 유명무실했던 문화예술단체를 문화원 부설단체로 재정비해 분야별 문화활

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갔습니다. 그야말로 문화의 우물터에 하나의 두레박이 되고 메마른 바위에 생명의 이끼를 돋아나게 하고 향토문화의 불을 일으키는 부지깽이가 된다는 생각으로 16여개의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는 합동전시행사를 매년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잊혀지고 숨겨져 왔던 소중한 향토사료의 수집정리와 사료집의 발행에도 심혈을 기울여 '의령누정록', '의령문학', '바른예절, 바른생활', '전통민속놀이와 세시풍속', '조선환여승람', '역사문화수첩', '우리고장 땅이름', '의령충효열록' 등을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4월 22일 개최되는 의병제전(義兵祭典)의 문화예술행사와 전통민속놀이를 주관해오고 있습니다.

저마다의 지역에는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의령의 문화'는 한마디로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예로부터 여충효(勵忠孝) 장문학(將文學)의 향풍으로 알려져 있는 의령은 임진왜란 때 곽재우(郭再祐) 장군이 최초로 민중의병을 일으켜 왜구를 물리친 구국 충정과 한평생을 항일독립운동에 헌신한 백산(白山)안희제(安熙濟) 선생님의 숭고한 애국혼이 서려있는 충의향(忠義鄕)일 뿐 아니라 학덕 높은 선비가 많아 문화예술의 향기가 드 높았던 반향(班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형 문화원은 도시형 문화원과 비교해 여러모로 다른 사회적·문화적 환경에 놓여있다고 봅니다. 문화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 또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농어촌의 문화적 환경은 불모지나 다름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 지역문화원의 운영상 애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인적·물적 자원도 그렇거니와 문화부흥을 위한 재정확보가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 하겠습니다. 다행히 우리 군의 경우군민의 성금으로 군민문화회관이 건립됐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도 점차 늘어나 어느정도 문화적 기반이 다져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향토문화의 계발을 주도하고 있는 문화원의 위상도 점차 높아져 각급 기관·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회원들의 참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을 보더라도 4천 5백만원의 군비를 지원받기로 책정되었는데 앞으로의 추경예산에서는 이보다 더 증액될 전망입니다.

의령군과 유대관계는 어떻게 형성하고 있습니까? 군

수의 문화에 대한 인식과 문화원 지원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농촌지역처럼 인구의 도시유출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산업시설의 빈약함으로 인해 군세가 아주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의령군은 저희 문화원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후방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원은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장 등 중요 기관·단체장을 문화원의 자문위원으로 추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평직원 중에도 유능한 분들이 있으면 회원으로 영입하는 등 평소에 유대관계를 긴밀히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대한 결과를 수시로 통보함으로써 상호 신뢰를 더욱 깊게 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과정을 통해 행정당국으로 하여금 문화원에 대한 지원이 헛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장님이 문화원에 발을 들여놓은 계기와 그 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장 어려웠던 때는,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제가 문화원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것은 1991년으로 당시만 해도 10평 남짓한 사무실에 회원수도 50명이 채 안됐습니다. 1년동안 부원장겸 이사로 재직한 후 다른 일 때문에 6년 동안 참여치 못하다가 1997년 문화원장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당시엔 경합이 치열한 선거라 기쁨도 컸습니다만 막상 당선되고 나니 걱정이 더 많았습니다. 전체예산도 6천만원이 채 안되었습니다. 사무국 직원도 그렇고 모든게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우선 문화원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단체라는 이미지를 심는 한편 회원 확보와 함께 재정적 안정을 기해야겠다는 생각에 회비를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의령문화' 3호를 속간하는 등 '일하는 문화원',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단체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 애쓴 결과 자치단체의 지원도 점차 많아졌습니다. 어려움만큼 보람도 큽니다. 무엇보다도 향토사료를 수집정리해 책으로 묶어 나눠줄 때가 그렇습니다. 각종 행사를 마치고 난 뒤 지난번 보다 훨씬 좋았다는 평을 듣는 일이 가장 흐뭇합니다. 그리고 주부서예교실 회원들이 도 단위 휘호대회에서 여섯 분이나 입선했을 때 정말 감개무량했습니다.

앞으로 원장님이 문화원 발전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일은?

현재 1천 5백만원인 문화원 기금을 확충하는 한편 회비도 현재 연 5만원에서 상향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특별회원을 다수 영입하는 동시에 청년층과 여성분들을 일반회원에 가입시켜 3백명 정도의 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정부와 전국문화원연합회에 바라고 싶은 것이 있다면?

올해는 '지역문화의 해'로 정부에서 도·농간의 문화적 기반은 물론 문화적 향수권의 격차가 심하다는 현실을 감안해 재정지원을 대폭 늘려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전국문화원연합회에서도 여러 가지면에서 여건이 좋은 도시지역보다는 모든 것이 취약한 농촌지역 문화원에 대한 특별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의령은 문화의 향기가 살아 숨쉬는 충의의 고장

문화원과 예술촌, 때묻지 않은 자연 '자랑'

전원용 의령군수 인터뷰

경상남도의 중앙부에 위치한 의령은 임진왜의 발상지로 수많은 유물 유적이 산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령만의 고유한 문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령은 문화의 향기가 살아 숨쉬는 충의의 고장입니다. 선조들은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내고장을 지키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이처럼 의령의 얼을 높여준 역사적 사건으로는 곽재우 장군을 중심으로 한 의병창의와 백산 안희제 선생을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의령은 전적지와 기념물이 전시되어 있는 충익사를 비롯해 정암진 · 기강나루 · 그리고 현고수 등이 자리잡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백산 안희제선생 생가 등 역사의 발자취가 남아있어 충과 얼의 문화를 간직한 고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령의 문화관광상품 개발현황과 향후계획은?

의령의 가장 큰 문화관광 상품으로는 때묻지 않은 자연이라 하겠습니다. 해발 897m의 자굴산과 물맑은 저수지 · 야영장이 어우러진 벽계관광지를 비롯 여름에도 찬비가 내린다는 찰비계곡, 봉황대의 기암절경, 이광모 감독의 작품인 안승기 · 송옥숙 주연의 영화 '아름다운 시절' 촬영지로 유명한 한우산, 그리고 긴 역사의 의미를 안고 흐르는 남강을 내려다 보고 있는 탑바위 등 빼어난 자연 경관들이 즐비한 곳입니다. 특히 폐교를 활용해 예술인들이 직접 조성한 의령예술촌도 의령의 문화와 예술을 꽃피우고 있는 대표적인 곳입니다. 이밖에도 의병 기념관인 충익사와 백산생가 등 역사의 현장과 신라고찰인 신덕산의 수도사와 미타산의 유학사를 비롯해 용국사와 일붕사 등의 유명사찰 곳곳에 아름다운 문화유산과 관광명소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지와 문화예술의 공간을 중심으로 의령의 관광문화를 꽃피워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보는 관광문화'와 '체험하는 관광문화'로 나누어 문화관광의 이미지 구축을 통한 경제적 가치를 증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중으로 실시할 문화부문의 사업은?

의병을 추모하는 제전행사로써 올해 29회째를 맞

는 의병제가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충익사와 공설운동장 등 의령읍 일원에서 성대하게 펼쳐지고, 특히 이 기간중 문화원이 주최하는 문화예술행사로 전국시조경창대회 · 전국한시백일장을 비롯해 서예 · 미술 · 목각 · 분재 · 난 · 꽃꽂이 · 사진작품 · 향토작가시화전 등 15개품목의 작품전시회가 4일간 계속되며 가훈 써드리기와 장승솟대깎기경연, 남녀 휘호대회등 여러 가지 행사를 갖게 됩니다. 꽃피는 5월에는 우리군의 명산인 한우산에서 철쭉제와 전국패러글라이딩 대회가 열리고 또한 올해 문화부문의 사업으로는 문화예술의 새둥지로 자리잡은 의령예술촌의 11대 계획을 꼽았습니다. 오는 3월부터 열리는 아트피플 의령전을 비롯해 개촌 2주년기념 작품전과 백일장 및 사생대회, 창녕과 함안 등 강을 건너야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한 시화전을 열고 여름 낭만전과 자연 풍경전, 여름별밤 소품전, 아름다운 의령전, 화가회 스케치 대회, 그리고 예술인의 밤 등이 '지역 문화의 해'를 꽃피워 나갈 것입니다. 또한 20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망우당 곽재우장군의 생가를 복원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벽화산성 복원 · 의령향교 보수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군수님이 임기중 꼭 이루고 싶으신 일이 있다면?

문화예술단체 육성으로 전통문화와 현대문화를 병행발전시켜 우리군민들이 문화향수권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령군의 문화시설은?

의령의 문화시설로는 전군민 벽돌한장 모으기 운동으로 건립한 의령군민문화회관과 의령박물관,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든 의령예술촌,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체력단련을 위한 청소년수련관, 전통한지의 발생지인 봉수면의 한지전시관 등이 있습니다.

의령군 방문자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문화관광지를 한가지 든다면?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조성한 의령예술촌을 한번쯤 방문해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이곳에 설치된 6개의 상설전시관에는 나무공예와 시화, 한국화와 서양화, 묵화, 사진, 짚 · 풀공예, 민속자료 등이 전시되어 있어 한눈에 우리문화의 진수를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중으로 기획 작품 전시회와 백일장, 스케치대회 등을 열기로 계획하고 있어 많은 관람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관광지로 이름이 더 높아가고 있습니다.

문화원을 어떻게 돕고 있으며 특히 문화원에 바라고 싶은 것은?

의령문화원은 군민과 함께 해 온 우리지역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많은 예산을 지원해 문화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역문화발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향토문화의 지속적인 발굴과 계승,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❶의령탑 1592년 임진왜란 때 국내에서 맨 처음으로 민중의병을 일으켜 왜적을 무찌른 구국충정을 기념하기 위해 군민의 성금으로 1972년에 건립한 탑이다. 높이 27m. 의령읍내 남산자락에 있고 그 옆에 충익사가 있다. **❷자굴산** 구름이 덮여있는데 해발 897m로 등산객이 끊이지 않고 있다. **❸탑바위** 정곡면 죽전리 소재. 남강변 높은 벼랑 위에 있는 천연바위로 탑모양이다. 약 20톤가량에 높이가 5m로 3층탑모양이다. **❹석조여래좌상** 정곡국민학교 구내에 소재. 큰 석불은 85m. 작은 것은 68cm. 고려시대 것으로 추정됨. (경남도지정문화재 제6호) **❺보천사지3층석탑** 의령읍 하리소재. 옛 보천사절터에 남아있다. 고려초기 작품으로 보고 있으며 높이 4.57m인데 수 차례 도굴되었다.(국가지정보물제 373호) **❻강씨칠정려** 의령읍 동동에 소재한 진양강씨 문중의 충신 두분, 효자세분, 열부 두분을 기리는 정려이다.(지방기념물 제35호) **❼백산생가** 항일애국지사이자 겨레의 지도자인 백산(白山)안희제(安熙濟)선생이 성장한 곳(의령군 부림면 입산리 소재. 지방문화재 자료 193호)

일본에 성리학 전한 姜沆

수은 강 항(睡隱 姜 沆 : 1567~1618)은 전남 영광군 불갑면 유봉리에서 태어났다. 그의 가계(家系)는 세조 때의 문장가 사숙재 강희맹(私淑齋 姜希孟)의 5대 손으로 아버지 강극검(姜克儉)과 어머니 김씨의 세 아들 중에 막내로 태어났다.

강항은 16세에 향시에 합격한후 29세에 박사에 올랐고, 30세(1596) 봄에 성균관 전적, 가을에 공조좌랑, 겨울에 형조좌랑이 됐다.

31세(1597) 때에는 휴가를 얻어 고향에 있다가 정유재란을 당해 분호 조청(分戶曹廳)의 종사관으로 부름을 받아 군량을 모으다가 영광의 앞바다 논잠포에서 왜의 수군에 잡혀 일본으로 끌려갔다. 이때부터 1600년 그가 풀려 고국에 돌아오기까지 두 가지 업적을 남기게 된다. 하나는 일본의 지리와 풍물, 그리고 군사시설, 장수들의 인물됨됨이와 전쟁에 임하는 일본의 실정을 적은 장문의 비밀보고서 적중봉소(賊中封疏)를 작성해 선조 임금에게 닿게 한 일이며, 다른 하나는 일본의 지식인을 통해 성리학(주자학)을 전하여 일본의 문예중흥기를 여는 단초를 제공한 점이다. 적중봉소에는 왜국의 백관도를 작성하여 관제와 적장들의 동태를 소상하게 적었고, 왜국의 지리와 풍물을 적은 '왜국 8도 66주도'를 작성하였으며, 왜장들의 인물됨과 그 수를 헤아리게 하는 '임진정유입구제왜장수'(壬辰丁酉入寇諸倭將數)를 기록해 중국사신을 통해 임금에게 닿게 했다. 이 봉소를 받은 선조는 크게 감탄하고 나라의 수비를 맡고 있는 각 진의 장군들에게 돌려 보도록 조치했다.

다음으로 성리학의 전수는 당시 왜국의 승려였던 후지하라 세이까(藤原惺窩)와의 교분에 의한 것인데, 후지하라는 묘수원의 승 순수좌(僧, 妙壽院舜首座)로서 일찍이 한학에 조예가 깊어 필담으로 강 항과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다. 그 후 강 항의 학식과 인품에 영향을 받아 성리학에 대한 경서를 읽게 되었고, 강 항은 의식을 가르치고 갖가지 책을 써서 그것을 제공하게 된다.

지금도 일본의 내각문고에 당시의 필사본과 강 항이 서문과 발문을 쓴 서책이 보관되어 오고 있는데 그 종류와 서책의 수가 방대한 수량이다. 강 항이 귀국하던 해에 후지하라는 도구가와 이에야스의 측근 학승인 승태와 영삼과의 유·불 대토론회를 이에야스 앞에서 열어 미래본위의 불교세계관보다 현실사회의 질서와 인륜도덕이 더 중요하다고 선언을 하고 승복을 벗고 도복으로 갈아입는 변신을 하게 되고, 이어서 그의 문하에는 임신승(林信勝 羅山 : 하야시라잔), 야마자키 안사이(山崎闇齋: 1618-1682) 등 빛나는 별과 같은 대학자가 배출되어 일본의 학풍을 바꾸면서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후 후지하라는 일본 성리학의 비조(鼻祖)가 되고 수은 강 항은 그들이 내각문고에 살아 남아 있는 조선의 학인이 됐다.

귀국한 강 항은 임금 앞에 나아가 승정원에서 여쭌 글을 남겼고 대구교수, 순천교수 등 벼슬을 주었으나 마다하고 영광 고을에 묻혀 후학을 가르치며 여생을 보냈다. 그의 학당에는 구름처럼 제자가 모였고 훌륭한 문하 학인들에 의해 그의 문집 '수은집' 이 엮어지기도 했다. 그의 문집에는 임란 때 진주성 싸움에서 순절한 건재 김천일(建齋 金千鎰)장군의 정열사 봉안문이 있는데 400년 전의 순절 모습이 살아 있는 듯 꿈틀거리는 감동의 명문으로 새겨져 있다.

행사 전국문화원연합회 제40차 정기총회

사업 계획·예산안 만장일치 통과
지방문화원진흥 조례제정 추진키로

류장수 편집주간

전국 문화원연합회는 지난 1월 31일 세종문화회관 1층 세종홀에서 제40차 정기총회를 열고 2000년도 예산결산안과 200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날 오전 11시 30분 이수홍회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정기총회는 안진수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 국민의례에 이어 이수홍회장의 개회인사로 이어졌다.

이수홍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사업실적 결산과 새해 사업 및 예산심의를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내가 회장을 맡은지 만6년이 지났는데 처음 부채 1억 4000만원을 떠안았으나 주체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보니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지금은 연 60만원 받던 회비를 30만원으로 낮추었고 부채를 청산하고 각종 기금 1억여원을 정립하였으며 연간 17억원 정도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로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연합회와 지방문화원의 책무는 매우 크다. 정보통신분야가 비약적으로 발전해 정보화시대를 맞았으나 퇴폐문화 등 역기능도 많아 문화쪽에도 경제위기 못지 않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우리는 주체성을 갖고 외래문화를 순화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지역문화의 해'이며 '한국방문의 해'이다. 또 내년에는 월드컵축구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린다. 우리는 정체성 있는 향토문화를 활성화하여 국가 행사를 원만히 치룰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오늘 총회에서 좋은 의견 많이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개회식이 끝나고 곧 의안심의에 들어가 제39차 총회 회의록 접수와 2000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보고가 이어졌다.

김정순 감사는 감사보고에서 "연합회가 지난 해 사업비 17억 7천만원을 집행하는 비약적 발전을 보였으며 한점의 하자도 없이 사업이 잘 수행된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사업이 크게 늘어난데 비해 인력부족 현상이 뚜렷했다. 사업의 활성화는 지속돼야 한다고 보았다. 또 회비체납이 3400여만원이나 된 것을 확인했는데 미납회비의 조속한 완납을 촉구한다"고 하였다.

감사보고가 있은 후 의안심의에 들어갔는데 제1호의안 2000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승인의 건, 제2호의안 200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을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다.

제3호의안인 임원보선에서는 결원 이사2명에 전남 영암문화원 김희규원장과 충북 충주문화원 장수봉원장을 새 이사로 선출하고 퇴임한 김정순 감사 후임으로 전남 나주문화원 박준영 원장을 선출하였다.

기타의안에서는 박문규 진도문화원이 지방문화원 진흥을 위한 조례제정에 연합회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박원장은 "지자체에서 타지역의 눈치를 보며 조례제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문화원만의 노력으로는 역부족이니 연합회가 문화관광부와 행정자치부와 협의 전국적으로 지방문화원 진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많은 지방문화원장들이

△ 이수홍 전국문화원연합회 회장

동조하며 박수를 보냈다.

또 박문규원장은 "지방문화원 경상비 예산이 다소 인상되었지만 아직도 미약하여 직원 급료 등 애로가 많다"면서 "이 문제 해결에도 연합회가 적극나서 줄 것"을 요망했다.

광주광역시 북구문화원 강명보원장은 "해외에 있는 문화원과 지방문화원들이 상호교류를 통한 정보 교환과 함께 한자리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같은 의견에 대해 이수홍회장은 "기초자치단체의 지방문화원진흥 조례제정 문제는 연합회가 수차 문화관광부와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였고 공문이 하달된 바도 있으나 시행이 안되고 있는 상태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으며 "해외에 있는 한국문화원과의 교류는 이들 문화원이 정부의 홍보를 위한 공무원으로 구성된 관조직이어서 우리와는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상호교류도 추진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번 총회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1시간만에 모두 종료되고 곧 오찬에 들어가 가장 짧은 총회를 기록했다.문

문화원장 선거 '과열 분위기'

강남문화원 어깨띠에 홍보전단까지… 국회의원 선거전 방불

류장수 편집주간

만장일치 추대형식으로 선출되던 문화원장 선거가 이제 본격적인 경선체제로 변해 국회의원 선거를 방불케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문화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1월 31일 문화원대강당에서 개최된 강남문화원 정기총회에서의 문화원장 선출도 치열한 선거전을 거쳐 투표로 판갈음이 났다.

이날 총회는 302명의 회원중 200여명이 참가, 심의안건을 처리한 후 임기만료된 문화원장 선출에 들어가 134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권용태후보(전임 문화원장)가 102표, 최병식후보가 30표, 기권 2표로 권용태후보가 압도적인 표차로 재선되었다.

그런데 총회를 앞두고 강남문화원은 1월 18일 이사회를 열고 선거관리규정을 제정, 선거관리위원회를 발족시켰으며 이를 전회원에게 통보함으로써 누구나 회원이면 원장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그러나 후보등록 마감일까지 출마의사를 밝힌 사람이 없어 권용태원장이 무투표 당선될 것으로 보였으나 후보등록마감 1시간전에 최병식문화원이사가 기습적으로 공탁금 500만원 입금과 함께 후보등록서류를 접수시켰다. 전혀 예상치 못한 권용태원장은 부랴부랴 후보등록서류만 접수시키고 공탁금 준비에 나서 마감 10분전에야 겨우 온라인으로 입금시키는 해프닝을 연출했다고 한다.

△ 재선된 권용태 강남문화원장

또 총회 당일 문화원사 현관에는 최병식후보의 선거운동원 20여명이 어깨띠를 두르고 도열하여 최후보 홍보전단을 배포하면서 한표를 부탁하는 등 국회의원 선거 못지않은 선거풍경을 연출했다.(만화참조)

이날 투표자들은 주민등록증과 선거인명부를 일일이 대조해 주민등록증을 가져오지 않은 회원은 투표에 참가하지 못하고 귀가해야 했다.

거의 일방적으로 선거운동을 펼쳤던 최병식후보는 큰 표차로 낙선된 후 원장에 재선된 권용태원장에게 축하 꽃다발을 증정하고 투표결과에 승복하는 인사를 하는 파인플레이를 보여 회원들의 열렬한 박수를 받기도 했다.

이번 강남문화원장 선거 경선은 서울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으나 이미 경남 남해문화원과 전북 고창문화원 등이 경선을 통해 문화원장을 선출한바 있다. 지난날 문화원장은 이사회서 추대하고 회원들이 박수로 결정하던 관행이 깨지고 치열한 표대결로 결판내는 새로운 풍토가 조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문화원장 자리가 더 이상 무풍지대가 아니며 재임중 열심히 일하여 회원들의 신망을 두터이 하지 않고서는 유임을 바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문화원장 선거 경선체제는 문화원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불러 모아 문화원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두 후보가 입금한 공탁금 1,000만원은 모두 문화원 기금으로 귀속되었다.문

전국문화원연합회서울시지회 정기총회
새 지회장에 권용태강남문화원장 추대

전국문화원연합회 서울특별시지회는 지난 2월 8일 시청앞 프레지던트호텔 19층 그린홀에서 2001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새해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또 이날 총회는 전체 22개 문화원에서 17명의 문화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임기가 끝난 지회장을 새로 선출했는데 지회장 선출은 7인전형위원회를 구성해 권용태 강남문화원장을 새지회장으로 추대하고 박수로 승인을 대신했다. 이로써 최병홀(관악) 초대지회장, 김현풍(강북) 2대지회장, 이영철(도봉) 3대지회장에 이어 권용태(강남)원장이 4대지회장으로 앞으로 2년 동안 서울시지회를 이끌어가게 되었다.

다시오고 싶은 나라로 각인 노력

전 영 재
〈한국방문의해기획단장〉

21세기는 전 세계적으로 국제관광객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관광산업이 크게 발전하여 '관광의 세기'가 될 전망이다. 새로운 교통, 통신기술의 발달로 지구촌은 더욱 가까워졌고 세계각국의 지속적 경제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사람들의 여행욕구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간 상호의존성의 심화로 인해 해외여행은 이미 일상화 되었고 관광목적이 아닌 업무적 해외여행의 필요성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을 근거로 세계관광기구는 2020년의 전세계 국제관광객 수가 '98년 6억 3500만명에서 약 2.5배 증가한 15억 6천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는 2000년 12월 8일 500 만번째의 외래관광객이 입국했으며 2000년도는 당초 목표인 510만명을 초과하여 530만명이 한국을 방문했다.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1965년 3만3천명, 78년 100만명, 88년 200만명, 98년 400만명이며 2010년경 1,000만명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광산업은 어느 산업보다 부가가치가 높다. 관광객 1인 유치시 16MD 반도체 440개, 21인치 칼라 TV 10대를 수출한 것과 같으며 관광객 6인 유치시 자동차 1대를 수출한 것과 같은 경제적 효과가 있다. 또한 관광분야에 1억원 투자시 6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등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비유되고 있다 따라서 이렇게 중요한 관광산업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새롭게 하고 2001년 한국에서 개최될 국제관광기구총회와 2002년 월드컵대회 및 부산아시안게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발판을 마련하며 1000만명 관광객 시대에 대비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 제시를 위해 '98년 정부는 2001년을 한국방문의 해로 공식 선포했다. 이러한 공식선언후 정부는 문화관광부를 주축으로 2001년 한국방문의해를 범정부차원에서 준비해왔고, 보다 실질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각계의 저명인사들로 구성된 한국방문의해추진위원회(위원장 : 도영심)를 구성 · 운영중에 있다.

한국방문의 해는 2001년에 58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여 73억불의 관광수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우선, 외래 관광객들에게 흥미로운 볼거리와 유익한 문화체험을 제공하고 한국관광의 매력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하여 전국 각 지방에서 한국방문의 해 10대기획 이벤트와 15대 특별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된다. 이중 규모있게 개최되는 10대 이벤트는 동남아, 중국관광객을 대상으로 한국의 겨울 매력인 눈을 소재로 전개되는 '눈의나라 페스티발'(12월-3월, 강원 전북), 대구를 세계의 섬유도시로

부각시키고 한국의 쇼핑매력을 보여줄 '대구 국제 섬유페스티발' (4.17-5.24), 세계 30개국의 문화와 예술을 소개하는 '제주세계섬문화축제' (5.19-6.17), 우리나라가 종주국인 태권도를 소재로 태권도 체험프로그램 등 '세계태권도축제' (7.1-7.20, 충청도), 도자기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세계도자기엑스포' (8.10-10.28, 경기도), 부산 대중문화의 메카를 겨냥한 '부산국제 락 페스티발' (8.10-8.14), 세계각국의 전통음악과 현대음악 공연 등 소리에 관한 다양한 축제인 '전주세계소리축제' (10.13-10.28), 한국의 음식을 전세계에 알리기 위한 '세계음식축제' (10.17-10.28, 광주 전북) 경북지역의 전통문화를 소재로한 '세계유교자대회' (10.5-10.30, 경북) 등으로 외래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각종 특별 할인제도를 실시하고, 매력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한국관광의 유인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2001년에 한국을 방문하는 2001명에게 왕복항공권 등 다양한 경품이 주어지고, 방한 외래관광객에게는 교통, 숙박, 쇼핑 등의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쇼핑은 2배로 비용은 절반으로」으로 라는 케치프레이즈 하에 4월에는 코리아그랜드세일, 구입한 물품에는 부가세 환급(Tax Free), 관광호텔 투숙시 10%의 부가세 면제 등의 혜택이 있다 . 한국방문의 해 여행상품 60개가 선정 판매 중에 있으며 판매 관광상품 중에는 한방진료체험, 병영체험, 한국전통양반체험상품 등 우리의 문화와 역사를 외국인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상품이 다수 있으며 홈스테이 상품 등 패키지 상품에 개별여행객 상품성격을 가미한 새로운 형태의 여행상품도 개발 외국관광객을 유치 중에 있다. 개별여행자를 위한 한국방문의 해 베스트관광코스 40개가 테마형, 체험형 관광코스 위주로 개발되어 개별관광객 들이 관광코스를 선택하여 여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셋째,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즐겁고 편안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교통, 숙박, 음식, 안내, 예약 등 각종 관광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1330외국인 안내전화(Korea Travel Phone)를 이용하여 정보를 얻을 수있고, 방문의 해 웹사이트(WWW.2001Visitkorea.com)를 통해 각종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택시이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기사의 직업의식 향상과 외국어 동시통역시스탬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영 · 일등 외국어가 가능한 외국어 안내택시도 운영되고 있다 .

넷째, 국내 · 외의 다양한 홍보수단과 매체를 활용하여 한국에 관한 전반적인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고 보다 많은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최종 관광목적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외프로모션을 강화하고 있는 중이다.

다섯째, 관광은 종합산업으로 교통, 숙박, 안내체계, 화장실, 택시 등 관광인프라 개선뿐만 아니라 관광산업의 중요성 인식 제고 등 범국민적 참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련부처,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종사자 등 의 협조와 지원을확대 하고 있다.

끝으로, 외래 관광객들에게 한국인들의 정성과 인정과 예의를 실감케 하기 위하여 국민들의 참여의식과 책임의식을 높이는 교육과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오는 손님 친철하게」가 2001년 한국방문의 해 의 슬로건으로 관광종사자들은 물론 전국민이 친절운동을 전개하여 외국인이 "다시 오고 싶은 나라"로 각인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국방문의 해를 계기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미소와 친절이라고 생각한다. 친절과 미소는 돈 들이지 않으면서도 가장 효과적으로 관광객을 끌어 들일 수 있는 요소이다. 국민 각자는 움직이는 홍보요원이다.

우리가 선진국가가 되고 선진국민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덕목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방문의 해를 계기로 미소와 친절 만 이라도 정착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다.

춘천의 남성놀이 '외바퀴수레싸움'

김의숙 | 강원대 국문학과 교수(민속학)

안동의 동채싸움과 남원의 용마희

전통민속놀이로서 '차전놀이'를 놀았던 곳은 경상도 안동, 강원도 춘천과 경기도 가평, 전북 남원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전놀이'라고 하면 안동의 것을 먼저 떠올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것은 안동의 동채싸움놀이가 '차전놀이'라는 이름으로 일찍이 1969년도에 중요무형문화재 제24호로 지정되어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

지난번 「우리문화」(2000년 12월호)에는 〈안동의 차전놀이〉라는 제목의 글이 실린 바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게재되어 있다.

'안동에서는 정월 대보름 낮 동안에 줄당기기와 동채싸움이 거행되고, 해가 지고 둥근달이 뜨면 부녀자들이 행하는 놋다리밟기가 베풀어졌다. 곧 줄당기기가 거행되는 해에는 동채싸움을 쉬고, 동채싸움을 거행하는 해에는 줄당기기를 하지 않았다. 두 가지 놀이 중 어느 것이든 놀아야 그해 시절이 좋고, 풍년이 든다고 믿었다'

안동의 차전놀이는 위에서 말한 '동채싸움'을 말한다. 이 동채싸움은 같은 글에서 지적하였듯이 안동지방에서 행해지는 민속놀이로서 주로 음력 대보름에 수많은 청장년들이 동·서부 양편으로 나누어 동채를 메고 벌판에서 힘과 기를 겨루는 밀기와 누르기의 복합형 남성집단놀이이다.

한편 동채싸움은 '동태싸움'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저돌적인 사람을 가리켜 "동태머리꾼 같다"는 말로 표현하는 안동의 속어로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동태는 수레바퀴의 경상도 사투리이므로 동태싸움은 곧 '차전(車戰)'을 의미하기 대문에 〈안동의 차전놀이〉로 부른다.

안동의 동채싸움을 차전놀이로 부르는, 보다 합당한 이유는 안동부의 사찬(私撰)지방지인 〈영가지永嘉誌〉(1608)의 초고본인 〈화산지〉의 〈풍속〉조에 보이는 내용 때문이다. 곧 「차전은 석전과 같이 행하고 아이들이 차(수레)를 밀어서 싸움을 하는데 차가 깨진쪽이 진다」는 글이 그것이다. 따라서 안동에서는 과거에 지상전(地上戰)으로 펼치는 두바퀴차전놀이를 벌인것으로 보이나 언제부터인가 동채를 어깨에 메고 공중전으로 펼치는 지금의 동채싸움으로 바뀌었다. (창녕지방에서는 목우희(木牛戱)라 해서 동채머리에 소의 형상을 달고 행한다.)

남원의 '용마희(龍馬戱)'도 안동의 동채싸움과 상당히 유사하다. 용마희에도 용과 말을 실은 수레(車)가 등장하나 장정들이 그것을 어깨에 메고 서로 돌진하여 상대의 용이나 말을 부숴버리는 것으로 승패를 결정하는 공중전이다.

전승이 단절된 용마희에 대하여 1950년대에 조사된 내용을 보자.

"실제로 놀이 준비는 이듬해 정월 초닷새부터 착수하여 열흘 안에 끝마치는데, 이 기간에 용과 말, 수레, 기타 준비물을 만든다. 용과 말은 나무, 대, 종이, 베로 만든다. 먼저 나무와 대로 용을 그럴 듯하게 만들어 종이와 베로 겉을 입히고, 그 위로 채

춘천의 전통적인 민속놀이로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차전놀이 곧 '외바퀴수레싸움' 이다. 춘천의 차전놀이 곧 외바퀴수레싸움은 어떤 놀이인가? 이에 대해 소략한 기록이 조선조 순조때 홍석모(洪錫謨)가 지은《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상원(上元)〉에 보인다.

색을 하여 꿈틀거리는 용의 형상을 완성한다. 남부는 白龍이므로 백색바탕에 오색무늬로 채색을 한다. 북부는 黑龍를 만든다. 용과 말을 매는 수레는 길이 4m 50cm 정도의 長木 3개를 서로 3줄로 교차하여 교차된 데마다 끈으로 튼튼히 동여맨다. 이렇게 묶은 앞쪽(폭이 좁은 곳. 앞이 되는 곳은 뒤쪽보다 폭을 좁게 한다) 첫째 칸 한가운데에 1m 정도 너비의 판자를 얹고 고정시킨다. 이 판자 위에 용과 말을 앉힌다.

정월 대보름 한낮이 되면 남부와 북부에서 용과 말의 수레를 멘 수백 명의 장정들이 남원읍 광장에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이때 구경꾼으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배진(背陣)은 양편이 똑같이 맨 앞에 선봉대로 힘쎈 장정 40~50명이 앞장을 서고, 그 뒤에는 수백 명의 장정이 용과 말을 태운 수레를 각각 메고 뒤따른다. 수레 뒤에는 북잡이 5명이 북을 치면서 기세를 돋우며, 수레 좌우에는 수십명이 호위를 하고 나온다. 용과 말 옆에는 힘센 호위장수가 각각 왼손에 용기(龍旗), 마기(馬旗)를 각각 든다…. 싸움꾼은 자기 편 龍, 馬 장수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면서 싸운다. 그리고 각 편의 북잡이들은 용, 마 장수의 전진돌격 신호가 내리면 격렬하게 돌진의 북을 울린다. 그러면 싸움꾼은 이 때 '와-' 하고 함성을 지르며 상대편에게 달려든다. 이렇게 양편이 일진일퇴하며 싸우다가 승부가 나지 않으면 잠시 물러났다가 또다시 붙어서 상대편 수레에 기어올라 용, 마를 탈취하거나 부숴 버린다. 결국 부숴 버린 편이 이기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이긴 편은 환호성을 지르며 굿거리 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면서 광장을 한바퀴 돌고 거리를 돌아 다니며 한바탕 흥겹게 논다." (최상수, 한국민속놀이의 연구, 성문각, 1985.)

춘천의 외바퀴수레싸움

춘천의 전통적인 민속놀이로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차전놀이 곧 '외바퀴수레싸움' 이다. 춘천의 차전놀이 곧 외바퀴수레싸움은 어떤 놀이인가? 이에 대해 소략한 기록이 조선조 순조때 홍석모(洪錫謨)가 지은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상원(上元)〉에 보인다.

"춘천 민속에 차전이 있는데 외바퀴수레를 동리별로 떼를 나누어 앞으로 내치도록 서로 싸워 그 해의 일을 점쳤다. 쫓기어 등을 돌리는 편이 흉하게 된다고 여겼다. 가평의 풍속도 또한 그렇다."(上元春川俗 有車戰 以獨輪車 名里分隊 戰驅相戰 以占年事 逐北者爲凶 加平俗亦然)

이 기록을 보면 차전놀이는 '외바퀴수레(獨輪車)' 를 가지고 서로 밀어서 승부를 내고, 그것으로써 풍년 여부를 점쳤던 놀이이다. 곧 '외바퀴수레싸움' 은 외수레바퀴차(獨輪車)를 사용한 '차전놀이' 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춘천의 차전놀이는 풍년을 기리는 일종의 점풍속(占風俗)이며, '외바퀴수레' 를 도구로 한 놀이라는 점에서 그 근원을 찾아볼 수 있다.

실제로 춘천에서는 해마다 정월대보름에 외바퀴수레를 앞세우고 근화동 일대의 앞두루와 후평동 일대의 뒷두루로 편을 나누어 겨루었다. 그때는 양

실제로 춘천에서는 해마다 정월대보름에 외바퀴수레를 앞세우고 근화동 일대의 앞두루와 후평동 일대의 뒷두루로 편을 나누어 겨루었다. 그때는 양편이 수레로 서로 밀어서 밀리는 쪽이 지는데, 이기면 풍년과 평안이 온다고 해서 최선을 다하고, 승부가 나면 풍물에 맞추어 춤추면서 하루를 즐겼다.

편이 수레로 서로 밀어서 밀리는 쪽이 지는데, 이기면 풍년과 평안이 온다고 해서 최선을 다하고, 승부가 나면 풍물에 맞추어 춤추면서 하루를 즐겼다.

그런데 춘천의 차전놀이에 대한 문헌 기록은 오직 위에 제시한 것뿐이어서 오늘날 차전놀이를 재현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중에도 만나기 어려운 제보자의 고증과 구비전승을 참고하고, 또 안동의 차전 곧 '고려 태조를 도와 삼국을 통일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삼태사(三太師-김선평 · 권행 · 장길)가 견훤에게 전승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비롯되었다'는 구비적 근거에 접맥시켜 재현한 것이 현재의 외바퀴수레싸움이다.

△춘천의 차전놀이

다시 말해서 재현된 외바퀴 수레싸움은 같은 태사로서 춘천에 묘택이 있는, 고려의 개국공신이며 춘천지역의 성황신이 된 장절공 '신숭겸'을 기념하고 그의 충의를 기리기 위해 생성된 놀이로 파악한 결과이다. 특히 거기에서는 장절공이 장군이라는 점에서 '외바퀴수레'가 전쟁물자를 운반하거나 성문을 깨뜨리는 전차(戰車)라는 인식이 가미되어 있음이 특징적이다. (김선풍, 외바퀴수레싸움, 민속놀이와 민중의식, 집문당, 1996)

외바퀴수레싸움의 전개

장절공 신숭겸이 왕건을 구하기 위해 어차(御車)를 대신 타고 살신성인한 역사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고 있는 '외바퀴수레싸움'은 '평상시에는 권농과 함께 민심을 결속케 하는 민속놀이이나 유사시에는 외수레차를 이용하여 외적의 침입에 항전했던 성격을 띤다'고 규정하고 있다.

춘천의 차전놀이는 이렇게 역사적이고 애국적이며 민속적이므로

<전통차전 비교 검토>

구분	연행시기	편구성방식	놀이기구	승부결정방식	점세방식
안동차전	대보름	좌우(동서)	동차(쌍륜거)	車相薄爲戰 車破者爲負	抉勝負以占 一歲豊稔
춘천 차전	대보름	各里分隊	獨輪車	前驅相戰	逐北者爲凶
남원 용마희	제석 대보름	分作南北二隊	수레	對陣前却以 賭賭勝負	南勝卽豊 北勝卽凶年

춘천에서는 관심을 기울여 재현하여 강원도의 대표적인 민속으로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현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경연한 바가 있고, 보존회를 창설하여 전승을 도모하고 있다.

차전놀이의 놀이과정은 대체로 아래와 같이 7과장으로 전개하고 있다.

(1)출장

대원들과 사물놀이패 및 동네사람들이 장단에 맞추어 어깨춤을 추면서 마을 이름을 외치며 등장한다.

(2)고천제(告天祭)

승리를 비는 제사를 하늘에 올린다. 그리고 마을에 풍년이 들게 해 달라는 기원의 축문을 읽고 음복한다.

(3)수레시위

대장의 지시에 따라 수레를 밀고 전장의 중심부로 간다. 대장의 지휘에 따라 전진, 후진, 좌우로 방향을 바꿔 단합을 시험한다. 그때는 고함을 질러 사기를 진작시킨다.

(4)수레 돌진

대장의 지휘 아래 수레를 돌진시킨다. 격돌 직전에 멈추고 후진한다. 이런 행위를 두세차례 반복하고, 동네 이름을 연호한다.

(5)격돌

서로 민다. 밀고 밀리는 행위를 몇 차례 반복한다. 마을 사람들은 "이겨라"하고 외친다. 한쪽이 밀려 패주하면 승부가 결정난다.

(6)항복 문서(약속 문서) 낭독

승패가 결정되면 승자는 환호하고 패자는 땅을 치며 아쉬워 한다. 이때 패장은 앞으로 나가 항복 문서를 바친다. 항서의 내용은 논의 물을 댈 때 이긴 마을에 양보하고, 마을간의 다리를 언제까지 놓겠다고 약속한다.

(7)뒷풀이

승장은 자기네 마을의 이름을 연호하고 패장을 일으켜 준다. 서로 어울려 술과 음식을 나누어 먹고 한바탕 신명나게 놀다가 퇴장한다.(최상익, 점풍속으로서의 춘천 차전과 그 놀이의 구성, 강원문화연구(2집), 1993)

맺음말

과거에 차전놀이 곧 '수레싸움'이 전승되던 곳은 안동, 춘천, 남원 등 세 지역이었다. 각 놀이를 표로 비교하여 보면 별표와 같다. (한양명, 전통차전 비교 검토, 2000, 참조)

그런데 이들 차전놀이는 전승이 단절되는 바람에 새로이 해석되고 현실성과 맞게 구성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현재 놀아지는 차전 곧 바퀴가 달린 수레를 이용하여 노는 놀이로는 춘천의 차전이 유일하다. 안동의 것과 남원의 것은 바퀴가 없이 어깨에 메고서 노는 놀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동과 남원의 놀이는 공중전(空中戰)에 해당하고 춘천의 놀이는 바퀴가 달린 수레이기에 지상전(地上戰)에 해당한다.

안동의 여성놀이 '놋다리 밟기'

안동문화원 제공

놋다리 밟기는 차전놀이(동채싸움)과 함께 안동지방에 전승되어온 민속놀이이다. 남성 위주의 놀이인 차전놀이와 달리 놋다리 밟기는 여성들 끼리만 노는데 그 특성이 있다.

놋다리라는 말의 유래는 아직 규명되지 않았으나 이를 다른 말로 「인(人)다리」, 「동료(銅橋)」라 부르기도 한다. 인다리는 사람다리라는 뜻으로 놀이의 모습에서 붙여진 이름으로 추측된다. 즉 여인들이 허리를 굽혀 열을 지은 등위로 여자 어린이가 걸어가며 노는 것이다.

이같이 사람의 몸으로 놓은 다리를 일컬어 인다리라고 부른것 같다는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그러나 놋다리를 왜 동교(銅橋)라고 불렀는지 그 연유는 알 길이 없다.

지금까지 전해지는 놋다리 밟기 유래 속설중의 하나를 보면 다음과 같다.

"고려말 공민왕은 홍두적란(紅頭賊亂)을 피하기 위하여 왕후와 공주를 데리고 길을 떠났다. 일행은 문경(聞慶), 조령(鳥嶺)을 지나 예천(醴泉), 풍산(豊山)을 거쳐 안동(安東)에 오기위하여 소야천(所夜川) 나루(현 안동시 서현동 소재)에 이르렀다. 왕이 행차한다는 말을 듣고 읍민은 모두 마중을 나갔다. 왕과 왕후와 공주의 행차는 피난길이라고 하지만은 너무나 초라했고 더우기 나루를 건너야 했으니 백성들로써 볼 때에 너무가 황송한 일이었다. 그래서 부녀자들이 나아가 허리를 굽혀 왕후와 공주로 하여금 발을 적시지 않고 자기네 들을 밟고가게 하였다. 사람의 몸으로 다리를(人橋)놓은 셈이다. 왕은 경주(慶州)까지 갈 예정이었으나 안동의 인심(人心)이 좋아 안동에 머물러 있다가 평란(平亂)후에 개성(開城)으로 환궁(還宮)했다."

놋다리 밟기는 오래전부터 해마다 정월대보름날 밤에 놀아져 왔으나 일제 강점기 일본인의 민족의식 말살책으로 중단되었다가 1967년 다시 복원되어 놀아져 오고 있다.

차전놀이와 같이 동부와 서부로 편을 가른다. 노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둥둥데미

대보름달 저녁 무렵이 되면 수백명의 여인들이 몇몇씩 짝을 지어 놀이 마당으로 모여든다. 자기편(동 · 서부)모이는 곳으로 가서 각기 손을 맞잡고 둥글게 열을 지어 앉는다. 맨 앞줄의 사람부터 차례로 일어나 서로 잡고 있는 손을 타넘으며 둥둥데미 노래를 부르면서 놀기 시작한다.

"어화유리 둥둥데미/저달봤나 난도봤다/저별봤나 난도봤다/저기봤나 난도봤다."

②실감기

밤이 깊어지면 여인들의 수도 계속 늘어나 둘러앉아있는 모양은 지문(脂紋)처럼 겹겹이 쌓여진다. 둥둥데미를 부르며 놀다가 실감기 노래로 넘어가면서 원을 풀어 나간다.

△안동 놋다리밟기

"집실로 감아라/당대실로 감아라"

③놋다리 밟기

놀이꾼들이 대원(大圓)을 이루고 구경꾼들이 많이 모이면 놋다리밟기가 시작된다. 앞 사람의 굽힌 허리를 뒷 사람 역시 굽혀 두손으로 끌어 안고 고개는 앞사람의 궁둥이 왼쪽에 댄다. 이렇게 하여 열을 지은 놀이꾼들의 등 위, 즉 사람다리(人橋)위를 쪽도리를 쓴 어린공주(公主)가 양곁에 있는 시녀(侍女)의 손을 잡고, 놀이꾼과 구경꾼들이 부르는 놋다리 노래에 맞추어 걸어간다. 공주가 자기 등을 밟고 지나간 놀이꾼은 다시 앞줄로 나가 먼저와 같이 열을 짓는다. 이와같이 계속 열을 이어가며 노는데 처음 열을 지을 때는 나이 순대로 한다. 즉 맨 앞줄에는 50살 이상의 노부인(老婦人)들이 다음에는 30~40대의 부인들이, 그 뒤에는 젊은 아낙네들과 처녀들이 열을 짓는 것이다.

④꼬께놀이

놋다리 밟기에 이어서 꼬께놀이를 벌인다. 꼬께란 말은 안동지방의 사투리로 두 사람이 손목을 마주잡아 우물 정(井)자 모양을 만드는 것을 가리킨다. 동 · 서부의 놀이꾼들은 각기 꼬께 위에 공주를 태우고 공주끼리 서로 겨루게 한다. 두 공주는 서로 손으로 밀쳐내어 땅바닥에 떨어지게 한다. 이때 놀이꾼과 구경꾼은 각기 자기편을 응원하면서 기세를 올린다. 꼬께놀이가 끝나면 동 · 서부는 각기 패를 지어 거리를 누비며 밤 늦도록 즐긴다.

놋다리 밟기의 특징을 보면 동 · 서부로 편을 지어 놀지만 같은 안동지방의 차전놀이와는 달리 서로 몸을 맞부딪쳐 승부를 가리지 않는다. 여성들만의 놀이로 남자는 일체 참가하지 못함은 물론 구경까지도 못하게 한다. 다른 민속놀이에서 흔히 보이는 풍년 기원이나 액땜 등의 요소가 전혀 없다.

이상과 같이 놋다리 밟기는 강강술래 등과 더불어 몇 안되는 우리나라 여성놀이이다. 옛날 남성 중심의 봉건적 가족제도아래서의 여성들은 문 밖 출입도 어려웠다. 일년 내내 집안에 얽매여 있던 여인네들이 오랫만에 밤나들이를 놀이의 형식을 빌려 하는 것이다. 놋다리밟기에 참가하는 여인네들은 신분, 귀천,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안동고을에 살고 있는 여인이면 누구나 참가해 놀이를 즐길 수 있었다. 여기에는 봉건적 위계질서에서 벗어나 개방적이고 평등을 바라는 여인네들의 소박한 꿈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41년째 민속연 만들어 오고 있는 우상욱민속연연구소장

방패연 세계가 감탄… "가족 스포츠로도"

강 민 철 기자 (mckang@kccf.or.kr)

"하늘 높이 날아라! 내맘마저 날아라! 고운 꿈을 싣고 날아라!" 올해로 41년째 방패연을 만들어 오고 있는 우상욱민속연연구소의 우상욱 소장(66). 우씨는 우리나라는 물론 프랑스 · 일본 · 인도네시아등지에서도 알아주는 투연가(鬪鳶家)다.

69년 전국연보존회대회 · 89년 서울민속연보존회대회 · 91년 한국일보사 봉황기대회 · 95년 경산문화원 주최 전국연날리기대회 · 96년 한국민속연보존회대회 · 99년 문화관광부장관배 전국연날리기대회등 전국대회를 싹 쓸어 사무실엔 120여개의 상장에 각종 트로피가 수두룩하다.

이미 해외에도 얼굴이 알려졌다. 세계 50여개국 선수들이 참가하는 가운데 장장 20여일동안 열리는 프랑스 '세계 연날리기 대회' 주최측도 매번 어김없이 그에게 초청장과 함께 비행기 티켓을 보내온다. 지난해 그는 이 대회에 참가해 외국인들의 눈길을 한몸에 받으며 특별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그의 연은 프랑스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 일본 · 인도네시아 · 캐나다 · 대만 · 홍콩 · 중국 · 싱가폴등의 하늘을 날아 오른다.

△ 우상욱민속연연구소장

'방패연 만들기' 2대째…세계적 투연가

경남 진주 태생인 그가 이처럼 연에 대해 남다른 관심과 특기를 갖게 된데는 부친의 영향이 컸다. 아버지는 연을 만들어 생계를 꾸려나가는 장인이었다. 피죽을 끓여 먹어야 했

△ 프랑스의 초등학교를 방문해 방패연 제작법을 가르치고 있는 우상욱씨

던 일제치하. 3남3녀의 형제중 셋째인 그는 초등학교에 다닐 무렵 아버지 곁에서 잔심부름을 하며 연과의 '명주실'과 같은 질긴 인연을 맺었다. 한때 서울에 올라와 영화사의 제작부와 연출부일을 하기도 했으나 20대 중반에 이르러 동호회와 전국대회에서 연애호가와 교류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연을 날리기 시작했다.

그는 독특한 '연 끊어먹기' 기술을 지니고 있다. 남들이 연줄 윗부분에서 실랑이를 벌이는 것과 달리 그는 밑에서 대각선으로 쳐올리며 상대방의 줄을 댕강 자른다. 뭐니뭐니해도 연날리는 맛은 이때가 최고란다. 기세등등했던 상대편 연이 힘이 빠진 채 너펄너펄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보노라면 세상 다주어도 바꿀 수 없는 승전의 기쁨을 느낀다고 말한다.

우씨는 투연가 일뿐 아니라 연 제작가로 유명하다. 우리의 민속연인 방패연 제작기술을 보유한 몇 안되는 장인중의 한명에 속한다. 그가 만드는 연은 문양에 따라 귀머리코배기연 · 색동치마연 · 허리둥이치마연 · 머리눈쟁이연 · 기발이연 · 무지개연 · 빗살머리연등으로 불린다.

전남 담양에서 3년이상된 대나무를 가져와 여러개의 살로 쪼갠 후 살살 돌리며 정성껏 불에 굽는다. 한지도 손으로 뜯 것을 고집한다. 명주실도 특별히 주문해 만든다. 우씨는 하루에 보통 무지개연(35×42㎝)을 10장 정도 만들어 내는데 용연(90×120㎝)처럼 사이즈가 크고 문양이 복잡한 경우엔 1장 만드는데 10일이 족히 걸린다. 가격도 달라지기 마련. 무지개연(35×42㎝) 1만2천원, 색동치마연(70×95㎝) 8만원, 용연(90×120㎝) 50만원등. 우씨의 연은 인사동의 '원주한지'나 남대문의 '경북상회', 이태원의 '자이언트'등에서 유통마진이 붙은 가격으로 판매가 이뤄진다.

연을 제대로 날리려면 얼레(3개에 20만원), 실(3타래에 9만원), 연가방과 얼레가방(22만원)도 구입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 드는 초기 비용이 만만치 않아 엄두를 내기 쉽지 않다. 하지만 이렇게 처음에 준비 해두면 다음부터는 연과 실만 구입해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또 얼마든지 최소 비용으로 연날리기를 즐길 수 있다.

방패연 우수함에도 불구 맥 끊길 판

사실 알고보면 연날리기는 우리만의 민속이 아닌 세계적인 민속이라 할 수 있다. 그 어디에 간들 연을 날리지 않는 나라가 없을 정도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방패연처럼 예술성과 함께 기동성을 지닌 연을 찾기란 쉽지 않다.

"우리의 방패연은 상하좌우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게 강점이예요. 외국의 연은 화려하긴 하지만 방향을 맘대로 틀지 못해요. 우리의 얼레도 빨리 실을 감고 풀 수 있어 외국인들이 사용하는 보빙에 비해 속도면에서 월등하죠"

한국인 우씨에겐 '해외 제자'도 생겨났다. 프랑스에는 루도와 다니엘, 일본에는 구보와 세키구치 등 세계 각국에 10여명이 있는데 하나같이 우리네 방패연에 감탄해 마지않는 연 애호가들이다.

이들의 연에 대한 사랑만큼은 우리나라가 따라가지 못할 만큼 지대하다. "그리스라는 나라는 아예 가게문을 닫아걸고 연날리기 축제를 벌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연날리기는 애들이나 하는 거라 생각해요. 이 바람에 자칫하면 연 제작법이나 투연기술이 대가 끊길 판이예요"

우씨는 한 개인이 후진을 양성하며 민속을 이어나가기가 여간 힘든게 아니라는 표정을 지었다. 그의 문하에서 연 제작을 배우던 제자들도 얼마 못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짐을 꾸리는 실정이다.

"연은 돈이 되지 못해요. 연을 만들어 생계를 꾸려가겠다고 하면 굶어죽기 딱 좋아요. 하지만 돈으로만 따질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는 지금부터라도 후진들을 양성하지 않으면 우리 민속인 연은 박제된 상태로 박물관에나 남게될 게 불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올 가을쯤에 '장애인 연날리기 대회' 개최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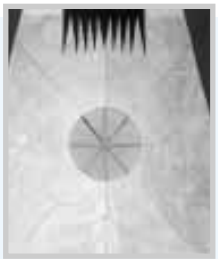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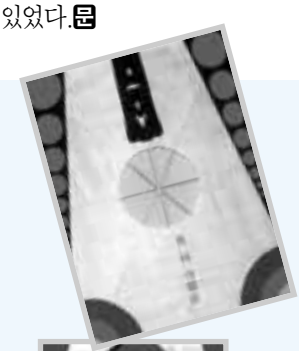
그러나 연을 '옛 것'으로만 한정할 이유는 없다. 현대인의 스포츠로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다. 가만히 서서 얼레나 돌리는게 무슨 운동이 되겠느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직접 해 보면 그 어느 운동 이상으로 운동장 몇바퀴 돈 것 처럼 땀이 줄줄 흐르고 팔다리가 튼튼해진다. 한발 더나아가 스트레스 푸는데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 "한때 가구업을 하다 실패를 본 적이 있는데 한강 백사장으로 나가 연을 띄우면 괴로움이 다 날라가 버리고 새로운 힘이 솟구치곤 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연을 손에서 놓지 못하나 봐요" 어쩌면 연에는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마약'과도 같은 속성이 있는지도 모른다. 연애호가 중에는 개인택시도 그만 두고 연을 날리는데 '미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골프를 치던 사람들도 연을 한 번 날려보고는 그 매력에 흠뻑 빠져 골프장으로의 발길을 뚝 끊어버린 사람들도 많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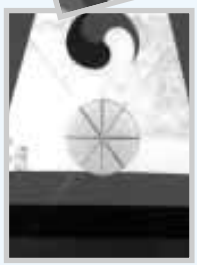
수은주가 영하 18도를 가리키는 날에도 연을 날린다는 그는 "이 덕분에 감기 한번 안 걸렸다"고 자랑하며 "연날리기는 가족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놀이"라고 덧붙인다. 그러면서 우씨는 민속연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하루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문화관광부장관배인 전국연날리기대회를 대통령배로 승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서면서 그에게서 산뜻한 꿈을 들을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다. "올 가을쯤에 장애인를 위한 연날리기 축제를 열 계획이예요. 안에서만 갇혀 사는 그들에게 시원한 바람 한번 씌워주고 싶어요" 그의 가슴에 '고운 꿈을 싣고' 방패연이 하나 날아오르고 있었다.문

우상욱민속연연구소의 문화상품들

우씨가 만드는 연은 귀머리 코배기연 · 색동치마연 · 허리둥이치마연 · 머리눈쟁이연 · 기발이연 · 무지개연 · 빗살머리연등 다양하다. 3년 이상된 대나무로 살을 만든 다음 불에 구워 손으로 직접 뜬 한지에다 붙인다. 무지개연(35×42㎝) 1만2천원, 색동치마연(70×95㎝) 8만원, 용연(90×120㎝) 50만원. 여기에 유통마진이 붙은 가격으로 인사동의 '원주한지'나 남대문의 '경북상회', 이태원의 '자이언트'등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02-2296-2045)



21세기 출발, 지역문화로부터!

문화관광부는 올해를 '지역문화의 해'로 정했습니다. 지역문화란 지역의 환경에 맞게 형성되어 온 지역주민의 문화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중앙중심적 사고가 스며들어 이제 우리의 독특한 지역문화는 날로 사라져 갑니다. 하나의 생명이 바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고른 영양분이 필요한 것처럼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문화의 다양성이 창조의 밑거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1, 지역문화의 해' 추진위원회에서는 창간 이래 꾸준히 우리나라 방방곡곡의 문화를 찾아다니고 지역문화 지킴이들을 소개해 온 월간 「우리문화」에 앞으로 10회에 걸쳐 '지역문화의 해' 소식을 알리는 '지역문화의 해 뉴스파일'을 마련하였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01, 지역문화의 해 뉴스 파일'을 마련하면서…

탐라 들바람 타고 '출발! 지역문화의 해' 활활

2월 4일 제주 애월읍 새별오름서 들불축제와 연계해 불글씨 점화식 가져

강 민 철 기자 (mckang@kccf.or.kr)

'출발! 지역문화의 해'.

탐라의 들바람을 타고 '2001, 지역문화의 해' 출범을 알리는 불글씨가 활활 타올랐다.

서서히 어둠이 깔리는 2월 4일 저녁 6시 수만 명의 인파가 운집한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 봉성리 새별오름 들불축제 행사장.

북제주군청이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오름 정면에 마른 풀더미로 큼직막하게 써놓은 '무사안녕'과 함께 '출발! 지역문화의 해'란 글귀에 이중한 '2001, 지역문화의 해' 추진위원장을 비롯, 이종인 · 강준혁 · 이원태 · 박인배 · 안진수씨 등 추진위원, 우근민 제주도지사, 신철주 북제주군수 등 정관계 인사, 각 사회단체장과 마을 주민 대표들이 불을 당기자 '출발! 지역문화의 해'란 글귀가 어둠에 잠긴 새별오름에 선명히 타올랐다.

실로 축제는 웅장했다. 10만여 평의 오름 전체가 거대한 불덩이로 활활 타들어갔다. 그건 마음 밑바닥에 쌓인 '변방'이란 과거의 상처나 설움을 태워버리고 새로운 중심을 향해 진군하려는 몸짓과도 같았다. 30분에 걸쳐 번져나가는 불덩이 앞에서 모두들 감탄과 환호의 소리를 질렀다.

이날 들불축제와 연계해 열린 '2001 지역문화의 해' 불글씨 점화식 참석자들은 '사람 · 삶터 · 어울림'이란 주제에 걸맞게 벌겋게 달아오른 오름을 바

라보며 그동안 소외되고 천대받던 지역문화가 다시금 제자리를 찾아 전국으로 번져나가기를 기원하는 모습이었다.

추진위는 이에 앞서 오전 10시부터 낭쉐(木牛)를 앞세운 연희패와 함께 전국 각 지역의 참여와 지역문화의 만선(滿船)을 상징하는 전국 232개 시군구의 깃발로 단장한 배를 앞세우고 시청에서 관덕정까지 약 10여 ㎞를 도보로 행진하며 '2001, 지역문화의 해' 출범식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드디어 오후 2시 제주시 관덕정에 마련된 '탐라국 입춘굿놀이' 현장에서 '2001, 지역문화의 해' 출범식이 열렸다.

2001년 지역문화의 해를 만방에 알리는 이세섭 문화관광부 전통지역문화과장의 선포에 이어 이중한 추진위원장이 "'2001, 지역문화의 해'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각 지역의 문화적 특수성을 튼튼히 함으로써 민족문화와 세계문화의 다양성을 증진시키고자 한다"며 "'2001, 지역문화의 해'를 각 지역의 문화적 전통을 새롭게 재조명해 보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순규 문화관광부 차관이 대독한 축하메시지를 통해 "이번 '2001, 지역문화의 해' 행사를 통해 각 지역 고유의 문화전통을 새롭게 조명하게 된 것은 참으로 의미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온 국민이 함께 공유하고 누릴 수 있는 문화, 지역적이면서도 전국적이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세계적인 문화로까지 재창조해 나가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또 "이번 행사의 주제처럼 지역간 문화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지역문화의 고른 발전과 국민대화합에도 크게 이바지 해주기 바란다"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도 우리 문화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갖게 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출범식이 열린 관덕정 광장에서는 무당 김윤수씨

의 탐라 입춘굿이 2시간여에 걸쳐 열린 것을 비롯, 제주도의 대표적 서예가인 현병찬씨의 입춘첩 써주기, 부산 오영숙 춤패와 진주오광대의 축하공연, 박재동 화백의 어린이 얼굴 그려주기와 함께 젊은 소리꾼 김용우와 가수 한영애의 축하공연이 열려 흥겨운 한마당을 연출했다.

한편 2박3일 일정으로 제주를 방문한 추진위 관계자들은 출범식 전날인 3일 오후 4시 도착하자 마자 호텔에서 짐을 풀고 제주시청 광장에서 열린 입춘굿에 참가해 나무소에 기원하는 낭쉐코사와 도깨비 형제들의 해학적이고 익살스런 놀이판 '영감놀이' 등을 관람하고 소지를 불태우며 제주만의 독특한 향토축제에 젖어들었다. 제주의 입춘굿은 오랜 동안의 역사를 지닌 민속 의례로 일제시대 때 사라졌다가 얼마전에 다시 부활해 올해로 3회를 맞는 축제. 이날 추진위는 김태환 시장 주재로 열린 만찬에 참가해 제주도 문화계인사들과 정담을 나누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출범식에는 이중한 위원장을 비롯, 이종인 상임위원, 강신표 · 강준혁 · 김명곤 · 김명자 · 김종헌 · 김종희 · 박인배 · 안이영노 · 안진수 · 이원태 · 이혜경 · 정강환 · 정중헌 추진위원, 문화관광부 노태섭 예술국장 · 이세섭 전통지역문화과장 · 안선국 사무관 · 김동욱 주사, 사무국 홍성일 · 김두진 팀장, 그리고 김현구 전국문화원연합회 충남지회장 등 전국 시 · 도의 문화관계자들이 참석했다

'2001, 지역문화의 해'에 관한 우리의 입장

우리는 지역문화라는 말의 의미를 주민의 구체적인 생활기반인 지역의 자연적 · 역사적 · 사회적 특성을 바탕으로 주민들 스스로 생활환경과 생활양식을 개선해 나가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신적 만족을 얻기 위한 활동의 소산이나 그 과정으로 본다. 따라서 지역문화는 지역주민들에 의해 창조되거나 습득된 지식 · 신앙 · 예술 · 윤리 · 관습 등 모든 능력과 습관을 포괄하는 총체로서 이러한 모든 가치체계나 행동양식에 대하여 주목하고 이에 바탕을 둔 발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믿는다.

'2001, 지역문화의 해' 추진위원회는 '지역'이라는 물리적 공간에 기반을 두고 살아가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창조하고 함께 누리는 쌍방향적 공동체 문화 창출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전개하고자 한다.

이러한 뜻에서 '2001, 지역문화의 해'는 '사람 · 삶터 · 어울림'을 주제로 설정하였고, "21세기 출발, 지역문화로부터", "함께 창조하는 지역문화, 함께 누리는 공동체 문화"를 슬로건으로 정하였다.

△ '2001, 지역문화의 해' 추진위원회 위원장 이중한

우리는 지역문화의 해 첫 사업인 '2001, 지역문화 대토론회-백가쟁명'에서 전국의 문화인들이 제기한 다음과 같은 주장들이 지역문화의 해 사업뿐만 아니라, 향후 정부의 지역문화 정책에도 충실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하나, 우리는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뿌리로 한 문화적 발전을 바라면서, 지역문화의 특수성을 튼튼히 함으로서 민족문화와 세계문화의 다양성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둘,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애착과 자긍심은 지역 자치의 뿌리이다. 이제 우리는 삶의 터전을 문화적 자존심으로 새롭게 일구는 실천적 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셋, 문화적 삶이란 스스로 참여하여 창조하는 삶 그 자체이다. 지역의 자생적 문화단체 활동을 최대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각 문화주체의 책임과 의무를 다짐하고자 한다.

넷,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적 발상을 대전환시키기 위해 국민적 차원에서도 지역문화 진흥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여야 한다.

다섯, 지역문화는 독자적인 자격으로 스스로의 존재를 주장함으로서 자립화 · 자치화, 개성화 · 특성화, 다양화 · 다원화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 각 지역의 문화는 과거로부터 전해오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그 지역에 살고있는 주민들 스스로가 나름대로 새로이 만들고 개발하는 것도 포함한다.

따라서 각 지역의 주민들은 자신들의 공동체적 결속을 다지고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적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노력과 여건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

일곱, '지역문화의 해'는 각 지역의 문화적 전통을 새롭게 재조명해 보는 기회로 삼고 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2001년 2월 4일
2001 지역문화의 해 추진위원회
위원장 이 중 한

'2001, 지역문화의 해' 출범 축하 대통령 메시지

오늘 '2001 지역문화의 해' 출범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도 불립니다. 이 문화의 세기를 맞아 올해를 '지역문화의 해'로 선정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문화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을 이뤄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문화는 획일성이 아니라 다양성을, 갈등과 충돌이 아닌 이해와 교류를 통해서 더욱 발전해 갑니다.

우리 민족은 5천년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각 지역마다 독특한 전통과 정서를 담은 다양한 지역문화를 가꾸어 왔습니다. 이는 우리 전통문화의 뿌리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해 오는 데 커다란 힘이 되어 왔습니다.

독창성 있는 지역문화는 오늘날 세계화시대의 큰 자산이기도 합니다.

이번 '2001 지역문화의 해' 행사를 통해서 이러한 각 지역 고유의 문화전통을 새롭게 조명하게 된 것은 참으로 의미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온 국민이 함께 공유하고 누릴 수 있는 문화, 지역적이면서도 전국적이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세계적인 문화로까지 재창조해 나가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사람 · 삶터 · 어울림'이라는 이번 행사의 주제처럼, 지역간 문화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여 지역문화의 고른 발전과 국민대화합에도 크게 이바지 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도 우리 문화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갖게 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에 헌신하고 계시는 문화예술인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01년 2월 4일
대통령 김 대 중

◁ 김순규 문화관광부 차관의 대통령 메시지 대독

'2001, 지역문화의 해' 출범식을 준비하며

박 인 배 | 지역문화의해 추진위원

장소를 제주도로 하는 것은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일찍이 결정하였지만, 지역문화의 해를 상징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이벤트'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이 검증되지 않은 몇 가지 아이디어들이 모아졌을 뿐이었다, 그것도 행사 40일 전에. 우선 제주도로 갔다. 입춘굿놀이를 할 제주시 관덕정 앞 광장과 들불축제가 벌어질 북제주군의 '새별오름'도 둘러보았다. 두 축제는 도심지와 야산, 전통복원과 현대적 이벤트, 주민잔치와 관광객 유치 등으로 대비될 수 있는 각각의 특색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

그 본연의 모습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출범식을 끼워 넣자면 '시각적 이미지'의 변화를 통해서 잠깐 동안이나마 강조하여야겠다는 구상을 세웠다. "관덕정 앞에는 굿그림과 유사한 형태의 '그림깃발'을 만들어 세우고, 들불축제장에는…?" 그 축제 계획서에 '불글씨'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다. 그렇다면 "그림깃발의 내용은 무엇으로 하나?" 그것은 지역문화의 해 출범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어야 했다. 1월 마지막주간까지도 결정을 못 내렸는데 고맙게도 탐라미술인협의회의 박경훈씨가 이미지합성을 잘 해주었다.

다음은 지역의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이냐였다. 심정적으로야 각 지역의 보다 많은 사람들이 몇 천, 몇 만이 되더라도 다 모이면 좋겠지만 다 모일 수 없는 '지리적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또한 지역문화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니 다른 방도로 집결의 의미를 찾아야했다. 그때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어린 시절 학교운동회에 내걸렸던 만국기였다. "세계에는 저렇게 많은 나라들이 있구나"하고 세계지도를 떠올렸었다면 이제는 거꾸로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많은 동네들이 있구나"하는 생각이 들도록 시·군·구의 깃발을 직접 모아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거리행진을 함께 하기 위해 만선기를 꽂은 깃발배를 형상하였다. 깃발을 모을 수 있는 기간이 짧아 디자인만 받아 사무국에서 제작한 것도 있고, 크기가 너무 커서 달지 못한 깃발도 있었다. 그저 뭉뚱그려진 '깃발무리'가 되고 말았다.

어쩌면 '지역문화'의 의미가 그저 '지역의 문화'라고 뭉뚱그려져 있는 것이 현재의 실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남는다. 그 각각의 깃발을 소중하게 펼치고 의미가 돋보이게 할 수는 없었을까. 하나의 행사에는 다 담을 수 없는 희망사항이지만 지역문화의 해 전체 사업은 계속해서 이런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01, 지역문화의 해' 지원사업 신청 안내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 사업

1 사업취지

지역의 예술단체와 문화공간 운영자 및 실무자들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지원하는 컨설팅(자문) 프로그램을 통해 평소 현안 과제로 지적되어 온 지역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방법의 개선과 활성화를 도모함.

2 컨설팅 대상 및 범위(내용)

○지역문화행사 및 지역축제, 지역 문화공간(시설), 지역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관련자 교육 · 워크샵 등등

3 컨설팅 방법

○인터넷을 통한 전문가(네트워크) 컨설팅, 전화 및 서신을 통한 컨설팅, 직접 면담 및 현장 컨설팅, 교육 · 워크샵을 통한 강좌 및 실습프로그램 등

4 신청방법

'지역문화의 해'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자세한 안내와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무국에 신청

지역사회 소규모 특성화 프로그램 발굴 지원

1 사업 취지

지역사회에서 마을 주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공동체 행사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지역문화의 특성화 계기를 마련코자 함.

2 특성화 프로그램의 성격

○지역(마을) 특성을 반영(표상)하는 주제의 프로그램,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프로그램 기획, 지역문화의 독창적 잠재성이 높은 프로그램, 지역(마을) 주민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3 신청대상 프로그램의 유형

○문화예술의 어떤 장르에도 구애되지 않으나 위 특성화 성격을 지닌 소규모 프로그램

4 지원 방법 및 기준

○각 지역에서 신청한 프로그램(안)을 추진위원회에서 심의 검토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함

○시 · 군 단위 이하 지역의 1개 프로그램(100개 지역 내외)에 한하여 일부 지원 - 1개 지역 250만원 내외 지원

기존의 지원대상 프로그램은 제외함.

주민이 자발적으로 구상하고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재정형편이 열악한 프로그램을 우선 지원

5 신청방법

○ '지역문화의 해'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자세한 안내와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신청(시 · 군 및 도 문화과를 경유)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 활성화 지원

1 사업취지

지역의 문화예술단체(인)와 아마추어 예술활동단체(인)의 지역내 문화 소외지역 순회 및 지역간 교류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 단체를 육성하고 프로그램의 활성화로 지역주민의 문화향수권을 신장시키고자 함.

2 활동범위(활동내용)

○지역 내 순회공연 및 전시발표

- 지역내의 문화소외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순회공연 및 전시발표 활동

○지역간 교류활동

- 자매결연 지역 등 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교류공연 및 전시발표 활동

3 지원대상 단체

○전문예술단

- 지역에 근거를 둔 프로 예술단체(개인 및 공공단체 포함)

○아마추어 예술단

- 지역에 근거를 둔 아마추어 예술단체 및 그룹(각종 문화학교 및 문화의 집 수강생 등)

4 지원방법 및 기준

○16개 시 · 도별로 해당 지역을 근거로 하는 단체를 추천받아 지원함

- 각 자치단체별로 전문예술단 2개 단체, 아마추어예술단 3개 단체씩 추천

〈지역간 교류활동〉

○전문 예술단 : 1개 단체 300만원 이내로 2개 지역 교류

○아마추어 예술단 : 1개 단체 150만원 이내로 2개 지역 교류

〈지역내 순회활동〉

○전문 예술단 : 1개 단체 200만원 이내로 2개 지역 순회

○아마추어 예술단 : 1개 단체 100만원 이내로 2개 지역 순회

※ 단 프로그램의 성격 · 내용 및 참가 단원 수 등에 따라 차등지원 고려

5 신청방법

○ '지역문화의 해'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자세한 안내와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자치단체(16개 광역시 · 도)가 신청서를 작성

지역문화현장을 찾아가는 탐방 및 현장대화

1 사업취지

광역시를 제외한 9개 도를 대상 지역으로 하여 도별 지역특성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지역문화현장을 탐방, 심층적인 소개와 함께 발전방향 등을 현장에서 토론 · 점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현장감있는 지역문화 활성화 정책방향 등 제시

2 탐방대상 범위(주요내용)

○각 지역의 특징과 상황을 고려하여 입체적이고 가변적인 행사로 진행

○각 도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분야 · 행사(축제, 민속놀이) 등

- 출향 예술인(중앙언론인 포함)들과 현지 관련 분야 관계자들이 2박 3일간 지역현장을 탐방, 언론 등에 심층소개하고 현장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발전방향을 상호 토론, 지방자치단체의 육성정책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3 신청방법

○신청자격 : 도 단위 신청

- 각 도에서는 심층소개 및 현장탐방을 원하는 관할 지역내의 가장 특성있는 지역문화예술분야 1~2 분야를 선정, 탐방희망 일자와 함께 「지역문화의 해」 사무국에 신청 - 각 도 신청내용 및 시기 등 중복 사항을 조정하여 3월부터 11월까지 각 도별로 월 1회 시행.

※ 세부 시행내용은 대상선정 후 해당 도와 긴밀하게 협의, 추진예정

이상 4개 사업에 대한 지원신청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양식은 '2001, 지역문화의 해' 홈페이지(http://region2001.org) 초기화면에서 다운로드 받으십시오.

‘선녀들의 목욕스케줄’ 아는 노루!

편집부

이글은 ‘다른세상’이 최근 발간한 ‘33가지 동물로 본 우리문화의 상징세계’(김종대 지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 혹은 상상의 동물들은 저마다 인간사와 연결된 독특한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개가 집안과 주인을 지켜주는 수호자라면 말은 큰일을 할 인물이 태어남을, 박쥐는 복을 주고 자손을 많이 낳게해줌을 상징합니다. (편집자주)

하늘의 뜻 사람에게 전달

노루가 하늘의 뜻을 사람에게 전해준다는 것은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 이야기에서 노루는 자신을 구해준 나무꾼이 선녀와 함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노루는 선녀들이 내려오는 시기와 장소를 알고 있다. 물론 노루는 산중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소상히 알 수 있다. 하지만 하늘에서 두레박을 타고 내려오는 선녀들의 목욕행사는 일종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비밀을 노루가 알고 있다는 것은 노루가 천상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노루는 평범한 동물들과는 달리 천상의 비밀까지 알고 있는 존재로 여겨졌다. 노루가 우리 민족에게 의미 있는 존재였음은 《삼국사기》의 노루사냥과 관련한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불길함을 나타내는 동물

노루가 하늘의 뜻을 전하는 사자라는 믿음은 고구려에서 강했던 것 같다. 《삼국사기》를 보면 노루와 관련한 기사는 모두 고구려에서만 나타나기 때문이다. 특히 흰 노루를 잡게 되어 일어난 재난에 관해 기록되어 있다.

유리명왕 2년 9월에 서쪽으로 사냥을 나가 흰 노루〔白獐〕를 잡았다. 겨울 10월 신이한 새〔神雀〕가 대궐 뜰에 모였다. 백제의 시조 온조가 왕위에 올랐다. 민중앙 3년 가을 7월에 왕이 동쪽으로 사냥을 나가 흰 노루를 잡았다. 겨울 11월 혜성이 남쪽에 나타났다가 이십 일만에 사라졌다. 12월 서울에 눈이 내리지 않았다. 태조대왕 55년 가을 9월 왕이 질산 남쪽에서 사냥으로 자색 노루〔紫獐〕를 잡았다. 중천왕 15년 가을 7월 왕이 기구에서 사냥하다가 흰 노루를 잡았다. 겨울 11월 우레와 지진이 있었다. 장수왕 2년 겨울 10월 왕이 사천벌에서 사

냥하다가 흰 노루를 잡았다. 12월 서울에 눈이 다섯 자가 내렸다.

흥미로운 것은 왜 고구려에서만 노루와 관련한 기사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신라나 백제는 흰 꿩이나 꼬리가 긴 꿩을 신이하게 여긴다. 하지만 노루와 관련한, 특히 흰 노루와 관련한 기록은 없다. 위사례를 보면 고구려에서는 흰 노루를 잡게 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고 믿었던 것 같다.

이러한 전통은 고구려의 계승을 기치로 내건 고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고려사》를 보면 노루가 도성에 들어왔다는 기사가 많다. 인종과 고종 때 각 한 번씩, 충숙왕 때 두 번, 충혜왕 때 두번, 충목왕 때 세 번, 충정왕 때 한 번, 공민왕 때 열 번, 우왕 때 아홉 번, 공양왕 때 두 번 있었다. 출현한 빈도로 보면 고려 말기의 공민왕에서 공양왕 삼 대까지 스물한 번이나 된다.

노루가 나타나면 불길하다는 대목이 우왕 때 일관에 의해서 설명되고 있다. 일관이 왕에게 "비기(秘記)에 의하면 노루가 성 안에 들어오면 나라가 망한다고 되어 있으니, 매사에 조심하며 수양할 것이며, 밖으로 사냥을 다니는 것을 금하도록 하십시오"라고 고했다. 고려시대에는 노루가 도성 안으로 들어오면 나라가 망할 징조로 보았던 것이다.

물론 노루가 자주 출현하여 고려가 망한 것은 아니겠지만 노루의 출현이 불길한 징조였던 것이다. 속신에도 노루의 출현을 반가워하지 않았던 내용이 있다.

노루가 동네를 쳐다보고 울면 그 동네에 화재가 생긴다
노루가 짖으면 맞은편 동네사람이 죽는다
노루고기를 먹으면 장사가 망한다
노루고기를 먹으면 재수가 없다
노루를 잡으면 계속해서 사고가 생긴다

이와 같은 속신은 그 전통이 고구려시대까지 소급될 만큼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것이다. 노루 사냥은 선사시대 때도 있었다. 먹을 식량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왜 노루고기를 먹으면 재수가 없다고 했을까? 노루를 신성한 동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신성한 동물을 먹으면 곧 불길한 일이 생긴다고 믿었고, 이 때문에 노루의 출현은 불길한 징조라고 여기게 된 것이다. 조선시대에 발간된 ≪규합총서≫를 보면 사슴고기의 효능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지만 노루고기에 대한 것은 없다. 당시 사람들이 노루고기를 회피했음을 알 수 있다.

지금도 휴전선 비무장지대에 위치한 군대에서는 노루를 불길하게 여긴다. 노루를 잡거나 혹은 지뢰를 밟고 죽은 노루를 먹으면 그 부대에서 인명사고가 꼭 일어난다고 믿는다. 휴전선 근처의 부대에서는 노루를 먹지 않고 묻어주기도 한다.

하지만 속담에는 노루고기를 먹는 내용이 있다. '노루고기 한 점 먹으려다 돼지고기 열 점 잃는다'나 '노루 뼈는 세 번 우려먹고도 또 우려서 사위를 준다' 등이 있다. 특히 노루 뼈를 세 번이나 우려내고도 또 우려서 사위를 준다는 것은 노루 뼈가 보신에 좋다고 생각한 것이다. 사위가 찾아오면 씨암탉을 잡아주는 우리의 풍속과 의미가 같다.

비록 노루를 사냥하는 풍속도 있었고 요리해 먹기는 했지만, 본질적으로는 노루를 불길함의 상징으로 이해했다고 보아야 한다.

은혜를 갚을 줄 아는 동물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노루 역시 자신을 구해준 사람에게는 꼭 보답을 할 줄 아는 동물이다. 노루를 범상하지 않은 동물로 생각한데다 교훈적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노루를 등장시킨 것이다.

공주군 우성면 내산리에 노루목이란 곳이 있다. 지금부터 수백 년 전의 이야기다. 이 마을에 허씨라는 나무꾼이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지금의 노루목

근처에 와서 나무를 하고 있었다. 그때 노루 한 마리가 달려와서는 나무를 싸놓은 무더기 속으로 들어가 숨었다. 곧이어 포수가 뛰어오면서 노루가 간 곳을 물었다. 나무꾼은 저쪽으로 달아났다고 거짓말을 했다. 포수가 가버리자 노루가 나무 무더기 속에서 나왔다. 노루는 나무꾼에게 고개를 몇 번 끄덕이면서 그 자리에 무덤을 만들라는 시늉을 했다. 나무꾼은 옳지 이곳에다 묘를 쓰라는 말인가 보다고 생각했다. 그때 마침 아버지를 여의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무덤을 이곳에다 옮겼다. 그 뒤 나무꾼의 집안은 유복해졌으며 이때부터 그곳을 노루목이라 부른다고 한다. - 최상수의《한국민간전설집》

노루의 보은 이야기에서는 노루가 금이 있는 자리를 가르쳐주거나 명당자리를 알려준다. 이 이야기에서 현실적인 궁핍함을 극복하기 위한 민중들의 심리적 보상의식을 엿볼 수 있다.

조선시대만 해도 하층민들은 경제적인 궁핍을 극복하기가 엄청나게 힘이 들었다. 부유해지기를 원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바람이다. 이러한 바람은 이야기를 통해서만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많은 동물들 이야기는 동물을 구해주고 목숨이나 부를 얻는 내용이 담겨 있다. 마음의 위안을 삼는 데 이런 내용의 이야기는 큰 효과가 있었던 것이다. 거창군 가조면에는 하변 이씨가 많이 모여 산다고 한다. 그런데 이 집안은 지금도 노루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하변 이씨의 선조 가운데 한 사람이 산을 넘어 친척집으로 가고 있었다. 이 사람은 상주였기 때문에 큰 방립을 쓰고 다녔다. 산을 넘는 고개에서 잠시 쉬려고 앉으면서 방립을 벗어 옆에 놓았다. 담배를 한 대 피고 있으려니, 어디에선가 노루가 튀어나와 방립 속으로 숨어들었다.

잠시 후 사냥꾼들이 헐레벌떡 뛰어오면서 "이 길로 노루가 지나 가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고 상주에게 물었다. 상주는 "노루가 벌써 한 이십 리는 갔을 거요"라고 대답했다. 사냥꾼들은 "오늘 사냥은 다했네"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사냥꾼들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상주는 방립을 들면서 노루에게 말했다. "오늘 죽을 일을 당할 뻔했구나. 이제 사냥꾼들도 갔으니 네 길을 가거라."

노루는 상주에게 마치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듯 고개를 연신 숙이더니 사라져버렸다. 그런 일이 있은 후 그는 과거를 보기 위해 서울로 떠나게 되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앞산에 노루가 나타나 한참을 우는 것이 아닌가! 사람들은 '재수없는 일이 생기려나, 애 노루가 울지' 하고 생각했다. 곧이어 상주였던 선비가 과거시험에 급제를 해서 진사가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 후로는 서울에서 과거시험이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 어떻게 알았는지 노루가 미리 와서 울어댔다. 당시에는 서울의 소식이 지방까지 당도하려면 보름은 너끈히 걸리던 시절이었다. 노루가 울 때마다 서울로 과거시험을 보러간 하변 이씨들이 급제한 것이 열두 번이나 된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도 이 집안에서는 노루를 먹지 않는다고 한다. -《한국구비문학대계》8-5

이와 같은 노루 이야기는 속신에 나타난 '노루가 울면 사람이 죽는다' 는 내용과는 정반대 의미다. 왜 이와 같은 차이가 생긴 것일까? 노루 이야기는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이 담겨 있다. 노루뿐 아니라 동물이라는 미물도 은혜에 보답할 줄 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사람도 응당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이야기를 통한 학습법은 교육이 발달하지 않은 조선시대에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서당에 다니지 못했던 민중들에게는 이처럼 어머니나 할머니를 통한 이야기 학습이 가장 중요했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노루 이야기는 속신과는 다른 내용을 갖게 된 것이다.

TV쇼 진품명품에 출연하는 도자기 감정위원 이상문씨

"문화원마다 유물전시관 마련했으면…"

강 민 철 기자 (mckang@kccf.or.kr)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10분부터 KBS 1TV에서 방영되는 TV쇼 진품명품은 전문가와 소수 수집가들의 전유물이었던 고미술 · 고생활용품의 가치를 일반인에게 널리 알린다는 취지아래 95년 첫 방송된 이래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백미는 뭐니뭐니해도 시청자들이 갖고 나온 도자기 · 서화 · 복식등 소장 공동품을 개그맨이나 가수등으로 구성된 아마추어 감정단이 가격을 추측한 후 '다다닥' 하는 카운터소리와 함께 4명의 전문 감정위원이 매긴 '진짜' 가격이 전광판에 보이는 순간이다.

이때 시청자들은 주위에 흔하면서도 웬만해선 그 가치를 종잡을 수 없는 도자기에 특히 관심을 많이 갖는데 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감정위원이 바로 이상문씨(58)다. 최근 인사동에 도자기 경매 사업체인 명품옥션(주)을 개업

△ 도자기 감정위원 이상문씨

하기도 한 이상문씨는 국내에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 할 30년 연륜의 골동품 감정인. 그의 눈은 레이저측정기기보다 더 정확하다. 그동안 많이 속아본 덕(?)이다. 큰 맘 먹고 산 병풍이 가짜로 판명나는 바람에 집 한 채를 다 날린 적도 여러번.

그러나 이씨는 "현재 민가에서 1백년이상된 도자기를 찾기가 어렵다"며 아쉬워 한다. "이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면 그 유품을 모두 불태워 버리는 우리네 풍습 탓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일제시대때 일본으로 넘어간 도자기들이 남아 있어 경제가 좋아진 지금에 와서 되사올 수 있게된 거죠"

그런데 '진품명품'에서 매겨지는 골동품의 가격이 기대치에 비해 훨씬 높거나 낮을 때가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물음엔 "골동품의 문화재적 가치와 상업적 가치를 두개의 잣대로 삼아 평가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비싸게 보이는 골동품도 흔하거나 예술성이 없으면 가격이 내려가고 반대로 값싸게 보이는 골동품도 역사성이 높거나 당대를 연구하는데 도움이 되는 참고 자료라면 높게 평가됩니다. 또 쓰이는 용도에 따라서도 가격이 달리 매겨지는데 고상한 분위기를 풍기는 문방구나 화병류가 높게 평가되는 반면 수집가들 조차도 별 관심을 두지 않는 요강이나 타구는 낮게 평가됩니다"

이씨는 "전국에 분포해 있는 골동품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앞으로 지방문화원에서도 각지에 흩어져있는 행정관청의 등사기 · 수동식 전화기 · 시장군수 직인 · 초등학교 책걸상 · 통성냥 · 가루치약등 개화기부터 50년대까지의 유물을 한데 모은 전시관을 마련해 기성세대에게는 향수를 느끼게 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고장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을 심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문

문화재청

고흥 능가사 대웅전 등 2점 보물지정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흥 능가사대웅전', '당흥부원군 호성공신 홍진교서'를 각각 보물 제1307호, 제1308호로 지정했다. 능가사 대웅전은 능가사사적비 및 건물에 사용된 기와 명문 등으로 볼 때 18세기 중엽에 중건된 정면 5칸, 측면 3칸, 팔작지붕 건물로 건물면적은 57평 규모이다. 능가사 대웅전은 이와 같이 임진왜란 이후 조선 중 · 후기 전남 남해안 지역 사찰건축의 일면을 보여주는 중요한 건물로 역사적 의의와 함께 학술적 가치가 있어 이번에 보물로 지정하게 됐다. 당흥부원군 홍진 호성공신교서(남양홍씨 예사공파 공종회 소장, 1축, 34.7×190.8cm)는 임진왜란 때 호종한 공으로 조선 선조 37년(1604) 10월 당흥부원군 홍진에게 호성공신 2등을 내린 교서이다. 홍진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남양, 자는 희고, 호는 인재 · 퇴촌이다. 홍진은 임진난으로 선조가 몽진할 때 호군으로 의주까지 수행한 공로로 2등공신에 봉해졌다. 홍진 교서에는 2등 공신에 해당되는 녹훈사실 및 포상내용과 등급별 공신명단, 그리고 교서의 발급년월을 적고 있으며, 당시 호성공신에 대한 포상 규정을 살펴 볼 수 있는 귀중한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문

무속음악과 춤

편집부

우리나라 사람의 종교적 심성은 그 맨 밑바닥에 무속(巫俗)적인 것이 깊게 깔려 있다. 따라서 무속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굿'에서 쓰는 음악은 한국 종교음악의 가장 원초적 모습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굿'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그 형태와 내용은 다르지만 그 명맥을 이어오며 우리나라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의식이다.

무속의식은 인간의 필요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게 발달되어 왔다.

사람이 죽었을 때는 오귀굿, 사람의 행운을 비는 재수굿류와 병이 났을 때 하는 병굿류, 그리고 온마을이나 한 고을이 함께 참여하는 별신굿이나 도당굿류 등이 대표적인 것들이다.

이같은 의식은 어느 것이나 다 무가(巫歌)라고 하는 노래와 무무(巫舞)라고 하는 춤, 또 의식의 진행과 노래와 춤에 반주되는 기악(器樂)이 한데 조화를 이루면서 진행된다. 따라서 크게 보아 무속음악과 무속춤은 '굿'이라고 하는 의식을 담는 그릇인 셈이다. 신앙체계를 빼고 보더라도 '굿'은 우리민족이 오랜 세월에 거쳐 발달시킨 훌륭한 문화예술유산이기도 하다.

특히 무속음악과 춤은 자생적으로 발달하여 왔기 때문에 스스로 발달할 수 있는 형성능력과 또 외래 중교음악을 주체적으로 수용하는 능력도 잘 갖춘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무속음악은 그 지역의 민요와 음악적으로 일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함경도 · 강원도 동부 · 경상도 동부의 무속음악은 메나리토리로, 평안도 · 황해도 · 경기도 북부 · 강원도 서남부는 경토리와 수심가토리로, 경기도 남부 · 충청도 서부 · 전라도 · 경상도 남부는 육자배기토리로, 제주는 경토리 비슷한 제주도 민요토리로 되어 있다.

각지방의 무속음악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 · 경기도 북부지방

서울에서는 집굿과 넋굿을 많이 한다. 집굿은 재수굿, 천신굿 등으로 부르며 넋굿은 진오귀라 부르고 마을굿은 당굿 또는 도당굿이라 부른다.

강신무가 굿을 하고 기대라 부르는 조무(助巫)가 장구를 치면서 뒷바라지하며 다른 기대가 바라를 친다. 잽이들은 피리 · 젓대 · 해금으로 만주음악을 연주한다.

무가는 긴 통절형식(通節形式)으로 된것이 적고 장절형식(章節形式)으로 된 것이 많다. 또 주무(主巫)가 한 장단씩 무가를 부르면 조무가 그대로 따라 부르는 만수받이가 더러 쓰인다.

무가선율은 경토리로 되어있어 경쾌한 느낌을 준다. 타령무가는 굿거리장단으로 되어 있고 노랫가락은 시조장단이며 만수받이는 굿거리장단이고 중디박산은 엇모리형 장단이다. 무가의 삼현(三絃)반주는 수성가락이며 주무의 삼현반주 음악은 자진염불, 굿거리, 허튼타령, 당악이다.

경기도 남부 · 충청도 · 전라도지방

경기도 남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서남부는 세습무가 큰굿을 하며 무가 선율은 육자배기토리로 되어 있다. 무가의 반주악기는 피리 · 젓대 · 해금 · 장고 · 징으로 편성되어 시나위를 연주하는 점에서 서로 같다. 이 지역은 무가의 장단이 다른 점에서 다시 세 지역으로 구분된다. 경기 남부는 집굿, 마을굿을 한다. 마을굿은 도당굿 · 대동굿, 산치성굿이라고 부른다. 무당은 육자배기토리로 무가를 부르고 잽이는 피리 · 젓대 · 해금 · 장구 · 징으로 시나위를 무가반주로 연주한다. 장구치는 고인이 바라지한다.

무가의 장단은 도살풀이(섭채), 가래조, 덩덕궁이, 몰이, 삼공잽이, 발뻐드래 등이 쓰인다. 무가는 통절형식이 많다.

마을굿에서는 소리광대가 서서 고수의 북장단으로 하는 거리가 있다. 이때 소리는 육자배기토리와 달라서 이를 판패개, 혹은 패개성음이라 한다. 장단은 중몰이, 중중몰이, 자진몰이, 삼공잽이, 푸살 장단을 쓴다.

동해안지방

경상도, 강원도 동해안 지방에서는 넋굿, 마을굿을 많이한다. 넋굿은 오구굿이라하며 마을굿에서는 별신제를 크게 한다.

무당은 세습무이다. 무당은 메나리토리로 무가를 부르며 양중(잽이)은 장구, 징, 꽹과리로 반주음악을 연주한다. 장구치는 양중이 무가에 바라지한다.

무가의 장단에는 청보 · 제마수 · 엇청보, 고삼, 자삼, 수부채, 드렁갱이, 쪼시개 등이 있고 중중몰이형과 자진몰이형도 쓰인다.

이 지방 굿은 푸너리, 청보, 춤, 수부로 구성되는 굿이 전형적이다.

황해도 · 평안도 지방

강신무가 집굿, 넋굿, 마을굿과 같은 큰굿을 한다. 넋굿은 시왕굿이라 부르고 마을굿은 당굿이라 한다.

무가의 선율은 수심가토리가 주로 쓰이며 경토리가 끼어 있다. 무가 및 무무의 반주악기는 장구, 바라로 편성된다.

장구치는 설맞이가 무당의 무가에 만수받이를 한다. 황해도지방 무가 장단에는 긴 만세장단, 자진만세장단, 산놀이장단이 많이 쓰이고 춤의 장단에는 굿거리, 타령, 당악 장단이 많이 쓰인다.

제주도 지방

세습무와 강신무가 모두 큰 굿을 하는데 무당을 심방이라 부른다.

마을굿에는 영등굿, 넋굿에는 시왕맞이, 집굿에는 세경놀이가 큰굿으로 꼽힌다.

무가의 선율은 경 · 서도토리와 비슷하여 전음5계로 되어 있고 중심음(종지음)에 구도 · 장 3~4도, 5도, 장 6~7단도로 되어 있는 음계로 구성된다. 장단은 자유리듬형, 중중몰이형, 느린자진몰이형이 많다. 무가와 춤의 반주악기는 징, 장구, 북, 설쇠로 편성되는데 이것을 '연물' 이라 부른다.

▽ 동해안 별신굿

머뭇거리던 영조에게 "사도세자 죽이라" 말한 건 생모
문학 통해 생명력 있는 역사의 주인공 만날 수 있어

강 민 철 기자 (mckang@kccf.or.kr)

전국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하고 삼척문화원이 주관한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문학 강연회'가 지난 2월 2일 오후 2시 삼척문화원 강당에서 열렸다. 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후원한 이날 행사는 김원우원장을 비롯한 관내 주요인사와 삼척여고생 · 일반시민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세훈 사무국장의 사회로 서울 강남대 정은임 교수가 나와 '역사와 문학의 상관성'이란 주제하에 열띤 강연을 했다. 1시간 30분동안 진행된 이날 강연회에서 정교수는 특히 사도세자의 부인인 혜경궁 홍씨가 저술한 '한중록'을 중심으로 숙종과 영 · 정조 시대의 역사에 관해 조망한후 청소년들에게 "역사가 사실을 말해준다면 문학은 감동을 전해준다"며 "한중록에서 볼 수 있듯 문학속에는 그 시대의 상황과 가치관이 담겨있으므로 현대문학과 함께 고전문학에도 관심을 갖고 독서하라"고 했다.

〈다음은 정은임 교수의 강연 요지〉

'한중록'이란 제목은 혜경궁 홍씨가 붙인 게 아니다. 그리고 이 글은 혜경궁 홍씨가 네 번에 나눠 쓴 것이다. 그의 나이 61세, 67세, 68세, 71세되던 해였다.

이 글은 다른 고전작품과 달리 작자와 창작연대 · 창작동기가 분명하다. '한중록'은 남편인 사도세자의 죽음에 관한 기록으로 혜경궁 홍씨가 나이 9살에 동갑인 동궁의 빈에 간택되면서 시작된다.

입궐 초에는 앞으로 군주가 될 동궁의 빈으로 쇠락하던 친정 집안을 다시 일으키고 후에 정조가 된 국본(國本)을 생산하는 일들로 기쁨의 날들도 있었다. 그러나 입궐후 5~6년 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동궁의 병세가 날이 갈수록 심해짐에 따라 동궁과 영조 사이에 생긴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져 극기야

정은임 교수

는 인륜으로 생각할 수 없는 비운을 남기게 된다. 동궁 나이 28세에 생부인 영조에 의해 뒤주에 갇혀 숨이 끊긴 것이다.

그러면 이같은 비극은 어디에서 연유한 것일까? 본래 영조는 똑똑한 임금이었으나 성격이 정상적이지 못했다. 그것은 어머니 숙빈 최씨와 관련지어 살펴볼 수 있다. 숙빈 최씨는 무수리 혹은 침방내인 출신인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영조는 항상 출생의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결국 자녀를 사랑하거나 양육하는 방법에 반영되어 부자간에 씻을 수 없는 갈등을 일으키는 단초로도 작용한다.

또 다른 원인은 정치의 소용돌이속에서 찾을 수 있다. 사도세자가 동궁으로 책봉된 후 노론과 소론간의 반목이 궁인들에게 까지 파급돼 사도세자와 반대파인 궁인들이 동궁을 영조에게 잘못 비치게 한 것이다.

그런데 영조는 탕평책을 쓴 임금이다. 하지만 등극과정에 그와 운명을 같이 하면서 도와 준 노론들을 저버릴 수 없었다. 이것이 그로 하여금 아들을 죽일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간다.

반면 영조의 부인이자 동궁의 생모인 영빈은 섬세하고 사려 깊은 여인이었다. 그러나 영빈마저도 열등한 신분 출신으로 영조 자신이 지닌 열등감과 맞물려 작은 일들이 점점 크게 확대된다. 부왕으로부터 자애를 입지 못한 동궁은 병이 나고 그 병으로 인해 영조는 더욱 아들을 미워하는 악순환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이 때 나경언의 상소로 세자의 비행이 여론화되면서 상황은 차마 되돌이킬 수 없는데까지 가고만다. 이미 세자를 없애려고 마음을 굳히고 있었으나 실행에 옮기기를 주저하고 있었던 영조에게 불을 당긴 셈이었다. 그동안 사려깊고 섬세한 모습을 보여왔던 영빈은 이 숨막히는 시간을 줄이는 악역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은 자신 뿐이라는 것을 충분히 감지했을 것이다.

영빈은 영조 38년 윤오월 13일. 전날 밤 며느리에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을 편지로 쓰고 영조에게 "성궁을 보호하여 종사를 붙들기 위해 동궁을 죽이라"고 말한다. 이 말이 끝나자 마자 영조가 조금도 지체없이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는 것은 영빈의 입에서 '동궁을 죽이라'는 말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아들이 죽은 후 매일 밤 동편 툇마루에 앉아 자신을 한탄하며 잠을 못 이루던 영빈은 2년후 자신도 아들 곁으로 떠났다. 작자인 혜경궁 홍씨는 9살에 동궁의 빈으로 간택되어 81세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너무나 많은 일들을 겪었다. 실로 당사자들에게는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의 시간이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지 않고 한의 고리를 문학으로 엮어냈기 때문에 우리는 세월을 넘어 비극의 원인과 생명력 있는 주인공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삶의 질 향상·국가 경쟁력 제고에 초점 문화콘텐츠 전문회사 「코리아 ⓔ 뮤지엄」 설립

문화관광부는 지난 2월 14일 대통령에게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보고는 삶의 질 향상, 국가경쟁력 제고, 남북평화협력 실현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디지털 문화콘텐츠산업을 지식기반 경제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자본금 2000억원 규모의 콘텐츠 개발전문회사 「코리아 ⓔ 뮤지엄」을 설립하겠다는 내용이 주목을 끌었다. 문화관광부 2001년 주요업무계획 내용은 다음과 같다.(편집자 주)

1. 문화인프라 확충으로 우리 문화의 발전 환경 조성

문화의 세기를 맞이하여 문화발전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여 우리 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음

■ 21세기 새로운 문화정책의 패러다임 정립
○ 중장기 정책비전 제시를 위한 「21세기 문화정책위원회」구성 ○ 중앙-지방간 정책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 극대화

■ 지식정보사회 부응하는 문화정보인프라 확대
○ 주요 문화기관과 단체를 연계하는 「종합문화정보네트워크」구축 ○ 「도서관정보화 종합계획(2000~2002)」본격 추진 ○ 디지털시대에 부응하는 저작물의 유통 · 관리 체계 확립

■ 문화기반시설의 지속 확충과 운영 효율화
○ 문화예술 발전의 근간이 되는 핵심문화공간 건립 ○ 관(官) 주도에서 주민 중심으로 운영방식 전환

■ 한글의 우수성 선양과 체계적 해외보급
○ 민족문화의 정수인 한글의 문화사적 가치 정립 ○ 「한국어 해외보급재단」설립, 우리말 · 글의 해외보급 확대

■ 우리 문화의 전략적 해외소개 위한 기반 구축
○ 「한국문학번역원」설립으로 노벨문학상 수상 여건 조성 ○ 재외 문화원을 한국문화 소개를 위한 전진기지화

2. 문화창조력 신장으로 문화예술 진흥

창의력의 원천인 순수예술의 중점 지원으로

창작역량을 제고하여 우리 문화예술의 수준을 한단계 높여 나가겠음

■ 창작역량 제고를 위한 뿌리예술 중점 육성
○문화예술 발전의 모태가 되는 문학 · 미술 창작 활성화 ○예술성과 시장성이 있는 공연예술 활동 지원

■ 사이버 시대에 부각되는 새로운 흐름의 예술활동 지원
○첨단기술과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창작활동 지원 ○「디지털 문화예술 아카데미」를 통한 사이버 예술교육 활성화 ○독창적 표현양식을 추구하는 예술활동 지원

■ 창작활동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여건 조성
○특화된 창작 · 향수 공간 지속 확충 ○관객 개발을 통한 저변확대로 창작의욕 고취 ○예술영재교육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 ○우수작품 해외진출 지원 및 현지 이벤트 추진

■ 전통문화의 창의적 계승 · 발전
○국악의 생활화를 위한 체계적 기반 조성 ○세시풍속(歲時風俗) 보급과 전통예술의 창작지원

3.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문화복지 확대

온 국민이 골고루 누리는 문화생활로 풍요로운 삶을 구현하고 건전 종교활동과 소외계층 지원으로 국민화합 기반을 조성하겠음

■ 지역문화 활성화로 중앙-지방, 도-농간 문화격차 해소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한 「2001 지역문화의 해」추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문화 · 관광공간의 균형적 확충

■ 문화 · 관광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삶의 활력 제고
○일터와 생활현장 속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확대 운영 ○여가생활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보급

■ 건전 종교활동과 소외계층 지원으로 함께 누리는 사회 구현
○국민화합과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종교계 역할 제고 ○문화소외지역과 장애인의 문화생활 여건 조성

4. 문화콘텐츠산업을 지식경제 핵심산업으로 육성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작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산업연관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하겠음

■ 문화콘텐츠 창작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체제 구축
○지역별 첨단 디지털 테마파크 조성 ○지방 창업과 현장지원기능 강화 ○디지털환경에 부응하는 법령체계 정비

■ 디지털 시대를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 및 투자 활성화
○첨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확대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강화

■ 핵심 문화콘텐츠산업의 집중 육성
○21세기 디지털방송시대에 부응하는 방송영상산업 진흥 ○출판의 콘텐츠 소재산업화 및 음반산업 기반 강화

■ 전략적 마케팅으로 세계시장 진출 확대
○세계시장 본격 공략을 위한 마케팅 기법 개발 ○해외거점 확충과 국제행사를 활용, 수출판로 적극 개척

5. 21세기 아시아 관광 중심국 도약

외래관광객 1천만명 시대의 조기개막을 위해 관광산업 지원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관광수용 인프라를 확충시켜 나가겠음

■ 관광산업의 획기적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규제완화와 지원 확대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한 투자환경 조성

■ 인천국제공항 개항 계기 관광수용 인프라 대폭 확충
○대단위 숙박단지 조성 및 항공노선 확충 ○공항인근을 복합관광단지로 개발, 동북아 관광거점화 ○한자병기 표지판 설치 등 안내체계의 개선

■ 국제적 수준의 특화 관광자원 및 상품개발
○광역권 관광개발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지역별로 차별화된 문화 · 관광상품 개발

■ 전략적 홍보 마케팅으로 관광시장 확대
○입체적 홍보를 위한 민관합동 「관광홍보전략회의」운영 ○잠재 · 신흥시장 개척으로 해외관광시장의 다각화

■ 고부가가치 국제회의산업 육성으로 관광한국 위상 제고
○관광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및 대규모 국제회의 유치 ○국제회의산업 인프라 조성 및 전문인력 양성

6. 스포츠 · 레저로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 조성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생활체육과 레저활동 여건을 조성하고 엘리트체육 중흥으로 체육강국의 위상을 다져 나가겠음

■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 레저활동 활성화
○주민친화형 체육활동 공간의 지속적 확충 ○체육동호인 확산을 위한 「국민생활체육 한마당축전」창설 ○생활체육 및 레저 프로그램 보급 확산

■ 엘리트체육 중흥을 위한 지원체제 재정립
○국가대표 훈련방식 및 선수 양성체계 개선 ○은퇴 국가대표선수의 사회진출 지원제도 마련(200명) ○실업팀 운영 활성화 및 프로경기 육성

■ 2002 부산아시아대회 및 2003 대구U대회 지원
○부산아시아대회의 차질없는 준비(시설건립 및 수익사업 지원)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 준비체제 구축(지원법령 제정 및 조직위 구성)

7. 새천년을 이끌어 갈 진취적인 청소년 육성

21세기의 주역인 우리 청소년들이 올바른 인성과 경쟁력을 갖추어 지식정보사회를 선도할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

■ 열린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건전한 민주시민 자질 함양
○창의력과 봉사정신을 길러주는 청소년 자율활동 확대 ○유해 인터넷사이트 정화 및 건전 사이버 문화활동 지원

■ 청소년 전용공간 확충과 특성화 프로그램 확대
○수련활동의 총본산인 「청소년수련시설운영센터」개원(7월) ○청소년 활동공간 확충 및 감수성 함양 프로그램 개발 · 보급

■ 국제감각 배양을 위한 청소년 교류 활성화
○국가간 청소년 교류의 다변화(아시아중심에서 구 · 미주권으로 확대) ○국제청소년광장(8

월) 및 세계청소년문화축제(10월) 개최

8. 남북문화협력을 통한 민족통합 지향

문화·관광·체육이 민족동질성 회복과 신뢰 구축에 기여하여 남북평화협력 실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겠음

■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남북문화장관회담」 개최, 「남북교류협력 합의서」 체결 추진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사업 지원 및 문화통합방안 연구

■ 동질성 회복과 상호이익 증진을 위한 교류협력사업 추진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문화예술 교류 ○관광협력 확대로 남북 공동이익 창출 ○체육교류 활성화를 통한 민족 자긍심 고취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종교계와 청소년 교류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KOREAⓔMUSEUM」설립

■ **설립목적**

○ 고도정보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콘텐츠 수요폭증에 능동 대응
○ 콘텐츠 확충으로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의 실질적 완성
○ 전문회사 설립으로 국제수준의 디지털 문화콘텐츠 육성에 역량 집중

■ **회사설립계획**

회사개요	◇ 회 사 명 : 코리아ⓔ뮤지엄/KOREAⓔMUSEUM ◇ 설립형태 : 상법상 주식회사(상반기중 설립) ◇ 운 영 진 : 기업경영마인드를 가진 콘텐츠전문가 영입
사업방향	◇ 초기단계 : 유무형의 국가 문화자산을 디지털화 우리문화의 원형을 영구 보존 ◇ 성숙단계 : 시장성있는 영상문화콘텐츠 개발, 수익창출
사업내용	◇ 콘텐츠개발 : 개미군단(200~300개)및 유망프로젝트에 투자 ◇ 콘텐츠마케팅 : 전문회사와 전략적 제휴 추진
재 원 투자규모	◇ 재 원 : 공공기금 및 민자(50:50) ◇ 투자규모 : 초기투자 2,000억원

콩볶기 · 머슴날 · 풍신제

박 후 식 | 전국문화원연합회 운영위원

음력 2월은 정월달의 설과 대보름 등 큰 명절을 치른 다음이라서 내세울 만한 명절은 없다.

2월은 묘월(卯月)이라고 부르는데 이달에 경칩과 춘분이 들기 때문에 서서히 농사준비를 하는 달이다. 보통 2월과 3월 사이에 차가운 바람이 부는데 이 바람을 꽃샘바람이라고 부른다.

2월 초하루날은 아침 일찍부터 새바가지에 정한 수를 담아 장독대 · 부엌 · 당에 놓고 소원을 비는 풍습이 있고 이 때 여러 가지 음식을 정갈하게 마련하여 풍년과 가족들의 안녕을 기원하며 가족수대로 한지를 불사르는 소지를 한다.

▲ 삭일(朔日) : 머슴날이라고도 한다. 추수가 끝나고 월동기여서 별로 할 일이 없다가 2월부터 서서히 농사준비를 해야 되므로 머슴들이 즐겁게 하루쯤 쉬게 하여 재충전을 하고 농사일에 힘을 쏟을 수 있게 하려는 뜻에서 2월 초하룻날을 머슴날로 정하여 술과 푸짐한 음식을 장만하여 마음껏 배부르게 먹고 즐겁게 놀게 한다. 머슴들은 농악을 치며 즐거운 하루를 보낸다.

▲ 대청소 : 보통 2월 초하룻날 대청소를 하는데

△ 제주풍신제

2월은 묘월(卯月)이라고 부르는데 이달에 경칩과 춘분이 드는 달로서 서서히 농사준비를 하는 달이다. 보통 2월과 3월 사이에 차가운 바람이 부는데 보통 이 바람을 꽃샘바람이라고 부른다. 2월 초하루날은 아침 일찍부터 새바가지에 정한수를 담아 장독대·부엌·당에 놓고 소원을 비는 풍습이 있고 이 때 여러 가지 음식을 정갈하게 마련하여 풍년과 가족들의 안녕을 기원하며 가족수대로 한지를 불사르는 소지를 한다.

봄맞이 대청소라고 할 수 있다. 또 이날 종이 쪽지에 '노래기는 천리밖으로 물러가라'는 뜻이 담긴 향랑각씨거천리(香娘閣氏去千里)라는 문자를 써서 서까래에 붙혀 놓는다. 향랑각씨는 여자라는 뜻으로 노래기(馬陸)를 미화해서 부르는 말이다.

▲콩볶기 : 2월 초하루가 되면 각 가정에서는 콩을 볶아 먹는다. 콩을 볶을 때는 타지 않도록 주걱으로 저으면서 '쥐알 볶아라', '새알 볶아라', '콩알 볶아라'라는 말을 반복하는데 이렇게 하면 농사에 해를 끼치는 새와 쥐들이 자취를 감추어 곡식을 축내지 않는다는 속설이 있기 때문이다.

▲풍신제 : 제주도 지방에서 2월에 영등신에게 올리는 당굿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영등제라 부른다.

마을의 수호신인 본향당신이 아닌 영등신을 맞이하여 어업과 해녀들의 물질을 잘하게 해달라고 기원하는 굿이다.

영등할머니는 제주도에서 영등할망으로 부르며 여신(女神)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신은 원래 '강남천자국' 또는 '외눈박이섬'에 사는 신인데 이 나라에서 매년 음력 2월 제주도로 찾아 왔다가 15일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한다. 제주도의 경우 영등신은 풍신(風神)의 성격도 보이지만 그보다는 해녀나 어부에게 어업의 풍요를 주는 내방신(來訪神)의 성격이 강하다. 이 신에 대한 굿을 보통 '영등굿'이라 한다. 마을에 따라서는 2월 초하룻날 이 신을 맞이하여 비는 굿을 '영등환영제'라 하고 2월 12일에서 15일 사이의 날을 잡아 신을 보내는 굿인 '영등송별제'를 행한다.

영등굿이 행해진 기록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2월 초하룻날 귀덕(歸德), 금녕(金寧) 등지에서는 목간(木竿) 12개를 세워서 신을 맞이하여 제사지내고 애월(涯月)에서는 이들 떼모양을 말머리와 같이 만들어 비단으로 곱게 꾸미고 약마회를 해서 신을 즐겁게 하였다. 보름날 끝을 맺는데 이를 '연등'이라 하고 이달에는 어부들이 승선을 금하였다"

기록으로 보아 '영등굿'은 매우 오랜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오늘날의 영등굿의 절차는 많이 변모되어 문헌상의 절차와는 차이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영등굿 절차를 보면 굿 전날 여성단체 간부들이 모여 떡을 만들고 제수를 준비하는데 비용은 집집이 추렴이나 공동기금으로 한다.

굿은 당의 매임심방이 수심방이 되고 소무(小巫) 3명이 악기를 치면서 시작되는데 ① 큰대세움 ② 초감제 ③ 용왕맞이 ④ 씨드림 ⑤ 지아뢲 ⑥ 신받음 ⑦ 배반송 순으로 진행된다.

▲경칩 : 경칩 때는 동면하던 개구리가 땅속에서 나오기 시작하고 웅덩이 물에는 개구리알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경칩날 먹으면 좋다는 속설이 있어 개구리알로 몸보신을 하는 풍습이 있다. 또 경칩날 벽을 바르면 빈대가 없다고 했고 고로쇠나무 수액을 먹으면 몸에 좋다고 해서 수액을 채취해 먹는 풍습도 전해지고 있다.

문화원소식

전국문화원연합회

한국의 향토문화자원 배포

전국문화원연합회는 최근 발간한 '한국의 향토문화자원'을 전국 문화원과 주요기관에 배포했다. (관련내용 2월호에 게재)

서울특별시

서울시지회

서울시지회는 지난 2월 8일 서울시청앞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권용태 강남문화원장을 서울시지회장에 선출했다. (관련기사 22면)

용산문화원

육보근 신임문화원장

용산문화원은 초대원장인 김일환 원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함에 따라 잔여 임기를 맡을 후임 원장에 육보근씨를 선출했다.

금천문화원

박종선 신임 사무국장

금천문화원은 지난 1월 15일자로 사무국장에 박종선씨(59)를 임명했다.

월간 '우리문화'

구독 · 광고문의 T.(02)704-2311

인천광역시

인천문화원

제10기 문화학교 개강식

인천문화원은 지난 2월 10일 오전 11시 2001년도 제10기 문화학교 개강식을 거행했다. 이번 문화학교 강좌는 사진, 국악, 사물놀이, 고전무용, 비디오, 생활한복, 서예, 사군자, 꽃꽂이, 기타, 문학창작, 영어, 일어, 중국어등 14개 과목으로 450명의 수강생은 올해 11월말까지 1인1예 교육을 받게된다.

인천문화원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지회

주소이전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322-6번지 대덕문예회관내

경기도

군포문화원

주소변경

(우:435-816) 경기도 군포시 당동 871-1

연천문화원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연천문화원은 지난 2월 7일 연천문화원 · 공설운동장 · 청소년수련관 등지에서 제13회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 잔치를 개최했다.

가평문화원

이홍귀 신임 사무국장

가평문화원은 지난 1월 19일자로 신임 사무국장에 이홍귀씨를 임명했다.

강원도

강원도지회

정기총회

▷일시 : 2월 22일

▷장소 : 도지회 사무실

정선문화원

경로효친 윷놀이대회

▷일시 : 2월 11일

▷장소 : 경로회관

총회

▷일시 : 2월 15일

▷장소 : 정선향교 유림회관

유명작가와의 대화

▷일시 : 3월 9일

▷장소 : 문화예술회관 1층

충청북도

청양문화원

청양문화원 문화학교 개강

청양문화원이 매년 실시하는 문화학교가 지난 1월 10일 문화원 2층강당에서 100여명의 수강생이 참석한 가운데 입교식을 갖고 문을 열었다. 청양문화원 문화학교는 지역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지식습득과 문화향수기회 확대를 위해 서예, 풍물, 민요, 종이접기, 수지침, 한문 등 6개 과목을 개설해 놓고 있다. 일부 특정과목은 연중 운영실시된다.

전라북도

전주문화원

주소 변경

(우:561-812) 전북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568-135 한안과빌딩 5층

청양문화원

정월대보름맞이 민속윷놀이대회

청양문화원이 주최한 정월대보름맞이 민속윷놀이대회가 2월 7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원3층 강당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우리고유 명절인 정월대보름을 맞아 민속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읍·면 민간의 단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해 개최된 이날 대회는 단체전과 개인전으로 나뉘어 단체전팀에게는 시상금을, 개인전 수상자들에게는 20인치 TV, 자전거, 가스렌지, 원적외선전기난로등 푸짐한 부상을 전달했다. 또 정원영군수의 특별상도 수여됐다. ◇다음은 수상자 명단 △ 단체전 · 금상 : 운곡면(김건식, 유경식) · 은상 : 청양읍(장일주, 이영숙) · 동상:대치면(김기옥, 김홍수) · 특별상 : 목면(김종한, 이희영) △ 개인전 · 금상 : 배종식(운곡면 영양리 905) · 은상 : 이창봉(청양읍 읍내리 275-2) · 동상 : 김영지(청양읍 읍내리 133-45) · 장려상 : 이동영(운곡면 영양리 897) · 특별상 : 왕완수(정산면 덕상리 37)

문화원소식

전라남도

구례문화원

제3회 산수유꽃 축제

▷일시 : 3월 24일(토)~25(일) 2일간

▷장소 : 구례군 산동면 지리산 온천관광지 일원

▷주최 : 구례군

▷주관 : 산수유꽃 축제 추진위원회

▷주요행사 : 산수유꽃 사생대회, 산수유꽃 사진 촬영대회, 산수유꽃 백일장, 산수유 음식축제, 산수유꽃 설명회, 노래자랑 대회, 다양한 먹거리 등

영암문화원

제9회 세시풍속 경연대회

▷일시 : 2월 7일

▷장소 : 영암군 서호면 서호중학교 운동장

▷참가인원 : 영암군민, 학생, 기관단체(1,000명)

▷참가종목 : ●액막이연날리기(기관단체장) ●연날리기(일반, 직장, 학생) ●제기차기(일반, 직장, 학생) ●널뛰기(영암군 여성) ●투호(영암군 여성) ●윷놀이(영암군 읍면 대항),(서호면 마을 대항)

▷기타 : 향토 음식점(서호면 번영회)과 무료 찻집운영(영암군 새마을 지회 부녀회)

경상북도

경상북도시지회

류영애 신임 서기

경북지회는 1월 18일자로 류영애씨(41)를 서기에 임명했다.

경주문화원

2001년도 정기총회

▷일시 : 2월 10일

▷장소 : 문화원 강당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일시 : 2월 10일

▷장소 : 문화원 뜰

▷대상 : 문화원 회원

▷내용 : 윷놀이, 제기차기, 투호 던지기, 널뛰기, 떡메치기 등

문경문화원

山陽縣 所山 봉수대 龍宮縣 龍飛山 봉수대 답사

문경문화원은 지난 2월 12일 향

김천문화원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 개최

김천문화원은 2월 7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달집 태우기, 쥐불놀이, 강강수월래, 지신밟기 등의 다양한 민속놀이를 중심으로 한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를 펼쳤다. 높이 15m 대형달집과 3m의 꼬마 달집이 함께 제작된 가운데 어린이들도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는 3천 여명의 시민이 운집해 성황을 이뤘다.

제35차 정기 총회 개최

제35차 김천문화원 정기총회가 2월 16일 오후 6시 문화원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총회에서는 2000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내역이 승인되고 2001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이 확정됐다.

토사연구위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산북면 대하리 소재 산양현 소산봉수대와 예천군 용궁면 향석리 소재 용궁현 용비산 봉수대를 답사했다.

문경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연습

▷일시 : 2월 20일
▷장소 : 문경문화원 대회의실

경상남도

마산문화원

주소이전(전화번호 변경)

경남 마산시 양덕동477번지 종합운동장내
전화번호 (055)293-1186~7
FAX (055)293-1310

제3회 마산시장기 민속놀이대회

마산문화원은 지난 2월 6일 마산공설운동장에서 제3회 마산시장기 민속놀이대회를 실시했다. 이날 경기 종목으로는 윷놀이, 자치기, 투호놀이 3개종목으로 40개팀에 500여명이 참석했다. 종합 우승은 구산면팀이, 준우승은 회원1동, 3위는 석전1동과 자산동이 차지했다.

▽ 마산문화원 보름달집

진해문화원

2001년 진해문화원 문화학교 제1기 노인컴퓨터교실 수료식

2001년 진해문화원 문화학교 제1기 노인컴퓨터강좌 수료식이 1월 10일 11시 경남은행 진해지점 2층 회의실에서 문화원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수료한 김종성씨(75세) 등 26명은 지난해 11월 13일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 2개월 과정으로 컴퓨터 기초교육을 받아왔다. 권호형 컴퓨터 강사는 "노인층들이 젊은층보다 더 많은 열의를 가지고 예습 · 복습을 철저히 했다"며 노인들의 수업 자세를 높이 평가했다. 박차생 문화원장은 이날 "우리 한국사람들은 장장근(長掌筋)이 발달되어 있어 세계에서 제일 손재주가 좋은 민족으로 5세만 되면 젓가락을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초정밀 반도체 생산도 세계 1위이고 손으로 하는 올림픽 종목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탁월한 실력을 발휘하지만 우리 국민의 단점인 빨리빨리 대강대강 하는 버릇을 고치지 않으면 세계속에 우뚝 설 수 없다"며 "컴퓨터 역시 대강대강은 통하지 않는 기계이므로 앞으로 인터넷도 계속하면서 여가시간을 최대한 활용해 즐거운 노후생활을 누리라"고 말했다.

2001년도 진해문화원 천자봉풍물패 지신밟기 행사

진해문화원 소속 천자봉풍물패(회장 정동찬) 회원은 지난 1월 26일(금), 29(월) 양일간 2001년도 신사년 새해를 맞이해 각 기관 · 단체의 안녕을 기원하는 지신밟기 행사를 실시했다.

문화원소식

김해문화원

2001년 문화학교 개강식

▷일시 : 3월 5일 오후 6시
▷장소 : 김해문화원 공연장
▷내용 : 사군자 묵화반 · 한문서예반 · 한국무용반 · 할머니무용반 · 어머니무용반 · 한국화반 · 가야금반 · 대금반 · 시조장반 · 발레반 · 다도반 · 민요판소리반 · 사진반 · 노래교실 · 문화재안내반 등

제11회 김해전국가야금 경연대회

▷일시 : 4월 8~9일
▷장소 : 김해문화원
▷내용 : 김해문화원은 전국 초 · 중 · 고 대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4월 8일(예선)과 9일(보선 · 결선) 이틀에 걸쳐 제11회 김해전국가야금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대학 · 일반부 대상자에게는 대통령상과 5백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신청기간은 3월 20일부터 4월 4일까지. 문의 : (055)326-2646, 336-2646

제주도

서귀포문화원

'정기대의원총회' · ' 독서생활화 만남'

서귀포문화원은 지난 1월 30일 서귀포 칼호텔에서 제11차 정기대의원 총회 및 '지역문화의 해' 기념식을 열고 2000년도 사업 및 예산 결산(안)을 심의하고, 2001년도 사업 및 각종 예산(안)을 승인 통과시켰다. 이날 기념식은 강상주 서귀포시장, 김평하 서귀포교육청 교육장, 양중해 전국문화원연합회 제주지회장, 한현섭 도의원, 부봉하 도의원, 오충남 도의원 등 각계 기관 · 단체장과 문화원의 임원 및 대의원등 약 1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부 기념식, 제2부 강연회, 제3부 정기총회 순으로 열렸다. 특히, 제2부의 강연회에서는 '지역문화의 해'를 기념해 전국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하고 문화관광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후원한 '출향 및 유명작가와의 독서 생활화 만남'이 서귀포시 서호동 출신의 출향작가인 '오성찬'씨 특강으로 열린 가운데 참석자 모두에게 작가의 저서인 '20세기 제주사람들', '꿈꾸는 섬의 아이들'이라는 책을 무료로 나누어 주어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이날 표창 및 감사패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전국문화원연합회장상 고 상율, ●도지사상 현광수, ●서귀포시장상 이국진, ●서귀포시의회의장상 오정원, ●서귀포경찰서장상 한봉수, ●서귀포교육청 교육장상 신창규, ●서귀포문화원장상 오춘자. ●감사패 수여자 허민, 김영식, 고홍식, 오태익, 김영봉, 김명관.

제주문화원

'제주인의 항일운동' 강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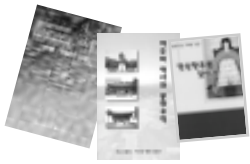
▷일시 : 3월 2일 오전 10시 20분~11시 20분
▷장소 : 제주여상

제주항일의병 순국 92주기 추모제

▷일시 : 3월 4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 모충사

문화학교 개강식

▷일시 : 3월 31일 오전 10시
▷장소 : 문화원
▷내용 : 서예반 · 동양화반 · 꽃꽂이반 · 서양화반 · 사진반 · 문예창작반 · 종이예술공예반 등 개강



鄕富論

충북대 사회과학대학 교수겸 사회과학연구원장인 강형기 박사가 '문화로 일구는 지방 경영'이란 부제로 '鄕富論'을 펴냈다. 강형기 박사는 부국강병을 지상목표로 삼았던 20세기가 '국가의 시대' 였다면,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을 우선하는 21세기는 '지방의 시대'라 역설하면서 이제는 국부론(國富論)이 아니라 향부론(鄕富論)이라는 사고적 틀속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향부(鄕富)를 위한 키워드로 필자는 문화(文化)를 제시한다. "지방은 국부(國富)의 언저리로서가 아니라 향부(鄕富)의 중심으로, 향부의 세기를 주도하는 주역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필자의 주장은 2001년 지역문화의 해를 맞이한 우리 모두가 곱씹어 보아야 할 명제임에 틀림없다. (비봉출판사)

漣川郡誌(下)

연천군지 상권에 이어 하권이 출간됐다. 하권에는 정치 · 지방행정 · 경제와 산업 · 사회 · 문화와 예술 · 지명유래 등 6편과 부록으로 금석문 · 선생안 · 연표를 실었다. 또 앞면에는 연천의 자연환경, 문화유산, 특산물 등에 대한 칼러사진 25면이 수록됐다. 4×6배판 양장본 1078면(연천군지편찬위원회)

譯註 京山志

경산지는 李元禎의 편저로 간행된 성주지방의 인문지리지이다. 한문으로된 6권의 책을 李相弼이 역주했다. 뒤편에 한문으로된 원문을 싣고 앞쪽에 번역한 내용을 싣고 있는데 각주를 달아 이해를 쉽게 했다. 양장본 4×6배판 336면 (성주문화원)

월간 '우리문화'
구독 · 광고문의 T.(02)704-2311

朝鮮王朝實錄의 영월사료(上)

조선왕조실록에서 영월에 관련된 사료만을 뽑아 편집한 책이다. 김승수 영월문화원장은 "새로운 천년을 맞으면서 조선시대 영월인들의 생활사를 살펴 봄으로써 우리 지역의 향토사 문화창달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며 선인들의 발자취를 재조명하는 귀중한 자료로 널리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국배판 298면 (영월문화원)

星州實錄 史料集

이 책은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등 우리나라 사서에 실려있는 성주관련 기록을 모아 하나의 책자로 만든 것이다. 제수천 문화원장은 이 책을 내면서 '500여년전 삼국사기, 삼국유사를 모아 간행했던 그 정신에 비할 바는 못되지만 이 책이 성주인 모두에게 올바른 향토역사를 전하는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고 발간사에 쓰고 있

다. 양장본 4×6배판 740면 (성주문화원)

蔚州郡의 祭堂

책이름 그대로 울주군내 제사공간에 대한 것을 수집 조사해 만든 책이다. 제사공간의 구성, 제당의 건축적 특성, 제사공간의 이용, 동제운영과 제사공간의 관리, 도시화에 따른 마을과 제사공간의 변화, 제당 공간의 보전과 동제의 활성화 등 모두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사공간 현황(사진), 제사공간 실측도면, 제사공간 현황(표)을 부록으로 실었다. 신국판 234면 (울주문화원

용산문학

제6호째 발간한 '용산문학'에는 용산문화의 향기, 삶의 향기가 넘쳐나고 있다. 문인작품인 시 · 수필 · 꽁트 · 소설과 백일장 당선작으로 일반의 시 · 수필과 학생의 시 등 다양한 작품으로 꾸며져 있다. 구민들의 살아있는 글들을 통해 보다 좋은 용산, 아름다운 용산으로 나아가는 초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낸 책이다. 신국판 292면 (용산문화원)

중랑문학

중랑문화원이 제5호째 발간한 문학지다. 이 책에는 중랑구에 거주하는 문인 35명과 중랑구에 직장을 가진 문인 5명 그리고 문학을 사랑하는 중랑구민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중랑구의 문학적 역량이 모두 나타나 있는 것이다. 장르가 다양하지 못한 것이 아쉽지만 청소년 백일장 입선작까지 많은 작품이 실려 있다. 신국판 348면 (중랑문화원)

2000 빛고을(제4집)

광주서구문화원이 펴낸 향토사료집이다. '현장의 발자취'에는 독립운동 관련사건, '거룩하다 우리조상'에는 애국선열들의 인물지가 실려 있다. 이외에 문화유적과 유물, 전설, 고유민속, 명승과 경관, 천연기념물 등 다양한 내용이 실려 있다. 국배판 310면 (광주서구문화원)

인천의 설화

인천지방에 내려오는 설화 50편이 사진 · 삽화와 함께 실려 있다. 김동순문화원장은 발간사에서 "역사는 시대나 사람에 따라 다르게 파악되며 인류사회와 인간생활의 역사적 과정을 연구하는데 설화도 참고자료가 된다는

한강이 꽃피운 용산의 역사와 문화

용산과 한강의 연관성을 문화적 측면에서 조명한 내용이다. 용산은 서울의 중심지로서 한강을 접하면서 발전해 왔다. 용산의 경제와 문화의 발달은 한강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이 책은 한강의 발전이 빚어낸 용산구의 경제와 문화의 발달을 역사적 측면에서 다룬 '용산학'이라 할 수 있다. 신국판 300면 (용산문화원)

점에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문헌을 조사하고 지역에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을 조사 발굴해 집대성 했다"고 말하고 있다. 국배판 228면 (인천문화원)

글사랑 꿈나무(제1집)

마포문화원이 실시한 향토어린이 글짓기 대회 우수작품 모음집으로 펴낸 책이다. 제1편은 운문(동시), 제2편은 산문(수필)으로 돼 있다. 노승환 마포구청장은 "글은 인간의 감정과 사고를 담아내는 도구로 글쓰기는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이종상문화원장은 "어린이들의 글쓰기는 거칠어져가는 정신세계를 보다 아름답게 가꾸어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신국판 320면 (마포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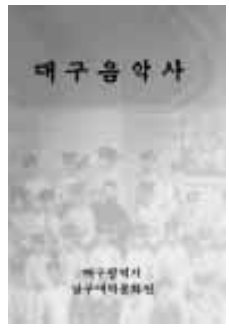
여주의 역사와 문화유적

여주의 역사와 자연환경, 그리고 읍면별로 문화유적을 조사해 사진과 함께 게재했다. 읍면 지도와 함께 문화유적을 자상하게 설명해 이해를 도왔고 여행자들에게는 안내서가 될만하다. 4×7판 192면(여주문화원 · 여주군 향토사료관)

온양 · 아산 마을사(제1권)

온양문화원이 관내 마을의 역사를 향토사정리 차원에서 편찬한 것으로 제1권은 염치읍과 송악면, 도고면, 신창면 4개지역에 대한 내용으로 꾸며져 있다. 마을별로 자연경관, 마을변천사, 입향, 지명, 전설, 민속, 인물, 마을의 특성 등을 담았다. 지도와 사진도 곁들여 이해를 돕고 있다. 국배판 454면 비매품 (온양문화원)

대구음악사



대구 남구대덕문화원이 간행한 이 책은 대구의 음악사를 다루고 있다. 대구음악사의 시대적 배경, 서양음악유입과 수용시기, 서양음악의 자주적 전개시기, 서양음악의 창조적 발전시기, 서양음악의 대규모 활동시기, 서양음악의 독창적 모색시기, 대구음악사의 큰 흐름 등으로 나누어 편집됐다. 대구의 음악사라고는 하나 서양음악이 중심이다. 국배판 368면 (대구 남구대덕문화원)

월간 '우리문화'
구독 · 광고문의 T.(02)704-2311

경주문화논총 (제3집)

경주지역 향토문화에 관한 논문집으로 '헌강대왕의 깨달음의 종교로서의 風流道 : 화랑도 조직의 종교적 본질(이강식)' 등 12편의 논문이 실려 있다. 경주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에서 발간했다. 이 책자는 심혈을 기울여 연구한 결과를 모은 것으로 문화원의 향토사연구사업에 새지평을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배판 342면 (경주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시와 함께하는 태안팔경연구

태안지역에는 경관이 수려한 8경이 있고 이 아름다운 경치를 詩로 읊은 것이 많다. 이번에 발간한 '시와 함께하는 태안팔경연구'에는 수려한 경관의 소개와 함께 선대 유학자들이 읊은 한시가 소개되고 있다. 사진을 곁들여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다. 국배판 300면 림성만지음 (태안문화원)

2001년은
지역문화의 해

제26회 학도문화예술제 우수작품집

문경문화원에서 주관하는 학도문화예술제에서 그리기 입상작, 글짓기 입상작을 모아 작품집으로 발간했다. '학도문화예술제에서 재능을 보인 수상자들이 어엿한 전문인으로 성장해 활동해 주기를 바란다'는 이창교문화원장의 소망이 담겨져 있는 소책자이다. 국배판 96면 (문경문화원)

恩平鄕土史料集 (1)

은평문화원에서 처음 발간한 향토사료집이다.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중에서 은평구와 관련된 내용을 뽑아서 한글로 누구나 알기쉽게 번역해 편집했다. 그러나 삼국사기와 고려사에서는 은평구지역에만 국한하지 않고 강북지역에 해당하는 사료도 포함시키고 있다. 신국판 302면 (은평문화원)

명성황후 탄신 제149돌 기념집 명성황후를 찾아서

명성황후는 여주출신이다. 여주문화원이 황후 탄산 149돌을 맞아 황후의 가계와 어린시절, 왕비가 되기까지의 과정, 시아버지 대원군과의 알력 등을 소책자에 담아냈다. 사진을 곁들여 이해하기 쉽게 편찬했다. 국배판 72면 (여주문화원)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道峯書院

도봉문화원에서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도봉서원 관련 내용을 발췌해 발간한 책이다. 도봉서원에 대한 향토사연구에 많은 도움을 줄 알찬 내용이 많이 수록돼 있다. 신국판 164면 (도봉문화원)

廣州鄕土史料集 (제4집)

광주군내 문화유산과 문화인물 등에 대해 조사 기록한 향토사료집이다. 문화유산은 조상의 슬기와 삶의 흔적이 깃들어 있는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후손들에 의해 보존되기를 기원하면서 이 책을 낸다고 박용재문화원장은 발간사에서 말하고 있다. (광주문화원)

강릉의 서낭당

서낭당은 우리나라 마을신앙의 상징적 존재이다. 강릉문화원은 대관령국사서낭당을 필두로 읍·면별로 서낭당을 조사해 한 권의 책으로 집대성했다. 소재지·제의명칭·신위·제당의 형태·제의 일시·제물·제차 등으로 구분 조사하고 사진까지 찍어 상세한 내용을 싣고 있다. (강릉문화원)

양주사료총서(1)

조선왕조실록에서 양주와 관련된 내용중 태조부터 성종까지를 발췌해 한글로 번역·출판했다. 국배판 370면 (양주문화원)

▲ **文化傳統論集(제8집)** : 경성대학교 부설 한국학연구소 간행, 신국판 132면

▲ **오성찬이 만난 20세기 제주사람들** : 도서출판 반석 발간, 신국판 286면. 값8000원

▲ **항일학생운동의 재조명** : 경성대학교부설 한국학연구소 발간, 신국판 176면, 비매품

▲ **박영만 英韓對譯詩集 별빛은 어디에** : 도서출판 문예사조 발간, 4×7판 152면, 값6000원

▲ 韓國藝術總集 : 대한민국예술원 발간. 국배판 양장본 588면, 비매품.

▲ **藝術論文集(제39집, 2000)** : 대한민국예술원 발간, 국배판 304면, 비매품.

▲ **꼭두극단 각시탈 창단 10주년기념 인형극·아동극 대본집** : 도서출판 키프로세스발간, 신국판 242면, 값7000원

▲ **제41회 한국민속예술제 결과보고서** : 전라남도·순천시 발간, 국배판 90면, 비매품

▲ **하늬시선 1 억새풀 빈대궁으로 서걱일지라도** : 도서출판 하늬사 발간, 4×7판 120면

▲ **2000 문화시민운동** : 2002

신간안내

년 월드컵 축구대회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 발간, 국배판 318면

▲ 제1회 문화교실회원 작품전 : 영등포문화원 발간

▲ 堀山寺(址)와 梵日의 再照明 : 강릉문화원 · 관동대학교 영동문화연구소 학술세미나 자료.

▲ 진안문학(2000. 제8호) : 한국문인협회 진안지부와 진안문화원이 공동발간한 문예지.

이달의 정기간행물

- 미르 2001. 2 (국립극장)
- 廣州文化 제11호 (경기 광주문화원)
- 畿甸문화예술 2000. 1~2 (경기문화재단)
- 鎭安文化 제9호 (진안문화원)
- 수원사랑 2001. 2 (수원문화원)
- 曾坪文化 제4집 (증평문화원)
- 藝術世界 2001. 2 (예총)
- 대전문화사랑 2001. 2 (대전중구문화원)
- 문화도시 문화복지 제96호 (한국문화정책개발원)
- 레일로드 2001. 2 (철도방송)
- 中原文化 제13호 (충주문화원)
- 慶州文化 제6호 (경주문화원)
- 英陽文化 제7호 (영양문화원)
- 문화의 뜰 제35호 (화성문화원)
- 유성소식 제101호 (유성구)
- 스산의 숨결 제207호 (서산문화원)
- 동양문화신문 제9호 (동양문화신문사)
- 세계여행 제92호 ((주)세계여행신문사)
- 늘푸른 수원 제160호 (수원시)
- 남해문화소식 제8호 (남해문화원)
- 간행물윤리 2001. 1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 기장문화원 창간호 (기장문화원)
- 月出의 脈搏 통권 111 · 112호 (영암문화원)
- 문화복지 제12호 (한국문화복지협의회)
- 中區文藝 2000년 (서울중구문화원)
- 강서문화 제6호 (부산 강서문화원)
- 昌寧文化 제20호 (창녕문화원)
- 奈城의 脈 제16집 (영월문화원)
- 悉直文化 제11집 (삼척문화원)
- 포천문화사랑 47-48호 합본호 (포천문화원)
- 梁山文化 제11호 (양산문화원)
- 七甲文化 제10호 (청양문화원)
- 문화부평 제1호 (부평문화원)
- 민속소식 제65호 (국립민속박물관)
- 문화금천 창간호 (금천문화원)
- 河東文化 제19호 (하동문화원)
- 達西文化 창간호 (달서문화원)
- 光州廣域市 西區綜合文化 제5집 (광주서구문화원)
- 유성문화원 2001. 1 (유성문화원)
- 驪州文化 제8호 (여주문화원)
- 仁川文化 통권 79호 (인천문화원)
- 麟蹄文化 제15호 (인제문화원)
- 回龍文化 제9호 (의정부문화원)
- 雪峰文化 제24호 (이천문화원)
- 原州얼 제10호 (원주문화원)
- 仁川文化 통권80호 (인천문화원)
- 어사매 제15호 (횡성문화원)
- 忠南文化 제4호 (전국문화원연합회 충남지회)
- 문화유성 2001. 2 (유성문화원)
- 동구문화원 통권16호 (대전동구문화원)
- 간행물윤리 통권 271호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峨嵯山에서의 古代史의 諸問題 ㊦

김민수(金玟秀)
고려대학교 국어국어국문학과 졸업. 前고등학교 교사. 광진문화원 향토분과위원장. 논문으로 「나당연합군 백제 정벌 루트의 재검토」, 「고조선의 시원과 변천에 관한 역구」 外 다수가 있다.

4. 溫達將軍의 戰死地에 대한 再考

온달에 관한 줄거리는 『三國史記』 列傳에 편별되어 있다. 온달은 新羅軍과 싸우다가 阿旦(旦)城 아래서 화살에 맞아 죽었다. 이때의 阿旦(旦)城의 표기인 '旦(차)'와 '旦(단)'은 식별할 수 없다. 前章에서 「廣開土大王陵碑」·『三國史記』 本紀의 阿旦(旦)城은 阿旦(차)城임을 밝혔다. 만약 阿旦(단)城이 있었다면 乙阿旦城과 南漢江上流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거나 그 지경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아래 지경에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열어두었다. 따라서 온달의 전사지는 서울 광진구 소재 사적 阿旦山城 지경과 『輿地圖書』에서 온달이 전사한 곳으로 지목한 단양군 영춘면의 溫達山城 지경의 두 곳이 전제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溫達傳에서 온달이 출정하게 된 동기가 주목된다. 온달은 嬰陽王(陽岡王)에게 漢北의 옛 땅을 되찾게 하여 달라고 주청하였다. 출정에 앞서서는 鷄立峴(麻木嶺:鳥嶺)과 竹嶺以西의 땅을 찾지 못하면 돌아오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鷄立峴·竹嶺은 南漢江上流에 근접해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온달이 王에게 출병을 청원한 漢北이다. 漢北은 漢水의 北이므로 漢江·南漢江 以北의 범칭이다. 따라서 漢(水)北이 한때 高句麗에 예속되어 있었던 漢江·南漢江 以北을 망라한 지명개념인지, 혹은 鷄立峴·竹嶺 以西와 작전상으로 연관된 南漢江上流 以東만을 가리키고 있는지가 온달의 전사지를 밝히는 관건이 될 것이다.

溫達은 실지 이름이 아니다. 『三國史記』 百濟本紀의 百濟 시조 溫祚도 溫朝鮮의 축약이다. '溫'은 옛날(古)을 상정한 것이고, '祚'는 '朝'를 황제의 개념으로 僞作하였다. 溫祚는 古朝鮮을 의인화한 명칭인 것이다. 溫達의 '達'은 땅의 借字表記가 확실한 만큼, 溫達將軍 역시 '옛 땅의 장군'을 은유한 표현이다. 이러한 『三國史記』 列傳의 예는 土皆伯將軍에게도 적용되었다. 계백장군은 南川州(百濟 때의 漢城)에서 漢江河口를 통하여 百濟의 南(伎伐浦)으로 나갈려는 新羅의 水軍을 皆伯縣(今 高陽市)에서 막은 '皆伯縣의 將軍'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온달장군은 삼국의 接戰地

域이었던 漢江流域 어디에서도 회자될 수 있는 인물들이다. 실지로 南漢江水系와 漢江下流까지 온달장군의 전설은 간간히 口傳되고 있다. 그렇다고 『三國史記』 列傳에 편별된 온달이 이러한 막연한 인물이라는 것은 아니다. 列傳의 온달은 高句麗 平岡(原)王의 부마였다. 또한 高句麗가 그 이전 新羅에게 빼앗긴 漢水 以北의 땅을 되찾기 위하여 영양왕 때에 출정한 명분도 합당하다. 따라서 『三國史記』 溫達傳이 本紀의 사실과 부합될 수 있다면 온달의 전사지는 쉽게 밝혀질 수 있다.

新羅가 南漢江上流流域의 高句麗를 내쫓은 것은 眞興王 12년(A.D. 551)이다. 新羅將 居柒夫는 단양지경의 10城을 高句麗로부터 빼앗았다. 이러한 사실은 「丹陽新羅赤城碑」에도 암각되어 있다. 이후 高句麗는 영양왕 14년(A.D. 603) 新羅의 北漢山城을 공격할 때까지 무려 52년 동안 두 나라는 소강상태를 유지한 것이다. 다만 溫達傳에서 온달의 출정시기를 영양王 즉위 원년(A.D. 590)으로 볼 때에는 두 나라의 소강상태는 41년 동안이 된다. 高句麗가 新羅에 대한 보복전을 감행하지 못한 이유는 西北으로 강력한 北齊(周)·陣·隋의 압박을 받고 있었으므로 南쪽의 失地를 회복할 여유가 없었던 것이 중요한 요인이었다. 高句麗의 寶臧王은 A.D. 642년 百濟征伐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신 자격으로 찾아온 新羅의 金春秋를 감금하였다. 이유는 新羅가 高句麗에게서 빼앗은 麻木峴(鳥嶺)과 竹嶺의 반환을 요구한 것이다. 이것은 新羅에게 南漢江上流流域을 빼앗긴 高句麗의 통분을 표출한 것이고 또한 타협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여 金春秋를 사살하려는 억지였다. 따라서 영양王 때에 高句麗가 재차 南進政策을 수립하려고 한다면, 廣開土王의 정략을 재현하여야 한다. 廣開土王은 즉위 원년(A.D. 392)에 水軍作戰을 감행하여 百濟의 漢城을 공략하였다. 漢城을 견제한 다음 南漢江上流流域으로 南邊을 확대시켜 나아갔다. 이러한 高句麗의 남진정책은 그의 아들 長壽王에 의하여 漢江下流에서 百濟를 퇴출시키므로써 일단의 완성을 보았다. 따라서 漢城百濟를 대신하여 漢江流域을 강점하고 있는 新羅에게도 이러한 高句麗의 작전은 같은 것이다. 온달이 영양왕에게 청원한 것은 漢水 以北의 高句麗의 옛 땅을 新羅로부터 되찾겠다는 것이었다. 廣開土王이 그러하였듯 高句麗의 남진정책의 1차 목표는 漢江下流에서부터 내륙 깊숙이 뻗어 있는 南漢江水系를 관통하여 水運의 통로를 여는 것이다. 이러한 水運의 통로가 완성되고 나서 南漢江上流에 접근해 있는 鷄立峴·竹嶺을 장악한다면, 한반도 南部까지 간섭하였던 高句麗의 영화가 재현되는 것이다. 온달이 출정에 앞서서 鷄立峴·竹嶺의 以西의 땅을 찾지 못하면 돌아오지 않겠다고 한 자신에게의 맹서는 廣開土王의 포부에 맞서겠다는 의지의 발현이다. 따라서 온달은 新羅征伐의 출정을 영양왕으로부터 허락받기 위하여 漢水 以北의 실상만을 피력한 것이다. 영양왕 때의 高句麗는 대부분의 漢江流域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더욱이 漢江下流는 「北漢山新羅眞興王巡狩碑」가 증거하는 바, 高句麗의 영역은 없었다. 따라서 온달이 新羅征伐의 첫번째 목표는 廣開土王 때와 마찬가지로 漢江下流가 된다. 『三國史記』 本紀에서 高句麗가 漢江下流의 新羅를 공격한 것은 두 차례의 北漢山城 전투이다. 新羅의 北漢山城은 필자가 누누이 지목한 바와 같이 지금의 사적 제234호인 阿且山城이다. 근래에 사적 阿且山城의 발굴과정에서 「北漢」의 명문이 암각된 新羅系統의 와편이 대량 채집되고 있어서 이러한 필자의 주장은 확고한 고증을 얻게 되었다. 제1차 北漢山城의 전투는 A.D. 603년 高句麗의 영양왕이 高勝을 시켜 對 新羅戰의 포문을 연 데에서 시작하였다. 新羅의 眞平王은 漢江下流의 거점인 北漢山城을 지키기 위하여 손수 1萬餘의 병력을 이끌고 와서 高句麗軍을 막았다. 高句麗의 제2차 北漢山城 공격은 寶臧王 때(A.D. 661)에 또 있었다. 이때 新羅將 金庾信은 北漢山城을 직접 구원할 수 없는 안타까운 심정을 列傳 편에 잘 드러내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열악한 여건에서도 高句麗軍을 물리친 漢城人들이 쾌거를 기리기 위하여 長漢城歌를 지어 부른 사실도 있다. 이렇듯 漢江下流는 新羅에게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었다. 따라서 이를 뺏으려는 高句麗에게도 국가의 再起를 노리는 곳이다. 온달은 新羅征伐을 영양왕에게 주청하였으므로 平壤에 있었다. 이때의 高句麗의 상황은 西北으로부터 중국을 통일한 隋帝國의 압박을 받고 있었으므로 北邊에 대한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漢江下流流域은 「北漢山新羅眞興王巡狩碑」, 漢灘江流域은 「孤石亭碑」가 증거하는 바와 같이 新羅의 北邊은 굳건한 관방체계가 확립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高句麗가 漢江下流의 新羅를 정벌하려고 한다면, 기습작전을 감행하여 단기간 내에 승패를 결정지어야 한다. 따라서 온달은 廣開土王이 漢城百濟를 공략하였던 水軍作戰을 감행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평강공주가 平壤에서 阿且(旦)城까지 오는데, 어떠한 걸림이 없었다는 것으로써도 방증된다. 만약 南漢江上流의 단양 지경이라면, 급박한 戰場터에 평강공주가 와서 온달의 시신을 수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寶臧王 때의 제2차 北漢山城 공격은 『三國史記』 列傳 金庾信傳서 밝혀진 바와 같이 高句麗의 水軍作戰이었다. 高句麗가 漢江下流를 공격한 전략들은 百濟·新羅의 대상에 관계 없이 陸路의 침공로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水軍作戰이었다. 水軍作戰은 정예부대를 편성한 치밀한 기습작전이다. 더욱이 漢江下流라는 중요한 지역의 쟁패에 관계되므로 國運을 건 도박이다. 제1·2차 北漢山城 전투에 있어서 眞平王 條·金庾信傳·長漢城歌 등에 나타나는 新羅의 열정들은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고 남음이 있다. 따라서 水軍作戰을 감행하여 漢江下流에 이른 온달의 阿且城 전투는 마땅히 『三國史記』 本紀에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三國史記』 列傳 편에서 온달의 출정시기는 '陽岡(영양)王卽位'이라고 하여 정확한 紀年을 명시한 것이 아니다. 高句麗의 영양왕은 그의 재위 14년(A.D. 603)에 장군 高勝을 시켜 漢江下流의 新羅의 北漢山城을 공격하였다. 新羅의 眞平王은 漢水를 건너와서 이를 막았다. 이때의 戰況을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영양왕 條에서는 高句麗軍이 퇴각하게 된 상황을 소상히 기록하고 있다. 이로 보아서 제1차 北漢山城 전투는 高句麗軍이 참담한 패배였음을 알 수 있다. 제1차 北漢山城 전투는 高句麗의 영양왕이 29년 동안이나 재위에 있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治世의 전반부에 있었던 일이다. 그 이전에 國力을 집결하여야 하는 水軍作戰을 온달로 하여금 감행하게 하여 漢江下流의 新羅를 공격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廣開土王(A.D. 392)·長壽王(A.D. 475)·제1차 北漢山城 전투(A.D. 603)·제2차 北漢山城 전투(A.D. 661) 등, 국력을 집결한 출정은 남진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였던 廣開土王과 長壽王 때에도 반세기를 넘어서 재차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온달이 출청한 '陽岡(영양)王卽位'는 영양왕의 治世 전반부(14년:A.D. 603)에 있었던 제1차 北漢山城의 전투인 것이다. 바로 온달은 高句麗의 敗將 高勝을 가리킨다.

高句麗의 原名은 句麗이다. 『後漢書』는 이러한 句麗를 낮춰 句驪라고 하였다. 『隋·唐書』 裴矩傳에서 高句麗는 孤竹國에서 始原하였다고 한다. 孤(孤竹國)·古(古雛加)·骨(紇升骨城)·固(固麻城)·鼓(迎鼓) 등은 중국발음표기인 웨이드식표기에서 'ku'이고, 병음표기에서는 'gu'로써 모두 같다. 句(句麗)·竹(孤竹國)·居(簡位居)·且(阿且城)·沮(沃沮城)·渠(右渠)·雛(古雛加)의 어휘들은 웨이드식표기인 'chu'로 통일되는 바, 곰족(chien)의 상징성을 축약한 것이다. 麗(句麗)·禮(慰禮城)·利(阿利水)·里(所夫里) 등은 중국의 두 가지 발음표기에서 모두 'i'로 표기되는 바, 扶餘系統의 지역을 나타내는 명칭이다. 따라서 祭政時代로 高句麗의 명칭을 환원시키면 古句麗(國)이다. 마찬가지로 孤竹國은 孤竹麗(國)이다. 後漢의 王莽은 高句麗를

下句驪라 낮춰 불렀다. 따라서 高句麗의 '高'는 句麗를 수식하는 형용사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예는 王儉城의 '王' 또한 같다. 즉 高句麗의 '高', '王儉城'의 '王'은 크다(大) 또는 높다의 뜻으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高句麗의 王系는 扶餘氏인 '解'氏로 이어졌음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高句麗 先住集團인 扶餘百濟에서도 '解'氏가 흐트러짐 없이 王姓을 이어 나갔다. 이러한 두 나라의 氏姓이 같음은 『日本書紀』에서도 확인된다. 國內史書인 『三國史記』·『三國遺事』에서는 高句麗의 王姓으로 '解'氏와 '高'氏를 혼용하여 표기한다. 이러한 사례는 高句麗의 王系가 바뀐 것이 아니라 改姓되었거나 혼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古代 中國帝國은 그들에게 맞서는 강력한 高句麗를 항시 낮춰 불렀다. 下句驪·句驪·高句驪 등이 그러한 예이다. '解'氏의 '解'는 중국의 발음표기인 웨이드식표기에서는 'chieh'와 'hsieh'로 표기된다. 'chieh'로 표기되는 어휘들은 契(殷시조)·土皆(階伯)·加(加耶)·柒(居柒夫) 등이 있다. 'hsieh'로 표기되는 어휘들은 契(異表音)·耶(加耶)·邪(狗邪) 등이 있다. '解'의 병음표기는 'jie'이다. 'jie'로 표기되는 어휘는 土皆(階伯)가 있다. 그러나 'ji'를 語根으로 하는 병음표기의 'jian'의 어휘들은 簡(簡位居)·儉(王儉)·健(健牟羅)·劒(劒牟岑)·革建(革建吉支) 등이 있고, 加(加耶) 역시 'jia'로 표기된다. 위에 열거 어휘들은 서로 연관되어서 곰족을 표상하고 있다. 이와 같이 高句麗의 王姓인 '解'氏는 古代中國帝國들이 동물인 곰을 비유한 卑稱이다. 따라서 高句麗는 이러한 멸시를 피하기 위하여 '高'氏姓을 따로 사용하였다. 高句麗의 '高'氏姓은 王族들을 이름하여 높고 큰 姓으로 일컬었던 존칭인 것이다. 따라서 제1차 北漢山城 전투의 敗將 高勝은 高句麗의 王族이었다. 그래야만이 평강공주와 결혼하여 부마의 지위에 오를 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삼국시대의 骨品制度는 新羅에서 眞德女王 때까지 聖骨로 王位를 이어 나간 사실이 참고가 될 것이다.

『三國史記』 列傳의 溫達傳은 온달이 高勝이었음을 밝히지 않았다. 또한 온달의 출신성분까지도 미천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왜 이런 誤記가 발생하였는가. 먼저 『三國史記』 각 篇의 편찬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本紀의 土皆伯은 列傳에서는 階伯으로 표기된다. 또한 地理志에서는 皆伯縣이다. 土皆·階·皆는 국어음에서는 다소의 차이를 보이지만, 중국의 발음 표기인 웨이드식 표기에서는 'chieh'이고, 병음표기에서는 'jie'로 모두 같다. 같은 인물과 그에 연관된 지역을 각기 다르게 표기하고 있다는 것은 『三國史記』 각 편의 찬자들이 다르게 구성되어 있었음을 알게 한다. 本紀의 阿且城은 「陵碑」·蓋鹵王 條·溫達傳에서 三國史에 회자된 중요한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地理志에서는 「三國有名未詳地名分」에 편제하고 있다. 이 또한 本紀·列傳·地理志 부분의 찬자들이 독립적인 계보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그렇다고 列傳의 찬자들이 『三國史記』의 총체적인 編纂史觀을 벗어난 것은 아니다. 列傳 第一 金庾信傳에서부터 第七 階伯傳까지는 忠節을 주제로 하고 있다. 列傳 第八은 효성·순종·인내 등을 주제로 한 사회상이다. 마지막 列傳 第九는 나라에 功이 있어도 王을 시해한 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三國史記』 列傳은 철저한 기획에 맞춰 기술된 것이다. 어떠한 古代의 史書들도 그러하듯이 『三國史記』는 高麗時代의 정치·사회상을 근저로 하여 국가가 나아가야 하는 목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은 이후에 편찬된 『三國遺事』의 壇君神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단군신화는 內憂外患에 처한 高麗를 재건하기 위하여 '汗半島濊族自決主義'의 깃발을 올린 것이다. 그러나 『三國史記』는 正史인 本紀를 우선하여야 하므로 객관적인 서술이 요구된다. 따라서 本紀에서 『三國遺事』의 단군신화와 같은 啓蒙史觀을 피력할 수가 없었다. 『三國史記』 列傳 편만이 史官들이 편찬의도를 가미할 수 있는 여백인

것이다. 列傳 第八은 대체로 일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여 구성하였다. 『三國史記』가 백성들에게까지 편별을 할애한 것은 高麗가 처한 國亂을 타개하는데 있어서 민중의 자발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절감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상응하는 報恩의 사례가 있어야 한다. 新羅의 (張)保皐는 미천한 출신에서 몸을 일으켜 그의 딸이 文聖王의 次妃의 물망에 오른 적도 있었다. 이는 실현되지 못하였지만 당시의 신분사회에서는 貴賤을 뛰어넘는 획기적인 사례였다. 溫達傳의 僞作은 이러한 保皐의 立身揚名을 본딴 것이다. 高勝의 '勝'이 이름이라면 당대에 戰勝을 도맡았던 名將에 연유한 後名일 가능성이 높다. 高勝이 부마의 지위에 오른 것이나 국력을 결집한 新羅의 北漢山城의 정벌에 선택된 것으로서도 예사 인물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그의 戰死는 高句麗人들에게 오랫동안 회자되었음이 분명하다. 더욱이 평강공주의 서글픔은 일반 백성들의 카타르시스적인 감회에 부회되어 이러한 회자의 강도를 높혔을 것으로 추정된다. 溫達將軍은 옛 땅을 찾기 위하여 분전하였던 高句麗의 將軍들의 범칭이다. 高勝을 온달로 대치한다면, 각 처에서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일어날 義兵將의 개념으로 파급될 수 있다. 이들에게 부마의 功名까지 곁들인다면 忠誠에 대한 報恩의 극치이다. 또한 미천한 계급에게까지도 국가에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므로써 高麗의 國亂을 저변에서부터 쇄신시켜 나가려는 의지의 일단을 피력한 것이다. 온달이 高勝이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단서가 있다. 溫達傳에서 평강공주의 婚處가 上部 高氏였다. 王室의 婚事의 결정권이 당사자들에게 없었음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또한 隋帝國과 맞섰던 高句麗의 君主가 저잣거리의 미천한 바보온달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도 상식 밖의 일이다. 列傳의 찬자는 계급사회의 붕괴마저 우려되는 溫達傳을 편별한 것은 시급한 高麗의 國亂을 민중의 힘을 빌어 타개하려는 의도가 우선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능한 한 本紀의 역사적 사실과 부합되지 않도록 은폐하려고 하였다. 本紀의 北漢山城의 전투를 溫達傳에서는 阿且城이라고 하였다. 國名에서부터 高句麗를 이어받은 高麗는 廣開土王과 長壽王이 漢城百濟를 공략한 거점, 阿且城을 환기시키므로써 高麗가 재기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음을 과시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阿且城이 실지 北漢山城의 전투의 역사적 사실과 부합될 때 오는 溫達傳의 허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三國有名未詳地名分」에 편제하였다. 따라서 平岡(原)王 · 陽岡(영양)王의 異名들도 이러한 맥락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5. 阿且城의 위치에 대한 再考

현재 사적 阿且山城은 新羅의 北漢山城이다. 환기하는 의미에서 요약하고자 한다. 제2차 北漢山城 전투에서 高句麗軍은 水路로 와서 北漢山城의 西쪽에 병영을 설치하였고, 靺鞨은 陸路로 와서 北漢山城의 東쪽에 병영을 설치하여 北漢山城을 포위 · 협공하였다. 이러한 위치의 北漢山城은 漢江下流의 水系上에 있어야 한다. 羅 · 唐이 연합하여 高句麗를 정벌할 때, 『三國史記』 新羅本紀 文武王 8년(A.D. 668) 條에서 新羅軍은 漢城州에서 출병하고 있다. 같은 상황을 『三國史記』 列傳 金仁問傳에서는 北漢山城에서 20萬 대군을 출병시켰다고 하였다. 漢城(州)과 北漢山城이 같은 작전지역이므로 漢城의 北岸에 있는 新羅의 北漢山城은 지금의 사적 阿且山城인 것이다. 漢城百濟에 있어서도 北漢山城은 있었다. 그러나 이때의 北漢山城은 漢城에 대칭되는 황해도 載寧의 北漢城의 관방체제임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사실은 근래에 사적 阿且山城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北漢」의 명분이 암각되어 있는 와편들이 다량 채집되었는데, 모두 통일신라시대의 것으로 밝혀진 사실에서 가름된다. 이어 발굴결과를 총집한 『아차산성 시굴조사보고서』도 사적 阿且山城이 新羅의 北漢山城일 가능성을 추찰하였다. 이

는 필자가 사적 阿且山城이 新羅의 北漢山城이라고 누누이 논증한 바를 뒷받침하는 것으로써 고무적이다. 그러나 명문기와의 파편들을 가지고 新羅의 北漢山城으로 유추하는 과정에서 모순이 있음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아차산성 시굴조사보고서』에서 출토된 명문기와는「北漢」·「漢山」·「山」·「戈」·「解」·「官」 등이다. 「北漢」·「漢山」·「山」의 명문기와편들은 이보다 먼저 조사한 『아차산성 지표조사』에서 이미 채집되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문헌사료의 검토와 더불어 사적 阿且山城이 新羅의 北漢山城임을 재차 밝혔다. 문제는 『아차산성 시굴조사보고서』에서 출토된 「北漢」·「漢山」·「山」·「戈」·「解」 등의 명문기와들이 '北漢山城' 또는 '北漢受國蟹口船' 의 명문의 일부분으로 판독한 독단에 있다. 新羅의 北漢山城은 北漢山州 또는 漢山州의 治所였다. 따라서 城名보다는 지방편제에 따른 명칭이 부여될 소지가 높다. 新羅의 王은 大王이라고 불렀다. 따라서 '州' 는 小國이 된다. 사적 阿且山城과 漢江을 두고 마주한 南邊의 河南市 船洞에서 '北漢受國蟹口船' 의 명문기와가 채집되었다. '蟹口' 의 '蟹' 는 百濟의 王姓인 '解' 氏를 비하한 것이다. '蟹口' 는 멸망한 百濟에게 오랑캐의 개념을 부여하여 부른 '곰나루' 의 漢譯이다. 이러한 '蟹口' 는 唐의 劉仁願이 高句麗를 정벌할 때, 泗沘(扶餘)에서 船團을 이끌고 상륙한 浦口로서 '鞋浦' 로도 불렀다. '解·蟹' 는 중국의 발음표기인 웨이드식표기에서는 'hsieh' 로, 병음표기에서는 'jie' 로 같다. '鞋' 역시 웨이드식 표기는 'hsieh' 이다. 다만 병음표기에서는 'xie' 로 달리 표기된다. 'xie' 로 표기되는 어휘는 '血(東盟)' 과 '契(殷시조)' 이 있다. 이러한 어휘들은 곰족을 표상한다. 따라서 '北漢受國蟹口船' 은 오랑캐 곰족(舊 百濟)의 浦口였던 사실을 상기함과 아울러 지금은 北漢山國(또는 北漢國)에 딸린 浦口임을 자처한 것이다. 필자는 사적 阿且山城의 지표·시굴조사가 있기 이전에 「國」의 명문기와편을 채집한 사실이 있다.

△ 「國」의 명문와편의 탁본

△ 「戈(과)」의 명무와편의 簡拓

△ 「長」의 古書體인 명문와편의 탁본

이러한 근거도 北漢山城의 城名보다도 小國의 편제인 北漢山國 또는 北漢國을 염두에 두고 각 개의 기와에 명문들을 새긴 것일 것이다. 또한 「北漢」·「漢山」·「山」·「戈」·「解」·「官」 등의 명문기와들이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北漢」·漢山」·「山」 등은 지정학적 개념을 주지하려고 만들었다. 그렇다면 「解」·「戈」·「官」 등은 용도에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解(蟹)」는 北漢山城이 관방체제를 벗어난 시점에 이르러서 漢江下流를 관장하였던 浦口로서의 기능만을 강조한 것이다. 「戈(과)」의 명문을 『아차산성 시굴조사보고서』에서 '北漢受國蟹口船' 의 '受(수)' 로 판독한 것은 무리가 따른다. 필자는 사적 阿且山城에서 「長」이 양각

된 명문기와편을 채집한 바가 있다. 「長」이 長漢城의 첫 글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長漢城歌는 北漢山城(사적 阿且山城)을 공격한 高句麗軍을 격퇴시킨 漢城人들을 기리(長)기 위한 노래이다. 따라서 따로 따로 양각되어 있는 「長」·「戈」·「官」 등의 명문기와편들은 각기 건물의 용도에 따라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長」·「戈」는 무기고에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官」은 北漢山城의 치소의 건물에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하겠다. 이러한 지적들은 『아차산성 시굴조사보고서』가 고고학의 한계를 벗어난 유추를 경계하는 것이지, 필자의 주장을 되새기는 사적 阿且山城이 新羅의 北漢山城이라는 等式에 대하여 異議가 있는 것이 아니다. 기실 新羅의 眞興王은 百濟로부터 漢江下流를 빼앗고 北漢山에 올라 경계를 확정지었다. 이때 세운 「北漢山新羅眞興王巡狩碑」를 北漢山에서 西嶽이라고 하였다. 반대로 碑峯에서 東쪽에 있는 北漢山은 峨嵯山인 것이다. 이때까지 峨嵯山은 北漢山이라고 命名되었지만 北漢山城은 없었다. 新羅의 眞興王은 碑를 세운 2년 후에 新州를 폐지하고 北漢山州를 설치하였다. 이러한 문헌상의 기록으로 볼 때, 사적 阿且山城은 新羅의 北漢山城으로서 이때 百濟의 阿且城을 改築한 것이거나 따로 新築한 것이다. 그러나 「北漢山新羅眞興王巡狩碑」가 眞興王이 北漢山을 순행한 후 13년이 지나고 나서 어느 시점에 세워진 사실을 감안한다면, 北漢山城의 初築도 문헌상의 기록보다 늦어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新羅의 眞興王은 漢江下流의 漢城을 百濟로부터 빼앗았다. 그러나 漢城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 이전 加耶의 도읍 新畓坪이었음을 회상하여 新州라고 命名하였다. 사적 阿且山城이 삼국시대의 阿且城과 같다면 굳이 北漢山州라고 하지 않고 阿且山州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적 阿且山城은 붕괴와 보수 그리고 개략적인 발굴을 마쳤지마는 百濟·高句麗가 集居한 흔적은 보이지 않고 있다. 溫達傳에서 온달이 전사한 阿且城도 실지는 北漢山城의 전투로써 지금의 사적 阿且山城에서 있었던 일로 밝혀졌다. 이러한 1·2차 北漢山城의 전투는 新羅·高句麗의 本紀에 각기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峨嵯山에는 그 이전 責稽王·廣開土王·長壽王 때의 저명한 阿且城이 있었다. 삼국시대의 阿且城과 新羅의 北漢山城이 사적 阿且山城으로 모두 같다면, 改名된 연유와 百濟·高句麗의 유물이 나타나지 않은 사실 등이 해명되어야 한다. 이러한 文獻·考古學的인 의문들을 사적 阿且山城은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峨嵯山에 삼국시대의 阿且城과 新羅의 北漢山城이 각기 따로 있었을 가능성이 제시되는 것이다. 이러할 경우 新羅의 北漢山城은 사적 阿且山城이 확실하므로 삼국시대의 阿且城의 위치가 밝혀져야 한다.

삼국시대의 阿且城(以下 阿且城)은 扶餘百濟의 시조 責稽王 즉위 원년에 高句麗의 침입을 두려워하여 수리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阿且城은 責稽王 이전부터 있어 왔던 峨嵯山의 관방체제였다. 그러나 溫達傳의 阿且城 전투가 실지는 北漢山城 전투를 僞作한 것이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阿且城은 전술적인 면에서는 그다지 효율성이 없었던 것 같다. 廣開土王의 水軍作戰은 漢江(阿利水)을 건넜음으로 阿且城은 高句麗水軍의 상륙과 동시에 손쉽게 접수한 漢江 北岸의 거점이었다. 그의 아들 長壽王도 百濟의 漢城을 공략하기 위하여 7일 낮밤을 가리지 않고 漢江의 渡江作戰을 감행하였다. 끝내 渡江에 성공한 高句麗軍은 百濟의 蓋鹵王을 漢江 北의 阿且城으로 호송하여 참살하였다. 두 차례의 高句麗軍의 漢城百濟의 공격선상에서 漢江 北岸에 있는 阿且城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本紀에 기록할 만한 전투는 없었다. 이로 보아서 阿且城은 국력을 집결한 대대적인 전투에서는 漢江의 渡河點을 방비하는 요충지가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扶餘百濟는 이러한 전투에서 아예 阿且城을 포기하였다. 사적 阿且山城은 新羅의 北漢山城으로서 高句麗軍을 두 번이나 물리쳤다. 그러나 阿且城은 高句麗軍의 두

번의 침입에 항거한 기록도 없이 무너진 사실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따라서 阿且城과 新羅의 北漢山城(사적 阿且山城)은 같은 峨嵯山에 있었지마는 지정학적으로 다른 위치에 있었음이 분명한 것이다. 高句麗軍이 漢江下流의 百濟·新羅의 공략은 時差에 관계 없이 똑같다. 먼저 漢江 北岸의 峨嵯山을 先占하고 나서 漢江을 渡江하는 것이다. 그러나 百濟와 新羅의 대응은 각기 달랐다. 百濟는 허술한 阿且城을 포기하므로써 高句麗軍에게 漢江 北岸의 渡河點을 내주었다. 新羅는 이러한 百濟의 방어전략이 실패한 사실을 상기하여 阿且城보다 굳건한 北漢山城(사적 阿且山城)을 축조하여 高句麗軍을 막았다. 따라서 阿且城은 新羅의 北漢山城인 사적 阿且山城보다 방어하기에 열악한 위치에 있었다.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여 築城한 新羅의 北漢山城이 사적 阿且山城이므로 阿且城 또한 이 주위를 벗어나서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大東地志』는 峨嵯山에 楊津城과 峨嵯山古城이 각기 따로 있음을 지적하였다. '楊津城은 廣津의 江北(上)에 있는 峨嵯山이 漢江에서 끊어지는 동쪽의 절벽에 있다. 廣州의 坪古城(풍납동토성)과 漢江을 경계로 하여 마주하고 있다' 라고 하였다. '峨嵯山古城은 山의 정상에 있는데 遺址가 남아 있다' 라고 하였다. 近朝鮮에서의 峨嵯山은 지금의 峨峨山·龍馬山·忘憂山의 범칭이다. 西北에 있는 烽火山까지도 峨嵯山烽燧臺에 해당한다. 日帝期에 조사된 『朝鮮寶物古蹟調査報告』에서 峨嵯山·龍馬山의 능선상의 보루들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牧馬場의 담장에 부속된 시설로 간주한 것이다. 필자가 峨嵯山에서 무려 14개의 보루성의 유구와 그에 따른 長城址를 찾아내고서 이를 古代의 관방체제로 인식할 때까지도 古代史學界는 이러한 필자의 견해에 의아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유는 近朝鮮의 地理志 및 地圖에서 漢江 北岸의 두 개의 城址만을 관방체제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大東輿地圖』에 표시된 두 개의 성곽은 『大東地志』에서 지목한 楊津城과 峨嵯山古城이다. 두 개의 성곽 중에서 하나는 유구가 완연한 사적 阿且山城이다. 그렇다면 『大東輿地圖』가 두 개의 성곽을 표시한 峨峨山은 지금의 峨嵯山 중에서도 漢江 北岸에 따로 서 있는 支峯만을 지목하였음을 알 수 있다. 『大東輿地圖』에서는 漢江 北岸에 접한 성곽과 그 성곽에서 西쪽으로 능선을 따라 올라선 정상에 또 하나의 성곽을 표시하였다. 漢江 北岸에 접한 성곽은 『大東地志』에서 '峨嵯山東崖' 라고 지적한 楊津城이다. 따라서 楊津城에서 西쪽의 정상에 있는 성곽은 『大東地志』의 '在山頂有遺址' 의 峨嵯山古城인 것이다. 峨嵯山 支峯의 정상에 있는 峨嵯山古城은 사적 阿且山城으로서 新羅의 北漢山城이다. 阿且城 또한 新羅의 北漢山城인 사적 阿且山城의 주위에 있었다. 따라서 阿且城은 '峨嵯山東崖' 의 楊津城이다. '峨嵯山東崖' 는 지금의 선경그룹의 社邸가 있는 곳이다. 이곳을 가리켜 『朝鮮寶物古蹟調査報告』는 '古山城東北 2~300間 高陽郡 蠶島面 廣壯里(혹은 楊州郡 九里面 峨川里)에 걸친 소구릉으로써 주위 약 40간 외축 사면의 높이 약 3간의 원형 대지로써 정상은 평탄하다' 라고 적고 있다. 古山城은 말할 것도 없이 사적 阿且山城이다. 사적 阿且山城에서 東北 방위는 '峨嵯山東崖' 로써 선경그룹의 社邸가 있는 곳에 소구릉의 유구가 있었던 사실을 환기하고 있다. 『朝鮮寶物古蹟調査報告』에서 廣壯里 혹은 峨川里라고 한 것은 하나의 유구를 두 곳에 측정한 결과를 종합하지 못하여 廣壯里城址 또는 峨川里城址로 구분하게 되었다. 그러나 실상은 두 곳의 경계에 있는 하나의 城址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곳은 비탈낭떠러지 고개라고 하여 '비낭고개' 로 약칭되고 있었다. 비낭고개에는 이 고개를 넘지 못하여 바위로 굳어져 버린 며느리바위의 전설이 있다. 아마도 낭떠러지의 길목을 가로막은 바위에 대한 알미운 애정을 표현한 것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東崖의 기슭에는 近朝鮮 때까지 성곽이 유구가 있었다고 한다. 필자는 이러한 石城의 城列을 확인하였다. 기슭까지도

漢江의 北邊을 차단하는 近朝鮮때의 관방시설이 있었다면 '峨嵯山東崖'에 漢江의 水路를 관장하였던 삼국시대의 阿且城이 있었음을 직감할 수 있는 것이다.

阿且城은 漢江의 水路를 관장하는 데는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사적 阿且山城이 있는 山頂에서는 훤히 조망될 뿐만 아니라 능선을 따라 내려오면서 공략한다면 쉽게 무너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扶餘百濟는 高句麗軍이 峨嵯山을 先占할 때마다 阿且城을 포기한 것이다. 이러한 阿且城의 단점을 파악한 新羅는 支峯의 山頂에 사적 阿且山城인 北漢山城을 축조하여 高句麗軍을 막았다. 그러나 阿且城은 扶餘의 依羅集團이 晋帝國의 용병집단으로 선택되어 漢江 南邊의 慰禮城에서 扶餘百濟를 개국하기 이전부터 있어 왔던 城이다. 扶餘百濟 이전에 漢江下流流域을 장악하고 있었던 집단은 加耶이다. 『三國史記』는 加耶史를 편별하지 않았다. 『三國史記』는 『魏略』의 歷谿卿(『史記』의 尼谿相 參)이 山東半島에서 '東之辰國'하여 朝鮮百濟(伯濟)를 연 載寧이 후일 扶餘百濟의 北漢城이었음을 상기하였다. 따라서 北漢城의 朝鮮百濟와 慰禮城의 扶餘百濟를 하나의 百濟로 연결시키기 위하여 '河南慰禮城遷都

△ 대동여지도의 아차산(◯표 성곽 표시)

△ 아차산성(신라의 북한산성)과 양진성(백제의 아차성)

說'을 조작하였다. 이러한 조작의 근거는 新羅·高句麗와 건국기년이 엇비슷한 加耶가 河南으로 遷都한 사실에서 착안한 것이다. 加耶의 首露王은 『魏略』의 廉斯金齒이며, 『後漢書』의 蘇馬言是이다. 首露王은 漢江 北邊의 龜旨(今 九里市)에서 弁韓을 정복하여 A.D. 42년에 加耶를 건국하였다. 다음해에 漢江 南邊의 新畓坪(풍납동토성)으로 천도하였다. 朝鮮百濟의 歷谿卿은 『三國史記』에서 古朝鮮을 의인화하여 百濟의 시조로 나타나는 溫祚이다. 溫祚가 河南 땅을 관망하기 위하여 오른 山은 負兒嶽이다. 만약 실지의 상황이 首露王에게 있었다면 '峨嵯山東崖'의 阿且城은 負兒嶽이라고 할 수 있다. 사적 阿且山城이 있는 峨嵯山 支峯을 여인으로 본다면 東崖의 구릉은 업힌 아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억측이 아니더라도 阿且城은 加耶에 있어서는 대단한 요충이었을 것이다. 加耶는 건국 초기에 한탄강유역에서 南遷하는 新羅와 대대적인 전투를 벌렸다. 이때 阿且城은 漢江 北邊을 차단시켜서 新羅가 加耶의 新畓坪을 공격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6. 峨嵯山의 異名인 엑계산의 지명에 관한 고찰

阿且山(城) 또는 峨嵯山은 문헌기록이다. 그러나 口傳되는 명칭은 엑계산이다. '계' 字가 회자되는 山名은 우리나라에 산재해 있다. 淸溪山(서울)·寒溪山(인제군)·羽溪山(명주군)·龍溪山(완주군)·茂溪山(고령군)·碧溪山(의령군·합천군)·德溪山(진양군) 등이 있다. 국어음으로 '溪'와 같은 '鷄'의 山名은 鷄龍山(공주군·거제군)·鷄足山(대전·영월군·대덕군)이 있다. '溪'의 지명으로는 淸溪川(서울)·六溪里(파주군)·月溪里(진안군)·龍溪里(장수군)·三溪里(임실군)·新溪里(남원군)·鳳溪里(여천시)·森溪里(장성군)·草溪邑(합천군) 등이 있다. '鷄'의 지명으로는 鷄林(경주)·鷄立嶺(영풍군)·鷄峴(대덕군)·鷄鳴縣(송화군) 등이다. 엑계산 기슭 西北에 上溪洞(서울)이 있고 東北에 兎溪院(퇴계원)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엑계산의 '계'의 한자 표기는 '溪'이다. '溪'는 중국의 발음표기인 웨이드식표기는 'chi'이다. 병음표기는 'xi'와 'qi'가 있다. 이러한 용어들은 啓(微子의 異名)·稽(責稽)·杞(牟婁)들이다. '鷄'의 지명용어 역시 웨이드식표기는 'chi'로서 '溪'와 같다. 다만 병음표기에서 'ji'로 표기된다. 'ji'를 어근으로 하는 'jian'의 고대사의 용어는 儉(王儉)·劒(劒牟岑)·簡(簡位居)·健(健牟羅)·革建(革建吉支) 등이 있다. 또한 'jie'로 어미가 변하고 있는 고대사의 용어는 解(解慕漱)·土皆(階伯)가 있고, '加'도 'jia'로 표기되므로 'ji'의 어근을 공유하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鷄'도 '溪'와 같은 지명개념인 것이다. '溪'와 尼谿相 參(『魏略』의 歷谿卿)의 '谿'는 同音同字이다. 尼谿는 '濊'의 연장음이므로 '溪' 또한 濊族의 의미를 함축하였다. 이렇듯 위에 열거한 용어들은 서로 연관되어 곰족을 표상한다. 峨嵯山 주위의 지명들이 곰족의 族性에 관계되므로 '엑溪山'을 '엑개산'으로 부를 소지는 없다고 본다. 설령 '엑개산'이라고 하여도 '개'는 '蓋'로 표기될 것이므로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蓋'가 接頭되는 고대사의 용어들은 蓋國·蓋馬國·蓋馬韓 등이 있는데, 이는 蓋馬朝鮮의 잔여로써 馬韓의 前身들이다. 『魏略』은 掩[illegible]水를 蓋斯水라고 하였고 『三國史記』 또한 掩[illegible]水를 蓋斯水라고 하였다. '掩(淹)'과 '蓋'는 통용된다. 掩[illegible]水·淹[illegible]水·施掩水·奄利水·淹水 등은 같은 하나의 江名으로써 東明(扶餘)과 朱蒙(高句麗)이 번갈아 건넌 '곰의 江'이다. 따라서 '엑溪山'을 '엑蓋山'이라고 달리 표기하여도 '곰족의 산'인 것이다. '엑溪山'의 '엑'을 달리 고증할 방법은 없다. 그러나 '엑溪山'이 곰족을 표상하는 濊族의 근거지였다는 사실을 주목한다면 '濊溪山'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峨嵯山은 扶餘百濟의 도읍 慰禮城의 관방체제에 있었다. '慰'는 味(味溝婁)·尉(尉仇台)·位(位宮)와 같이 중국

의 두 가지 발음표기가 'wei'로 모두 같다. 곰족을 표상하는 濊·穢· ·와는 대표음으로써 같다. 따라서 곰산(溪山)을 점층적으로 강조하여 '濊溪山'으로 불렀을 당위가 엿보인다. '예계산(濊溪山)'은 子音(ㄱ)이 역행동화하여 '계산'이 되었고, 차츰 단모음화하여 엑계산·액계산·액개산 등으로 다양하게 불렀을 것이다. 따라서 구전되는 '엑계산(濊溪山)'은 곰족의 산을 표상하므로 문헌의 阿且山이 뜻하는 '우리(我)들의 곰(且)의 山'과 같은 맥락에 있다. 따라서 전래의 순차는 濊溪山·阿且山·峨嵯山일 것으로 추정된다.

7. 結 論

漢江下流는 古代史上에 있어서 중추적인 지정학적 위치에 있었다. 이에 따라 古代史를 구성하는 쟁점 지역으로 부각되어 왔다. 그러나 문헌사료의 부족과 고고학의 자료의 한계는 이러한 쟁점들을 해결하지 못하였다. 本稿는 삼국시대에 있어서 漢江下流의 거점인 峨嵯山이 역사의 전개과정에서 어떻게 인식되어 왔으며 그러한 인식은 어떠한 변천과정을 거쳤는가 하는 문제들을 새로운 각도에서 파악하였다. 먼저 阿利水·郁里河는 같은 江名으로써 借字表記에 따른 異形字에 불과하다는 단서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阿利水는 국어음으로 '옥리수'였음을 확인하였다. 阿且城의 '且' 역시 沃沮城의 '沮'와 국어음 또는 중국의 발음표기에서 모두 같았다. 阿且城도 沃沮城의 다른 借字表記인 것이다. 따라서 阿且城은 국어음으로는 '옥저성'으로 발음되어야 한다. 이러한 阿且城의 '阿'는 『三國志』 辰韓傳에서 樂浪(朝鮮) 사람들은 '我'를 '阿'라고 한다고 하여 '阿殘'으로 비꼬아졌다. 『三國志』 辰韓傳은 '阿'와 '我'가 의미로써 같음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近朝鮮의 각 古書의 찬자들은 '阿'와 '我'가 국어의 공동음으로써만 같은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다. 또한 '且(차)'가 太祖 이성계의 後名인 '旦(단)'과 혼동될 우려까지 있었다. 이러한 우려는 '山'의 지명개념까지 덧붙여 '峨嵯山'으로 改作하게 되었다. 따라서 峨嵯山은 阿且山(옥저산)의 다른 음독으로 판단한 誤記이며 뜻 또한 訛傳된 것이다.

阿且城은 『三國史記』 本紀의 責稽王·長壽王 조에 의하면 峨嵯山에 있었음이 분명하다. 또한 문제가 되어 왔던 「廣開土大王陵碑」의 '阿旦城'도 書體에 근거하여 '阿且(차)城'이었음을 밝혔다. 阿且城은 廣開土王이 즉위 원년에 水軍作戰을 감행하여 百濟로부터 얻은 열 번째의 城이었다. 이러한 阿且城은 「陵碑」의 守墓人烟戶의 구성에 있어서 '百殘(濟)南居韓'의 앞에 기재되고 있으므로 百濟의 都城 南쪽에 있는 단양군 영춘면의 乙阿旦縣에 있을 수 없다.

廣開土王은 辰斯王의 '弟幷大臣十人'의 볼모를 담보로 하여 阿且城에 高句麗의 都護府인 南平壤을 건설하였다. 따라서 阿且城의 南平壤은 百濟의 漢城을 감시하고 漢江水路를 관장하였던 租借地의 성격이 짙었다. 그러나 이러한 阿且城의 南平壤은 阿莘王의 反正의 명분이 되어 4개월만에 소멸되었다. 이후 廣開土王의 아들인 長壽王은 재차 漢城百濟를 공략하여 그들을 錦江流域으로 퇴출시켰다. 나아가 漢江下流 일대를 관장하는 제2의 高句麗의 南平壤을 건설하였다. 이러한 高句麗의 南平壤은 여러 地理志가 언급하고 있는 楊州지경이 아니라 高句麗人들이 集居한 유구·유물들이 증거하는 바 峨嵯山을 관방체제로 한 百濟의 舊地 漢城 일대였다. 따라서 漢城의 南平壤은 사방의 百濟人들의 회귀력에 의하여 압박받고 있었다. 이러한 압박은 百濟의 東城王이 漢江流域을 발판으로 하여 황해도 내륙 깊숙히까지 高句麗와 항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漢城의 南平壤을 와해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日本書記』 欽明天皇紀에서 百濟의 聖王이 高句麗를 공격하여 漢城과 平壤을 얻었고 또한 빼앗겼다는 기사에 연유하여 高句麗의 南平壤은 이때까지도 漢江下流에서 버티고 있었다고 여겨 왔다. 欽明天皇

紀는 載寧의 (北)漢城과 漢江下流의 漢城을 구분짓지 않았다. 이때의 漢城과 平壤은 帶方故地로써 『日本書記』 찬자들이 牛頭方 · 尼彌方이라고 각기 달리 음독한 사실에서 확인된다. 따라서 欽明天皇紀의 平壤은 高句麗의 三京의 하나인 南平壤으로써 남진정책의 소산인 漢江下流의 南平壤과는 전연 관계가 없는 것이다.

『三國史記』 列傳의 溫達傳은 貴賤을 뛰어 넘는 사랑과 애틋한 死別로써 인구에 오랫동안 회자되었다. 列傳의 찬자들이 이러한 溫達傳을 편별한 것은 高麗가 처한 內憂外患의 현실을 민중의 힘을 모아서 타개하려는 의도에서 비롯한 것이다. 溫達은 '옛 땅의 장군' 을 함축한 의미로써 高麗를 구하기 위하여 각 처의 백성들의 봉기를 독려한 義兵將들의 범칭이다. 따라서 어리석은 백성들도 나라를 위하면 충성하면 부마에 버금가는 報恩의 사례가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溫達傳도 근거없는 僞作이 아니라 本紀의 사실을 각색한 것이었다. 온달은 영양왕 때에 新羅의 北漢山城을 공격한 高勝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溫達傳에서 평강공주의 婚處가 上部 高氏였다는 사실에서 방증된다. 王室의 婚事의 결정권이 당사자에게 없음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高勝이 공격한 新羅의 北漢山城은 漢江下流의 사적 阿且山城인 것은 재언을 요하지 않는다. 이러한 北漢山城을 阿且城이라고 僞作한 것은 高句麗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高麗가 廣開土王 · 長壽王이 漢城百濟를 공략한 거점, 阿且城을 환기시키므로써 高麗가 재기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음을 과시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阿且城이 실지 北漢山城의 전투의 역사적 사실과 부합될 때 오는 溫達傳의 허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三國有名未詳地名分』에 편제하였다. 따라서 平岡(原)王 · 陽岡(영양)王의 異名들도 이러한 맥락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사적 阿且山城은 新羅의 北漢山城이다. 그렇다면 같은 峨嵯山에 있었던 阿且城은 新羅의 北漢山城의 前身인가 또는 따로 별개의 城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新羅의 北漢山城인 사적 阿且山城은 최근의 붕괴와 보수 그리고 개략적인 발굴과정에서도 百濟 · 高句麗가 集居한 흔적들을 찾아내지 못하였다. 新羅의 北漢山城은 高句麗軍의 침입을 두 차례나 막았다. 그러나 百濟의 阿且城은 高句麗가 漢城百濟를 공격하는 渡河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투를 벌린 사실 조차 本紀에 기록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阿且城은 國力을 집결한 대대적인 전투에서는 漢江의 도하점을 방비하는 요충지가 되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간파한 新羅는 새로이 北漢山城을 築造하여 漢江의 도하점을 방비하였다. 『大東地志』는 이러한 두 개의 城郭이 峨嵯山에 각기 따로 있음을 지적하였다. 漢江 北岸 東崖에 있는 楊津城과 정상에 있는 峨嵯山古城이다. 이를 『大東輿地圖』에서 확인하면 峨嵯山古城은 사적 阿且山城으로써 新羅의 北漢山城이다. 楊津城은 사적 阿且山城에서 능선을 따라 東쪽으로 내려와서 漢江 北岸에 東崖를 이룬 지금의 선경그룹의 社邸로써 百濟의 阿且城이 있었던 곳이다. 이러한 위치에 阿且城의 유구가 있었음을 『朝鮮寶物古蹟調査報告』에서도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이 古代의 峨嵯山은 漢江下流의 쟁패에 따른 삼국의 각축장이었다. 이러한 峨嵯山에서 처음 언급된 百濟時代의 阿且城과 新羅時代의 北漢山城이 각기 따로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최근의 峨嵯山에서의 발굴성과는 高句麗의 남진정책의 소산인 南平壤을 새로이 구성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받았다. 이러한 단서와 문헌사료들을 비교 · 검토하는 과정에서 廣開土王에 의한 阿且城의 南平壤과 長壽王에 의한 漢城의 南平壤을 구별지을 수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高句麗의 남진정책을 혼동시켰던 『日本書記』 欽明天皇紀의 漢城과 平壤이 옛 帶方故地에 있었던 사실도 밝혔다. 따라서 本稿는 漢江下流流域에서의 三國史가 새로이 정립할 수 있는 여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후기

전국 문화원연합회 제40차 정기총회가 있었다. 연합회가 창립된지 39년. 내년이면 40주년을 맞는다. 나이는 많이 먹었으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연륜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당당한 문화단체로 확고한 기반을 굳혔다. 위상도 많이 높아졌다. 지난해 사업비가 17억원이나 됐다. 문화원에서 받는 회비도 60만원이던 것을 반으로 낮추었다. 지난 6년동안 부채 1억여원을 정리하고도 각종 기금 1억여원을 정립하였다. 그만큼 살림을 알뜰하게 한 결과이지만 회장이하 전 임직원이 주체의식을 갖고 열심히 뛴 덕이라고 할 것이다. 총회에 참석한 지방문화원장들의 얼굴에서 긍지를 느낄 수 있었다. 심의안건은 만장일치 박수로 통과시켰고 총회시간도 1시간 밖에 걸리지 않았다.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끼게한 총회였다. 이같은 기상으로 계속 매진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柳)

지난 겨울은 무척이나 추웠습니다. 사무실의 칠순을 넘긴 어르신은 이런 눈은 난생 처음 본다며 놀라워 했습니다. 다음날 신문에도 대문짝만하게 '32년만의 폭설'이라고 제목을 달았더군요. 가뜩이나 장난거리가 없어 심심하던 다섯살난 철부지 아들 놈은 수북이 쌓인 눈을 보며 마냥 즐거워 하더군요. 사실 저도 속으로 좋았습니다. 12층 사무실에서 한창 원고를 정리하고 있는데 창밖에선 세상 다 덮겠다는 듯이 흰눈이 그칠줄 모른 채 펑펑내리는게 아니겠습니까? 왜 좋았냐구요? 대낮에 이렇게 많은 눈이 내리는 건 저도 난생 처음으로 분명 이건 한컷의 기회라 생각됐기 때문입니다. 얼른 카메라를 챙겨 들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남산 기슭 한옥마을에 닿았습니다. 여러 풍경을 렌즈안에 담다 문득 이파리 하나 없이 앙상한 마른 나무가지에 시선이 닿았습니다. 10여마리의 참새들이 옹기종기 모여 퍼드덕거리고 있더군요. 그네들도 폭설에 놀란 것일까요? 나만이 즐거워 한건 아닌가요? 하염없이 겨울눈은 내리고 있었습니다.(旼)

알림

본회 편집실에는 전국문화원에서 발간하는 각종 사료나 향토지를 비치하고 있어 수시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합니다.

⊙ 史料 및 情報資料 提供
전국 시 · 군지, 향토사 자료등 각종자료 3천여권이 비치되어 있는 본회에 訪問하면 됩니다.

⊙ (향토지) 각종 圖書 復刊相談
지방에서 발행할 각종 책자의 편집 및 출간을 위해 자료, 견본 등을 제공하고 편간에 대한 자세한 상담도 해드립니다.

⊙ 海外 刊行物 交流
해외에서 발행되는 여러 간행물을 통하여 우리의 文化遺産에 대한 올바른 評價와 자료의 수집을 위해 "海外刊行物交流事業"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관련자 여러분이 소장하고 있는 서적이나 관련자료 또는 정보를 교류추진을 알선해 드립니다.

정기구독 안내

月刊 우리문화는 5천여년 간 숨쉬어 온 民族文化를 아름답게 꽃 피워보고자 하는 마음과 우리의 마음에 自矜心을 기르고자 합니다.
이 책은 특히 海外에서 한민족의 自矜心을 갖고 꿋꿋이 살아가는 분들에게 권유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구독료**(권당 3,000원)
국내 : 1년 정기구독료 36,000원 (우송료 본회 부담)
6개월 구독료 18,000원
海外 : 1년 정기구독료 36,000+우송료
6개월 구독료 18,000+우송료
(※문화원 회원은 1권당 2,000원)

● **송금방법**
송금은 농협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십시오.
• 온라인번호 농협 032-01-013084 문화원연합회

● **보낼곳**
121-715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빌딩 1202호
전국문화원연합회 우리문화 편집실

전국 문화원 현황

우리문화원은 전국에 2백11개 있습니다

전국문화원연합회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지회 • 종로문화원 • 중구문화원 • 용산문화원 • 성동문화원 • 광진문화원 • 동대문문화원 • 중랑문화원 • 성북문화원 • 강북문화원 • 도봉문화원 • 노원문화원 • 은평문화원 • 마포문화원 • 양천문화원 • 강서문화원 • 동작문화원 • 관악문화원 • 강남문화원 • 송파문화원 • 강동문화원 • 금천문화원 • 영등포문화원 • 부산광역시 • 동래문화원 • 북구낙동문화원 • 부산강서문화원 • 연제문화원 • 기장문화원 • 사상문화원 • 금정문화원 • 대구광역시 • 중구문화원 • 달성문화원 • 남구대덕문화원 • 대구북구문화원 • 대구서구문화원 • 달서구문화원 • 대구동구팔공문화원 • 인천광역시 • 인천문화원 • 부평문화원 • 강화문화원 •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지회 • 동구문화원 • 광주서구문화원 • 광주남구문화원 • 광주북구문화원 • 광산문화원 •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지회 • 동구문화원 • 중구문화원 • 서구문화원 • 유성문화원 • 대덕문화원 • 울산광역시 • 울산문화원 • 울주문화원 • 울산중구문화원 • 경기도 • 경기도지회 • 수원문화원 • 성남문화원 • 의정부문화원 • 안양문화원 • 부천문화원 • 광명문화원 • 평택문화원 • 동두천문화원 • 안산문화원 • 고양문화원 • 과천문화원 • 구리문화원 • 남양주문화원 • 오산문화원 • 시흥문화원 • 군포문화원 • 하남문화원 • 용인문화원 • 파주문화원 • 이천문화원 • 안성문화원 • 김포문화원 • 양주문화원 • 여주문화원 • 화성문화원 • 광주문화원 • 연천문화원 • 포천문화원 • 가평문화원 • 양평문화원 • 의왕문화원 • 강원도 • 강원도지회 • 춘천문화원 • 원주문화원 • 강릉문화원 • 동해문화원 • 태백문화원 • 속초문화원 • 삼척문화원 • 홍천문화원 • 횡성문화원 • 영월문화원 • 평창문화원 • 정선문화원 • 철원문화원 • 화천문화원 • 양구문화원 • 인제문화원 • 고성군문화원 • 양양문화원 • 충청북도 • 충청북도지회 • 청주문화원 • 충주문화원 • 제천문화원 • 청원문화원 • 보은문화원 • 옥천문화원 • 영동문화원 • 진천문화원 • 괴산문화원 • 음성문화원 • 단양문화원 • 증평문화원 • 충청남도 • 충청남도지회 • 천안문화원 • 공주문화원 • 서산문화원 • 논산문화원 • 금산문화원 • 부여문화원 • 서천문화원 • 청양문화원 • 홍성문화원 • 예산문화원 • 태안문화원 • 당진문화원 • 대천문화원 • 온양문화원 • 조치원문화원 • 아우내문화원 • 성환문화원 • 전라북도 • 전라북도지회 • 전주문화원 • 군산문화원 • 익산문화원 • 정읍문화원 • 남원문화원 • 김제문화원 • 완주문화원 • 진안문화원 • 무주문화원 • 장수문화원 • 임실문화원 • 순창문화원 • 고창문화원 • 부안문화원 • 전라남도 • 전라남도지회 • 목포문화원 • 여수시문화원 • 순천문화원 • 나주문화원 • 광양문화원 • 담양문화원 • 곡성문화원 • 구례문화원 • 고흥문화원 • 보성문화원 • 화순문화원 • 장흥문화원 • 강진문화원 • 해남문화원 • 영암문화원 • 무안문화원 • 함평문화원 • 영광문화원 • 장성문화원 • 완도문화원 • 진도문화원 • 신안문화원 • 경상북도 • 경상북도지회 • 포항문화원 • 경주문화원 • 김천문화원 • 안동문화원 • 구미문화원 • 영주문화원 • 영천문화원 • 상주문화원 • 문경문화원 • 경산문화원 • 군위문화원 • 의성문화원 • 청송문화원 • 영양문화원 • 영덕문화원 • 청도문화원 • 고령문화원 • 성주문화원 • 칠곡문화원 • 예천문화원 • 봉화문화원 • 울진문화원 • 울릉문화원 • 경상남도 • 경상남도지회 • 창원문화원 • 마산문화원 • 진주문화원 • 진해문화원 • 통영문화원 • 사천문화원 • 김해문화원 • 밀양문화원 • 거제문화원 • 양산문화원 • 의령문화원 • 함안문화원 • 창녕문화원 • 고성문화원 • 남해문화원 • 하동문화원 • 산청문화원 • 함양문화원 • 거창문화원 • 합천문화원 • 제주도 • 제주도지회 • 제주문화원 • 서귀포문화원